

<차례>

I. 필리핀 여행 시작	2	VII. 시키홀 Siquijor	61
1월2일(토) 인천에서 세부로	2	1월17일(일) - 두마게띠 - 시키홀	61
1월3일(일) 세부 - 보홀 딱빌라란	3	1월18일(월) - 시키홀	65
빠른(!)필리핀 by anakii	5	1월19일(화) - 시키홀 - 모알보알	69
II. 디퍼 다이브 리조트	6	(INFO) 시키홀 섬을 다녀보자 by anakii	72
1월4일(월) 딱빌라란 - 팡글라오 디퍼다이브	6	출입	72
1월5일(화) - 디퍼 다이브 리조트, 알로나 비치	7	교통/지도	73
III. 알로나 비치 Alona Beach	10	지역 정보	74
1월6일(수) - 디퍼 다이브, 알로나 비치	10	숙박	76
1월7일(목) - 아일랜드 호핑 투어, 반딧불(로복강)	13	VIII. 가와산 캐녀닝 Kawasan Canyoneering	76
IV. 카미긴 Camiguin	17	1월20일(수) - 모알보알 - 가와산 폭포	76
카미긴으로 이동하며 by anakii	17	1월21일(목) - 모알보알 - 마닐라	80
1월8일(금) - 알로나 비치 - 카미긴	20	(INFO) 모알보알 캐녀닝 by anakii	83
1월9일(토) - 산토 니뇨 콜드 스프링 외.	23	IX. 마닐라	85
1월10일(일) - 화이트 아일랜드 외.	26	1월22일(금) - 마닐라 둘러보기	85
1월11일(월) - 맨티그 섬 외.	30	1월23일(토) - 앙헬레스 - 카파스 - 스파 타운	87
1월12일(화) - 소다 스프링 외.	36	(INFO) 피나투보 스파타운 다녀오기 by anakii	90
(INFO) 카미긴 섬 여행정보 by anakii	40	(INFO) 따가이따이 피크닉 by anakii	93
V. 세부 오슬롭 Oslob	45	1월24일(일) - 따가이따이(딸 호수)	96
1월13일(수) - 까미귄 - 타나완(고래상어 마을)	45		
1월14일(목) - 고래상어 투어 - 두마게띠	47		
VI. 네그로스 두마게띠 Negros Dumaguete	50		
1월15일(금) - 아포 섬	50		
(INFO) 아포Apo섬 원데이 투어 by anakii	54		
1월16일(토) 두마게띠	59		

필리핀 여행 시작

1월2일(토) 인천에서 세부로

아침 8시에 일어났다. 새벽에 수영가려다 졸려서 포기한다. 10시경에 해안이를 통진에 데려다 주고 온다. 마당의 유실수들 잔가지를 정리한다. 날이 봄날처럼 포근하다. 음식을 냉장고에 마무리하여 넣고 필요한 물품들을 챙기며 짐을 싣는다. 스노클링 장비와 핀 때문에 대형 등산 배낭에 넣는다. 작은 소형에는 컴퓨터 등을 넣게 되니 중형까지 총 3개의 배낭이 필요하다. 짐을 치우고 문단속 후 택시를 불러 통진에 왔다. 90번 타고 검암역까지 1시간 정도 걸려서 간다. 저녁에도 10도 가량 되어서 겹겹이 입은 얇은 옷만으로도 좀 부실하지만 버틸 만하다. 오랜만에 포근한 날씨다. 검암에서 튀김과 김밥을 산다. 제주에어는 기내식이 없다.



그림 1 인천공항 제주항공 대기열

총 2시간 걸려 공항. 제주에어의 대기 줄이 상해 수준으로 길다. 인원 감축이 세계적 추세인가 보다. 불편하다. 아이들이 모아 준 동전을 넣을 통을 찾았으나 모두 모른다고 하고

전에 있던 것이 공사 후 사라졌다고 한다. 무거운 동전을 잔뜩 들고 와서 이런 일이 생기니 당혹스럽다. 필리핀까지 가져갈 판이다. 해안이가 만들어 준 녹차 물과 블루베리 우유, 요거트를 서서 먹는다. 1시간 기다려 표를 받고 짐을 부친다. 안에 들어와서 어제 주문한 소니 방수카메라를 면세점에서 수령했다. 질은 핑크에 모양이 깔끔하다. 어떻게 바다 속에서도 찰물이 안 들어간다는 것인지 신기하다. 남편은 각종 옵션이 6만원 어치나 더 들어 있어 흐뭇해한다.

세부에 가는 한국인들이 많다. 비행기는 약간 연착이다. 제주에어의 좌석은 좀 묘하게 불편하다. 게다가 공기가 어찌나 건조한지... 물만 컵으로 준다. 컵라면 작은 것이 5,000원이다. 사 온 김밥 2줄을 먹고 잠을 잔다. 건조해서 몇 번을 깼다. 4시간이 꽤나 불편했다. 현지 시간으로 새벽 1시 넘어 도착한다. 앞에서 2번째 자리라서 빨리 나올 수 있었다. 그러나 공항은 한국인들로 인산인해다. 미어터질 것 같은 상태에서 꼬불꼬불 줄을 섰다. 그래도 제법 빠르게 일 처리를 하는지라 생각보다 빨리 나온다. 프린스 마사지 슌의 직원 언니가 기다리고 있어서 승용차로 밤 2시 넘어 상가 2층의 슌에 왔다. 나는 방에서 자고 남편은 마사지를 받고 왔다.

1월3일(일) 세부 - 보홀 딱빌라란

아침 8시에 일어났다. 어제 승용차로 온 이 곳은 상가의 2층 끝에 있다. 바닥에 매트가 깔려 있어 여기에 누워서 잔다. 남편이 받은 마사지는 그냥 편안한 수준이었단다. 환전 300달러를 하고 택시로 부두에 왔다. 9시 20분 배를 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왔으나 일요일이라 줄을 선 사람들이 많다. 9시 20분이 되어서야 오픈 에어 티켓을 산다. 야외용 좌석이다. 당연히 10시 40분 배려니 생각하고 아침을 먹으러 갈까 하는데 표에 9시 20분이라고 적혀 있다. 부리나케 터미널로 달려간다. 사람들이 줄지어 들어간다. 큰 가방은 부치라고 해서 50을 주고 부쳤다. 야외 좌석도 지정석이 있다. 실내는 에어컨이 매우 세다고 한다. 야외가 100이 싸다. 물도 사지 못해서 사과만 먹었다. 9시 40분에 출발하여 10시가 넘자 더위가 물려온다. 습하고 덥다. 아침에 슌 바깥에 나갔을 때 쨍한 햇빛과 야자나무들이 참 낯설었다. 4시간 만에 이런 날씨로 오다니. 제주도 비행기도 편도 10만원이 넘는데 왕복 37만원 정도면 열대지방에 올 수

있다니... 당연히 한국인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 남편은 자고 나는 넓은 바다, 하얀 구름들을 본다. 휴양하러 온 느낌이 많이 든다.

2시간이 좀 안 되어 보홀에 왔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미리 왕복 배표를 부탁했던 사람에게 뒤늦게 카톡으로 표가 왔다. 메일로 아침에 취소 편지를 보내서 연락이 된 줄 알았더니 미리 표를 사 두었다고 카톡으로 보냈던 거다. 배에서야 그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결국 부두에 나가 줄 서서 기다려 총 2,000 중 1,400을 환불받았다. 이미 출발한 배는 20%, 안 쓴 표는 10%를 뺐다. 600은 손해를 본 셈이다.

점심으로 부두의 식당에서 돼지고기 깐풍 느낌의 음식과 피자를 시켰다. 피자 맛은 보통이고 남편의 것은 좋다고 한다. 숙소를 향해 걸어가는데 몹시 덥다. 해가 날 때와 구름이 낄 때의 차이가 크다. 라 로카는 예전보다 좀 더 넓었지만 그래도 괜찮다. 수영장에는 날벌레들이 떠 있었다. 오후에는 치위준다고 한다. 엄마와 해안이의 추억이 있는 곳이라 좋다. 숙소에서 씻고 잠시 에어컨을 켜고 누웠다. 안톤 체홉의 단편을 읽는다. 44세에 죽은 작가이다. 꽤 웃긴 내용이다. 밖으로 나와 수영장에 가 보았다. 벌레를 안 치운 것이 오늘 증으로 쓸 수는 없겠다. 몇 년 전의 추억이 생각난다. 이곳을 우리가 왔다 갔다 하며 참 즐거워했는데..

3시 반 경에 트라이시클을 타고 터미널에 간다. 새 버스들이 많이 생겼다. 시장에는 큰 게, 새우, 몸이 뽀뽀하고 눈이 초롱한 싱싱한 물고기들이 많다. 말린 한치 200g을 산다. 부드럽고 맛이 좋다. 바로 앞에 대형 물이 생겼다. 재래시장과 극대비가 된다. 장사에 타격이 클 것이다. 대형 물은 시원하다. 유심 칩을 사서 갖고 슈퍼에 간다. 과일과 술 등을 산다. 빵집에서 약간의 빵을 샀다. 트라이시클로 보홀 대학교 앞에 내렸다. 이발소에서 남편이 머리를 깎는다. 과일 스위츠를 꺼내어 먹는다. 달다. 솜씨 좋은 아저씨는 금방 산뜻하게 만들어 준다. 내가 깎던 것과 모양이 비슷하나 손이 빠르다. 겨우 50이다. 학생은 30. 보홀대 앞 밥집에서 닭간, 돼지고기 장조림, 야채조림, 밥, 꼬치 등 2인 분이 총 110이다. 모두 간장으로 조렸고 맛이 괜찮다. 푸짐한 반찬에 잘 먹었다. 꼬치를 몇 개 더 사고 숙소에 온다. 바나나는 달고 망고는 시즌이 아니라 시다. 맥주와 코코넛 와인을 마신다. 코코넛 술은 우리나라 막걸리 맛이다. 꼬치도 담담하니 맛있게 만들었다. 숙소의 에어컨이 시원하다. 내일은 6시에 알람 맞추어

일어나서 짐을 챙겨 부두로 가야 한다.

빠른(!)필리핀 by anakii

저가항공을 주로 이용하다보니 우리나라 국적기를 타 본 게 오랜만이다. 세부공항에 내리니 출입국심사부터 엄청난 수의 한국인이 붐빈다. 여행을 오래 해 왔지만 특정 나라의 공항에 이렇게 많은 한국인이 몰린 건 처음본다.

"필리핀에는 어학공부하러도 많이 와. 아이들도 어학연수 많이 하잖아."

다들 나와 같은 배낭여행자로서만 생각하니까 특이한 풍경이라 여겼군.

사람이 많은 데 비해 출입국심사는 무척 빨랐다. 우리 앞 줄 구름같이 몰린 사람들이 다 통과하는데 한 20분 걸렸나보다. 그토록 느긋하다던 필리핀 사람들이 한국과의 수 많은 접점을 통해 한국식으로 바뀌어가는 건가.

일요일 아침 9시. 세부 1항 터미널 바깥 오션젯 티켓부스에는 사람이 한가득이다.

9시20분, 10시30분에 보홀 행 오션젯이 있는데 9시20분에 20분 표를 티켓팅해 왔다. 향만세 25포함해 한번에.

터미널로 뛰어가니 배 타려고 줄을 많이 섰다. 일요일이라 그런가?

"큰 짐은 체크인해야 해요." 직원이 말했고 70리터 배낭을 체크인카운터에 맡겼다. 50페소.

시간이 넘어도 사람들을 계속 태워 40분에 출발했다. 실을 짐도 많고 사람도 많아서 20분정도 연착하나보다. 하지만 20분에 표를 끊고 1분 이내의 체크인 포함해 25분정도에 배에 탄 건 정말 놀랍다. 필리핀 향만 완전 일처리 빠름.

보홀의 관문 딱빌라란의 센트랄시장은 메인 버스터미널인 DAO터미널과 붙어 있는데 바로 그 옆, 아일랜드 시티몰이 있다. 재래시장 바로 옆이라 시장상인들에게 피해가 만만찮을것 같은데, 이곳 분위기는 거의 우리나라. 모두가 바쁜 느낌? 전화기 유심 구입하러 1층의 globe 대리점 갔더니 일사천리로 해결되고(설명도 무지 빨라...) 슈퍼마켓 갔더니 캐셔들 일처리도 후

다다닥. 신속하여 좋긴 하지만 이국적(?)인 느낌은 적네. 이곳이 필리핀인지 한국인지.

| 2 |

디퍼 다이브 리조트

1월4일(월) 딱빌라란 - 팡글라오 디퍼다이브

아침에 일어나 책을 읽는다. 7시에 남편을 깨워 짐 정리 후 7시 반에 나왔다. 부두까지 걸어와 픽업 올 직원을 기다린다. 10여 분 후 남편 이름 ‘류’자가 보이는 종이를 옆구리에 끼고 들어오는 사람을 만나 우리가 바로 그 사람들이라고 했다. 직원은 당연히 아침 배로 들어올 줄 알고 기다릴 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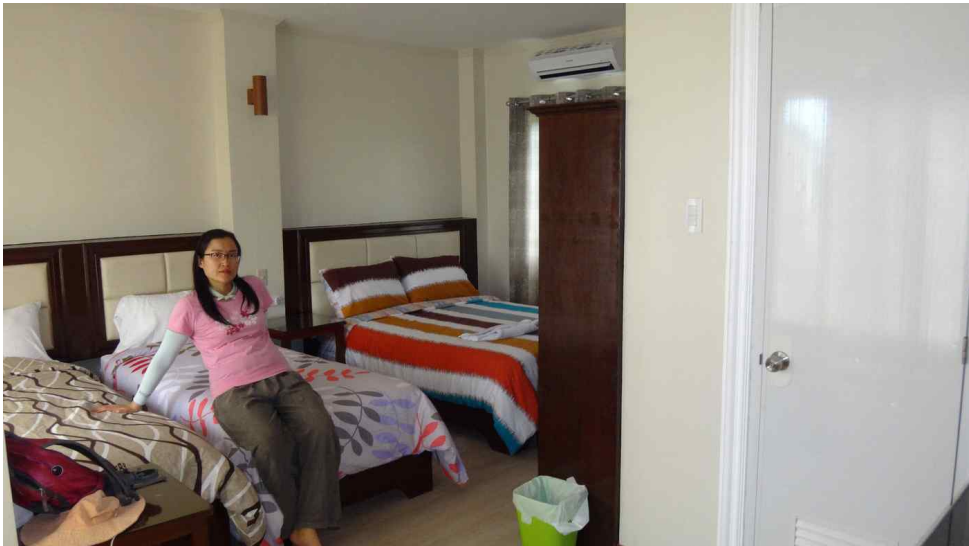


그림 2 디퍼 다이브 숙소

30분 만에 팡글라오 섬의 디퍼 다이브에 왔다. 8시 40분인데 아침을 먹으라고 한다. 호텔을

미리 알려줬더라면 바로 픽업을 왔을 거라고 한다. 반찬도 좋고 김치도 있다. 뷔페식으로 차려져 있었고 돼지고기가 맛이 있다. 식사 후 숙소에 왔다. 광활한 4인실이다. 더블 침대 하나에 싱글이 2개나 있다. 완전 새 숙소이고 고급 호텔 같은 분위기이다. 우리 담당인 변성호샘과 10시부터 이론 공부를 시작한다. 개인 책자를 주고 자세히 배운다. 잠시 쉬었다가 1시 15분 까지 이론공부를 더 하고 점심을 먹는다. 2시에 다시 약간의 이론 공부 후 영상교육을 했다.

2시 40분에 수영장에 갔다. 공기탱크와 BCD 연결법, 공기탱크와 호흡기를 연결하는 법, 점검하고 해제하는 것까지 자세히 배운다. 웨이트 착용 후 슈트를 입고 물에 들어가서 BOD를 착용하고 얇은 수심에서 여러 가지 교육을 받는다. 다시 깊은 수심에서 줄을 잡고 아래로 하강하는 방법을 배운다. 숨쉬기가 익숙하지 않고 자꾸 수경이 부풀어서 누르기를 반복하거나 손으로 잡게 된다. 중간에 화장실도 가고 잠시 쉬다가 다시 물에 들어갔다. 내가 호버링을 하고 남편도 호버링을 하는데 꽤 잘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남편이 물속에서 교육받다가 호흡 곤란을 호소하여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7시 반에 강습을 마치고 잘 쉬었다가 내일 아침 다시 하기로 한다. 원래 9시 반 정도까지는 교육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그래야 내일 아침 바다로 나갈 수 있다. 어쩔 수 없이 바다 일정은 오후로 연기하게 된다. 물속에 오래 있으니 오한이 나기도 하고 밤이 되어 물속 시계가 더 침침하다.

남편에게는 자신도 알지 못했던 약간의 밀실 공포가 있는 듯하다. 물의 압력이 세고 입으로 호흡하는 것도 꽤 갑갑하다. 선생님의 수신호를 잘 못 알아들으면 답답함이 더 커진다. 8시 10분에 씻고 내려와 저녁을 먹었다. 크림치즈 스파게티와 전, 김치국 등이다. 오늘은 피곤하여 빨리 먹고 내일 교육에 대비하려니까 저녁을 먹지만 한 끼에 1인 400이라니 너무 비싸다. 샘에게 이수율이 얼마나 되냐고 했더니 90% 정도는 된다고 한다. 여기서 교육을 잘 하고 바다에 나가서 포기하는 사람도 있단다. 막상 받아보니 생각했던 것처럼 만만한 교육이 아니다. 올라와서 빨리 자기로 한다. 저녁 9시 쯤 잔다.

1월5일(화) - 디퍼 다이브 리조트, 알로나 비치

아침 6시 반에 일어나 책을 읽고 복습을 한다. 7시 40분에 식당에 가서 아침을 먹는다. 각종 빵과 밥이 나온다. 배부르게 먹고 8시 40분에 수영장에 갔다. 이번에는 우리 스노클링 장비를 쓴다. 장비를 다 부착하고 BCD를 수영장에 던져둔다. 슈트와 신을 신고 물에 들어갔다. 착용 후 하강 자세로 내려가 무릎 꿇고 앉았다. 선생님이 나란히 앉아 있으라고 하는데 남편이 자꾸 호버링 자세를 취한다. 쌤이 여러 번 앉으라고 수신호를 하다가 결국 남편이 못하겠다고 해서 위로 올라왔다. 아래 내려가면 숨이 잘 안 쉬어지고 신경이 쓰인다고 한다. 어제 밤에 생겼던 공포가 계속 이어지고 숨이 자연스럽게 쉬어지지 않는다. 나는 어제보다 훨씬 안정되고 상태가 좋아졌다. 쌤이 이 상태는 스스로 극복할 수밖에 없다고 하시며 얕은 풀에서 호버링을 하며 자유유영 연습을 하라고 한다. 중성부력으로 맞추고 2바퀴째 돌고 있는데 쌤이 나오라고 한다. 남편이 포기하겠다고 해서 여기까지만 하기로 했다. 자신도 몰랐던 일종의 폐쇄공포와 같은 공황 장애가 나타나는 것이다. 쌤이 여기서 잘하고도 바다에서 포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



그림 3 디퍼 다이브 연습풀

숙소로 돌아와서 씻고 카운터에 계산하러 갔다. 바로 출발하여 나가야겠다고 계획을 했다. 그런데 2박3일 오픈워터 비용을 다 지불해야 한단다. 그래서 하루 더 쉬기로 하고 오후에는 알로나 비치에 가보기로 한다. 1년 안에 다시 와서 하면 된다지만 남편은 할 생각이 없단다.

들어와서 좀 쉬며 내일 알로나 비치에서 호핑 투어를 할까 생각하고 있다.

한숨 자고 책을 보다가 12시 50분에 짐을 챙겨 나간다. 식당에 아무도 없다. 선생님과 새로운 강습생이 들어온다. 학교 선생님인데 동생과 함께 왔다고 한다. 동생은 이미 어드밴스까지 해서 알로나 비치에 구경 가고 혼자 강습 중이다. 같이 밥을 먹으며 새로운 섬에 대한 정보를 얻었다. 샘이 투말록의 고래상어는 거의 가두어 기르는 수준이고 몸에 상처도 많다고 한다. 그래서 고래상어는 보러가지 않기로 한다. 오토바이 2대에 나눠 타고 알로나 비치에 간다. 거리가 별로 멀지 않은데도 트라이시클은 100이나 부른다. 대로에 내려 오른쪽 길로 접어들어 해변으로 간다. 작은 보라카이라고 해야 하나... 딱히 물에 들어갈 생각은 나지 않는다. 해변에는 바, 레스토랑, 마사지 숍들 이다. 잠시 구경하고 나와서 내일 묵을 숙소를 찾는다. 허름하고 창도 없는 토굴 같은 골방에 에어컨이 붙으면 1,400이다. 그나마 깔끔해 보이는 한인 숙소는 다 찾다. 대로 입구의 골목에 있는 주택도 토굴 같기는 마찬가지. 아예 대로변을 따라 걷다가 아담하고 깔끔한 주택 같은 숙소에 들어갔다. 팬만 쓰면 900, 에어컨을 쓰면 1,300이다. 창도 있고 좋다. 대신 화장실, 샤워실이 밖에 따로 있다. 2층의 주방도 쓸 수 있다. 내일 와서 2일 있기로 한다. 투어 예약을 하러 다시 바닷가로 가다가 너무 더워서 망고셰이크를 시키고 쉰다. 새콤하고 맛이 진하다. 땀이 엄청 난다. 약간 아래의 투어리스트 센터에서 1인 350에 단체 보트를 예약한다. 아침 6시에 출발하여 12시 넘으면 온다고 한다. 점심은 싸 가야하고 2개의 섬에 데려다 주면 놓고 온다. 나오는 길에 스위트 비슷한 과일 2개와 통닭을 산다. 오토바이 한 대를 50에 흥정하여 타고 4시에 숙소에 왔다.

수영장에는 여자 샘이 교육중이다. 수영복을 갈아입고 수업에 방해되지 않게 스노클링 연습을 한다. 남편이 수영용 수경을 갖다 주고 먼저 들어간다. 얇은 수영장에서 하다가 얇은 풀에서 수업을 하면 깊은 풀까지 헤엄쳐 갔다가 쉬고 돌아온다. 평영으로 가서 배영이나 자유형으로 돌아온다. 깊은 풀을 지날 때면 아무래도 약간 겁이 난다. 본능적으로 그렇게 된다. 그래도 실내수영장보다 깊이가 있어 훨씬 잘 뜨고 수영이 잘 된다. 이 정도면 중급 수영도 가능하겠다 싶다. 수업을 받던 샘이 물도 먹고 힘들어 하시더니 결국 5시쯤 수업을 멈추었다. 지켜보던 여동생이 자기도 배울 때 물밑에서 숨쉬기가 힘들어 몇 번 올라왔다고 한다. 다들

쉽게 배우지는 않나보다. 내일 다시 하기로 하고 들어가신다. 나도 몇 번 더 돌다가 들어왔다.

남편은 자고 있었다. 씻고 깨워서 닭고기를 먹었다. 스위트 비슷한 과일은 어찌나 단단하던지 돌 같다. 신맛도 별로 안 나고 약간 달큰한 무 같다. 야생성이 강하고 씨가 야물어서 가져가 심어볼까 한다. 남은 망고와 빵도 다 먹고 일기를 쓴다. 남편은 다 마치지 못한 것을 아쉬워 한다. 나름 이런 것이 어릴 때의 로망이었던 가보다. 큰 사고가 나지 않고 중단해서 다행이다. 가장 소중한 존재는 남편이고 나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우리에게 자격증 같은 것도 큰 의미가 없으니 재미있게 놀다 가면 된다. 자야겠다.

| 3 |

알로나 비치 Alona Beach

1월6일(수) - 디퍼 다이브 리조트, 알로나 비치

새벽 2시에 문득 잠이 깬다. 갑자기 지금 교육받는 쌤이 진도가 늦으니 같이 버디를 해서 자격을 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 남편도 같이 바다에 나가서 사진을 찍거나 스노클링을 하면 되겠다 싶다. 화장실에 앉아 다시 파디 책을 펴서 읽어 보고 연습문제도 풀어 보았다. 돈도 다 냈고 이번이 아니면 언제 또 바다에 들어가 보겠나 싶다. 어제 알로나 해변의 다이버숍을 보면서도 웬지 좀 외면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남편이 하루만 시간을 더 내어 준다면 별 문제가 없을 듯하다. 이런저런 생각에 잠이 안와서 만화를 보다가 뒤척이며 시간을 보낸다. 5시 반이 되었다. 호핑 투어를 하루만 늦추고 여기 숙소를 나가야 한다면 내일 아침은 오토바이 타고 오면 된다. 남편이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난다. 내 생각을 말했더니 좀 생각을 하다가 그렇게 하란다. 단 내 생각처럼 같이 바다에 나가서 스노클링을 할 수는 없을 거라고 한다.

알로나의 숙소에서 쉬겠다. 그러다가 잠시 생각하더니 안하면 안 되겠냐고 한다. 서로 다른 경험을 하게 되면 세계관도 달라지고 여러 가지가 달라질 수 있단다. 그래서 그냥 안하기로 했다.

8시가 넘으니 아침 먹으라고 불러서 내려간다. 샘이 어제 교육을 받으며 힘들어 한 부분을 말한다. 남편과 비슷한 점이 있다. 그래도 호흡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면 잘 하실 것이다. 9시부터 40분 정도 수영을 하며 지켜보니 호버링도 잘 하고 계시고 무난하게 할 듯하다. 10시 반에 짐을 챙겨 나와서 블루 라군 리조트에 잠시 들러 남편이 400을 맡기고 왔다. 알로나 비치 대로 변의 '시타델 알로나'에 왔다. 에어컨을 쓰기로 하고 1,300을 낸다. 2층 방은 주방, 샤워실과 가장 가깝다. 숙소에서 자다가 12시에 일어나 닭고기와 스위트를 먹었다. 책을 보다 닭을 샀던 식당에 가서 각종 반찬과 밥, 구운 옥수수, 닭, 코코넛 빙수를 시켰다. 푸짐하게 먹고 너무 더워서 다시 들어와 쉰다. 책 읽다가 잔다.



그림 4 시타델 알로나

4시 넘어 수영복과 래시 가드를 입고 간단하게 배낭에 짐을 챙겨 나간다. 전대는 맡겼다. 아직 햇살이 남아 있지만 한풀 꺾였다. 바다 오른쪽 끝 해변에 바위 곁에 짐을 두고 물에 들어간다. 바다는 따뜻하고 잔잔하다. 수경을 쓰고 남편과 배영, 자유형, 평영을 한다. 누워서 등등 떠다니기도 한다. 바닥은 수초와 모래뿐이다. 바위 곁에 둔 짐을 확인해가며 놀아야 한다.

바다는 편하게 누워서 떠다닐 수 있어 좋다. 그러나 짠물이 입에 들어와 힘들다. 해가 넘어갈 때까지 놀았다. 나와서 몸을 말리지 않고 짐을 들고 걷는다. 해산물을 내놓고 저녁 준비 중이다. 씻은 후 다시 나와서 먹을까 한다. 투어리스트 인포에서 반딧불 투어를 물으니 로복강으로 6시 반에 간다. 1인 700이다. 내일 저녁에 가보려고 한다. 샤워실이 깨끗하고 좋다. 교대로 씻고 저녁을 먹으러 나간다. 길가에서 남편을 기다리다가 주변을 살핀다. 작은 생선점, 야채점이 생겼다. 현지인들이 간단한 장을 보러 나온다. 한치와 싱싱한 생선들이 있다. 남편과 의논하여 그냥 요리해 먹기로 한다. 한치 500g, 라임, 양파, 토마토를 산다. 바로 옆의 닭튀김도 4개 샀다. 파파야 등 모두 산 것이 260 정도이다.



그림 5 숙소 앞 작은 시장

방에서 먼저 닭을 먹고 주방으로 간다. 생선 손질 중인 중국인 틈에서 재료를 썰고 한치와 함께 끓인다. 닭튀김 살 때 준 간장을 넣는다. 별 맛이 안 나다가 좀 더 끓이니 그러저럭 먹을 만한 오징어 국이 되었다. 국물도 시원한 편이다. 먹고 남은 것은 통에 넣어 둔다. 파파야는 달고 부드러웠다. 커피까지 타 와서 먹다가 다시 만화를 본다. 배부르다. 자다가 일어나서 일기를 쓰려고 한다. 남편이 자니까 창 밖에서 비치는 불빛에 일기를 쓴다. 목이 칼칼해서 커피를 한 모금 마시려다 옆질렀다. 누워있던 남편도 치우느라 일어나게 된다. 잠이 다 깨서 바나나를 먹고 내일 먹을 것을 사러 나간다. 밤 11시 40분의 거리는 낮과 다르다. 바 정도가 문을 열었고 해변은 조용한 편이다. 밤에는 파도가 잔잔하여 호수 같다. 슈퍼에는 살 것이 없다.

굳이 우리나라 라면을 사고 싶지는 않다. 결국 숙소 건너편에서 건조 식빵에 설탕 뿌려 놓은 것을 산다. 12시가 넘어 숙소 문은 잠겨 있었다. 아저씨가 열어 준다. 식빵과자는 먹을 만하다. 아침 5시 20분에 일어나 준비해야 한다. 이 숙소는 꽤 쾌적하다. 냉방이 필요하나 목이 칼칼하다.

1월7일(목) - 아일랜드 호핑 투어, 반딧불 보기(로복강)

어제 늦게 잤다. 아침 5시 20분에 일어나 화장실에 다녀오고 짐을 챙긴다. 수영복 위에 래시가드를 입고 어제 남은 음식들은 배낭에 넣었다. 아침의 거리는 아직 덥지 않다. 해변 앞 인포에는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 깜빡 잊고 영수증을 안 챙겨왔는데 다행히 아저씨에게는 다른 영수증이 있었다.

방카보트에 11명이 타고 먼 바다로 나간다. 많이 나가도 별로 깊지 않다. 구름이 많다. 아침 해가 벌써 떠 버렸다. 약간 먼 바다로 나가서 돌고래 세 마리 정도가 살짝살짝 뛰노는 것을 본다. 사파리 투어에서 사자 보려고 몰려드는 차들처럼 방카보트들이 우르르 몰려든다. 남편에게 오슬룩의 고래상어도 보러가지고 했다. 실상을 찍어서 애들에게 보여 줄 수도 있고 그린피스 같은 곳에 알릴 수도 있다. 몸에 상처가 있으면 그런 것도 다 찍어야겠다. 발리카삭 섬에 간다. 도착하여 식당에서 기다리다가 배낭을 두고 작은 방카보트를 타고 정해진 구역에 간다. 수경과 스노클링 도구만 가지고 물에 들어간다. 걸어 다닐 수 있는 깊이라 산호가 다 죽었을 텐데 뭐가 있을까 싶었다. 그런데 바로 옆에 수심이 깊은 바다가 있고 빅 월이 있다. 어찌된 사연인지 온갖 물고기들이 바글바글하다. 무지개 색 물고기, 나비고기, 완전 파랑이 미니고기, 니모, 국방색 옷을 갖춰 입은 애들, 방어 모양의 크고 통통한 애들이 떼를 지어 다닌다. 고기가 없는 곳을 찾기 힘들 정도로 많다. 눈이 호사다. 괜히 다이빙을 할 필요가 없는 곳이다. 정말 볼만 했다. 산호는 엘니도만 못하다. 깊은 곳의 수심은 무서울 정도이지만 벽 쪽은 꽤 멋지다. 8시에 섬에 도착하여 잠시 대기한 후 구경한 시간은 1시간 정도이다. 남편이 물 속을 카메라로 찍었다. 그런데 다이빙 후 오히려 물에 대한 공포가 생겼는지 원활하게 잘

돌아다니지 못한다. 많은 사람들 속에서 남편을 자주 찾기도 힘들고 같이 다니는 것이 편해서 먼저 앞장서게 하고 따라 다녔다.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나왔다. 수영을 배운 후로는 다니기도 편하고 어쨌든 дай버 교육을 받으며 스노클을 이용하고 물을 빼는 것, 숨쉬기는 확실히 익혀서 다니기 좋았다.



그림 6 발리카삭 스노클링



그림 7 산호가 살아 있는 발리카삭 섬

섬으로 돌아와 카메라부터 세척했다. 우리 물통이 사라지고 작은 물통이 있어서 그걸로 씻었다. 수중에서 찍히는 카메라라니 신기하다. 계속 뭔가를 시키라고 와서 망고셰이크를

주문했다. 다 먹기도 전에 섬을 떠나자고 한다.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지 않아서 영국 아줌마는 주문한 밥이 담긴 접시를 들고 타야만 했다. 밥이 400 씩이나 한다.

다음 섬은 버진 아일랜드. 모래톱이 둥글고 길게 이어진 곳이다. 사유지이고 원래 이름은 프란체스코 성인의 섬이다. 부자가 기부를 하여 관리를 하는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고 계속 치우고 단장을 한다. 바다에는 12사도와 예수, 그리고 배를 만들어 띄워 놓았다. 섬에서 돌아오는 길에 디퍼 다이브 배를 2대 보았다. 작은 배 하나가 또 디퍼 다이브 배인데 변색이 보인다. 수건을 두른 여성 둘은 샘들이지 싶다. 결국 수영장을 벗어나 바다까지 오신 거다. 보니까 좀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 바다가 잔잔하니 할 만할 것 같다.



그림 8 버진 아일랜드

해변에 내려 투어 오피스에서 저녁 반딧불 보기를 예약했다. 가져 온 돈이 모라자서 우선 500만 냐다. 오슬롭 고래상어 보기는 2,000 이나 한다. 배로 2시간 반 정도를 가야 한다고 하니 차라리 세부에서 차로 가는 것이 낫겠다. 3시간을 가도 차가 편하니까. 그리고 투말록 폭포에 다녀올 시간이 있어야 한다. 마땅히 먹을 것이 없어 신라면 2개와 달걀 4개, 망고를 사고 왔다. 씻고 옷들은 빨아 낸다. 라면을 끓여 배부르게 먹고 파파야도 먹는다. 내일 가게 도리 까미긴의 숙소를 아고다에서 예약해 두었다. 20달러씩이다. 오는 비행기는 수요일 아침 프로모션 가격으로 나온 세부퍼시픽을 예약하여 세부로 돌아올 예정이다. 5일이나 섬에 있어야 해서 정

할 일이 없으면 민다나오 섬에 잠깐 다녀올까 싶기도 하다. 12시 반에 들어와 일기를 쓰고
신다. 바깥에 빨래를 바삭 말리려고 이 집 마당을 왔다 갔다 했다. 5시 반에 삼거리 단골
맛집에 가서 닭다리구이, 옥수수구이, 닭똥집 꼬치와 밥을 사다가 저녁으로 먹었다. 남편이
어제보다 더 맛있단다. 굽는 걸 지켜보면서 땀을 많이 흘렸다.

6시 5분에 나가서 인포에 남은 돈을 지불했다. 의자에 앉은 러시아 남녀와 우리 넷뿐인가
했더니만 필리핀 사람들이 더 타서 9명이 되었다. 차는 냉방이 시원하고 쾌적하다. 우리가 가지
않은 섬의 반대편 길을 따라 가다가 다리를 건넜다. 로복강 입구에 내려 대기실에서 먼저 간
팀이 나오기를 기다렸다. 크루즈용으로 보이는 원형의 식당 칸 같은 형태의 배를 탄다. 검은
강 하늘에는 별들이 빨강머리 앤 얼굴의 작은 주근깨들이 저랬을까 싶게 촘촘하다. 불빛만
없어도 하늘은 놀랍다. 반딧불들이 어디에 있나 싶었는데 정말 놀라운 광경이 펼쳐진다. 특정
맹글로브 나무 위에 트리에 켜 놓은 전구들처럼 점멸하는 수많은 아이들이라니... 깜짝 놀랄
만큼 멋진 모습이다. 게다가 나무 가까이에 아예 배를 대주어서 손 위에나 옷에도 앉는다.
수컷이 나무 위에서 불빛을 깜빡여 신호를 보낼 때 아래에서 이와 똑같이 카피하여 호응하는
암컷과 교미를 하고 암컷에게 먹힌단다. 일 년 내내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다고. 그런데 비가
오거나 달이 밝거나 바람이 세면 앞 뒤에 숨는다고 한다. 오늘은 운이 좋게도 그믐이다. 강을
따라 안으로 들어가 마지막으로 본 나무는 완벽한 모습이였다. 멀리 둥글고 큰 모양에 멋지게
불을 밝히는 반딧불들을 달고 있었다. 일제히 켜고 끄는 것처럼 느껴진다. 완전히 나뭇가지에
걸어 놓은 전등의 점멸과 같다. 신의 선물이라 해야 할까 신이 보낸 천사들이라고 해야 할까..
뭔가 세상만물을 창조한 존재가 보내는 신호 같다. 천상의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운이 좋으면
반딧불 몇 마리 보려나 했었는데 완전 반전이다. 오늘 낮에 본 물고기들도 물고기 반, 사람 반
신기했었지만 밤의 이 풍경은 많은 여행들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이고 멋진 것이 될 거다.
남편과 내내 감탄하면서 구경하다가 돌아온다. 정말 멋진 날이다.

알로나에 와서 잭 피쉬라는 병어 모양의 물고기 튀김과 돼지고기 구이, 밥, 맥주를 주문했다.
낮에 본 물고기들 때문에 좀 저어되기는 했다. 너무 싱싱한 놈이 모양 그대로 튀겨져 나온다.
모두 아주 맛이 좋은 레스토랑이었다. 숙소에 와서 일기 쓰고 잘 준비를 한다. 아침 7시에 나갈

예정이다. 하루에 두 번이나 인상적이고 잊혀 지지 않을 경험을 해서 두고두고 오늘 7일이 생각날 것이다.

| 4 |

카미긴 Camiguin

카미긴으로 이동하며 by anakii

팡글라오Panglao섬 아로나Alona 비치에서 6시30분에 버스를 탔다. 마침 아이들 등교시간과 맞물려 차 안이 북닥거린다. 어느 초등학교 앞에 한 아이가 내렸다. 잔디가 널찍하게 펼쳐져 있고 일자 단층건물인 교사까지 교문에서 잔디를 가로지르는 예쁜 길이 놓였다. 꽃단장도 많고 아담하여 와~ 예쁘단 느낌이 확 드는 학교다. 팡글라오섬을 지나치는 동안 초등학교 세 군데 모두 비슷한 구조다. 중등학교 하나는 흔히 보는 학교 형태였지만.

아담한 잔디운동장에서 뛰놀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나라 초등학교 운동장을 생각했다. 축구장이 운동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다른 놀이 공간은 적은 우리나라 학교. 정식 축구 경기가 체육의 주 활동도 아닌데. 이토록 아담하고 예쁜 잔디운동장에서 옹기종기 체육활동을 해도 참 좋을 것 같다.

버스는 팡글라오와 보홀을 잇는 다리를 지나 조금 더 가서 딱빌라란-팡글라오Takbilalan-Panglao 버스터미널에 섰다. (터미널이라지만 버스 한 두 대 설만한 작은 공터다.) 여기엔 트라이시클기사가 대기하고 있었다.

"다오 터미널Dao terminal 40 오케이?"

지도상 거리가 좀 되고 우린 두 명이라 40을 불렀는데 알고 보니 꽤 가깝다. 30불러도 되었을 것 같은데.

8시의 다오 터미널. 들어서니 뺨 기사들이 우르르 물어본다.

"버스로 하그나 Jagna 갈 거예요"

손짓으로 버스를 가리킨다. 장거리를 다니는 예쁜 노란색 버스. 에어컨 버스도 있다. 버스 직원들 모여 있는데서 몇 분마다 있는지 얼마나 걸리는지 물었더니 20분마다, 1시간 반 쯤 걸린단다. 하그나 항에서 까미긴 가는 배가 1시에 있으니 시간이 넉넉하다. 직원대기소에 보니 짐을 놓는 공간이 좀 있어서 경아가 물었다.

"어디 짐 맡길 데 없나요?" "여기 두세요." 옮겨니.

짐 맡기고 훌카분하게 시장구경 다녔다.

터미널 바로 앞은 대형 재래식중앙시장과 현대식인 아일랜드몰이 함께 있다.

중앙시장의 아침 시장이 열렸다. 고구마, 감자, 생강 등등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채소 대부분 다 있고 바나나, 망고 등등의 열대과일, 각종 예쁜 열대어 어포들이 다양하다. 한치 깔끔하게 말린 것 있기에 물어 보니 킬로당 550페소. 저렴하고 맛있다. 중앙시장 안은 크게 생선과 채소가게다.



그림 9 딱빌라란 중앙시장. 스팅레이

갯 들어온 게, 새우, 삼치, 고등어 등 익숙한 생선들과 참치,스�팅레이등 귀한 생선들 (하지만 저렴! 킬로당 120~200페소) 스노클링에서 본 예쁜 열대어들이 눈이 초롱~하니

싱싱하게 올려 있다. 거의 다 훑감들. 생선 좋아하는 사람들 환장하겠네.

어포 가게에서 쥐알포 250g정도(160p), 한치 200g(120p) 사고 아일랜드몰 슈퍼에서 먹을 것 약간을 산 뒤 1층 은행서 우리가 예전에 가지고 있던 구권 430페소를 신권으로 바꿨다. 구권은 2016년 1월부터 사용불가능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바꿔야 하기 때문이다.

터미널에 가서 짐 찾고 마침 하그나로 떠나는 버스가 있어서 냉큼 탔더니, 아뿔싸. 에어컨버스가 아니네. 에어컨버스는 wifi도 된다는데. 에어컨버스는 90페소 가량, 이 버스는 62페소다. 한 시간 반 거리라 굳이 바꿔달 필요 없다고 생각하여 그냥 타고 간다.

버스는 보홀 섬 남부해안도로를 따라 군데군데 다 정차하며 가는 완행. 구경하고 다니기엔 좋은 버스다.

11시 30분 하그나 중앙시장에 도착했다. 무척 붐비는 시장이고 시장 뒤에 하그나 항이다. 항구 앞에는 하그나 특산품인 깔라마리를 파는 노점이 죽 늘어서 있다. 까미긴 가는 슈퍼셔틀페리는 월수금 1시출발 ,5시 도착이고 425페소다. 작년 4월에 운항을 재개했고 운항스케줄이 일정치 않아 꼭 미리 확인해 봐야 하는 노선이다.

"12시 30분까지 오세요."



그림 10 하그나항 밥집 DQ Lodge

표 구하고, 항구 앞 북적거리는 식당(DQ lodge)에서 참치국,갈비국,소양볶음,닭간볶음

주문해 점심을 먹으니 좀 한 숨 놓인다. 점점 한 끼 음식 값이 저렴해지고도 맛있다. 맨날 굽거나 튀긴 것만 먹다가 제대로 된 필리핀식을 먹으니 이제 좀 식사다운 식사를 했다 싶다.

항구 입장료는 2페소, 항만세는 15페소였다. 셔틀페리 1층은 에어컨 객실, 2층은 갑판석이라 바람 시원하게 맞도록 되어 있다. 1층 에어컨 객실에서 늘어지게 잤다. 배의 흔들림이 무척 편안하다.

1월8일(금) - 알로나 비치 - 딱빌라란 - 하그나 - 카미긴

아침 5시 40분에 일어나 화장실에 다녀온 후 짐을 싣는다. 편안하고 좋은 숙소였다. 주인아저씨에게 인사를 하고 6시 반에 숙소 건너편에서 지프니를 기다린다. 6시 40분에 작은 버스가 숙소 쪽에서 서면서 타라고 한다. 좀 더 가다가 회차하여 달린다. 어제 밤에 갔던 길을 따라 달린다. 버스에는 초등학교생부터 중학생, 출근하는 사람들로 꽉 찬다. 우리 큰 배낭은 3인석 아래 밀어 넣었다. 한참 복잡한 시간에 타서 좀 미안하다. 그래도 필리핀 여행의 묘미는 지프니이다. 머리를 감고 미처 못 말린 채 학교 가는 풋풋한 여학생들의 모습, 귀여운 어린이들, 낡아서 들고 다니기 힘들 것 같은 가방을 매고도 편안해 보인다. 아침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필리핀이라는 나라의 이미지가 있다. 이미지는 일종의 선입견이고 실제 여기의 사람들이 사는 모습은 다르다. 그냥 사람들이 산다. 어느 나라를 가든 가난한 나라, 부자 나라로 구분을 짓지만 실제로는 허상의 이미지이기도 하다. 그냥 계급이 있을 뿐이다. 국가라는 개념을 강조하여 이득을 보는 사람들은 늘 기득권층이었다. 차장아저씨는 아이들을 꼼꼼하게 자리 배치 해주면 앓힌다. 정리를 잘 하시는 성격인 듯하다. 워낙 천천히 달리니까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자세히 볼 수 있다. 섬은 평지이고 평범한 풍경들이 지나간다. 다리를 건너 1시간 만에 시내에 온다. 매연이 심하다.

내려서 트라이시클을 타고 터미널에 온다. 8시 정도 되었다. 하그나 가는 버스는 20분 간격으로 있고 1시간 반이 걸린다고 한다. 직원에게 큰 배낭을 맡긴다. 재래시장 앞에는 노점이 열렸다. 싱싱한 과일, 야채, 어포 등이 건물 안보다 좀 싸다. 시장 안에는 너무나 싱싱하여 꼬리가 뺏뺏한 온갖 물고기들이 들어와 있다. 참치, 스텡 레이, 대왕오징어 까지 다양하고

가격도 저렴하다. 떠나야 하는 처지이니 감탄만 해야 했다. 잡으면서 바로 얼음에 넣어 오니까 모두 핏감들이다. 남편은 참치, 나는 대왕오징어 토막이 좀 아쉽다. 쥐포와 비슷한 어포를 약간 샀다. 좀 짜다.

아일랜드 시티의 슈퍼에 가서 과자, 술 등을 사고 빵집에서 고기빵, 참치 페스트리, 옥수수 빵을 샀다. 은행에 들어가 구화폐 430을 신화폐로 바꿨다. 만 원 이상의 돈이 생겼다.

ATM에서 10,000을 뽑는데 수수료가 200이나 한다. 25만원에 5,000원은 좀 심하다. 인출 한도가 10,000이다. 노점 시장에서 과일, 한치 200g을 산다. 한치는 1kg에 500 이다.

짐을 찾아 버스의 맨 뒷자리에 앉는다. 9시 40분 출발이다. 사람이 적은 한가한 시간이다. 빵과 과일을 먹고 풍경 구경을 하며 즐다 보니 1시간 반 만에 하그나에 왔다. 시장통을 지나 터미널 앞에서 배표를 사고 건너편 밥집에 간다. 20 여종의 반찬과 국이 있다. 참치국, 갈비국, 천엽조림, 닭간 조림과 밥을 먹는다. 오랜만에 구이를 벗어났다. 간도 적당하고 맛이 좋아서 잘 먹는다. 남편이 매운 고추를 가져와 넣으니 금방 아주 매운 맛이 되었다. 미린다까지 먹어도 172가 나온다. 깔리마이라는 특산물을 사고 터미널에서 잠깐 기다리다가 배를 타러 간다. 배는 볼음도 가는 배와 똑같다. 에어컨이 틀어진 실내에 들어와 일기를 쓴다. 항상 에어컨과 함께 있으니 감기가 떨어지지 않고 계속 기침이다. 다시 콧물도 난다. 만화를 보다 잔다.



그림 11 카미긴 섬

4시간 걸려 카미귄에 왔다. 결코 작은 섬이 아니다. 높은 산 위에 구름이 걸려 있다. 타라고

잡는 사람들을 뒤로 하고 걷는다. 숙소가 5분 거리면 있다고 했다. 그런데 앞쪽에는 뭐가 있을 것 같지 않다.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지프니형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사람들이 어디 가냐고 한다. 숙소 이름을 듣더니 알려주겠다고 타란다. 우리까지 11명이 탔다. 짐과 더불어 타니 어찌 해볼 수 없이 꼭 끼어 간다.

하염없이 달려 시내에 도착하더니 다 내린다. 청년이 갈아타야 한다며 또 다른 지프니 오토바이를 탄다. 역시 꼭 끼어 간다. 한참을 달려 가다 남자가 내리면서 기사에게 얘기했으니 잘 가라고 한다. 고마운 애다. 더 달려서 파부알란 코티지라고 내리라고 한다. 작은 마을의 가정집이다. 할머니가 들어가라고 하며 방을 보여 준다. 3인용과 2인용 침대가 있는 큰 가족실이다. 우리는 아고다에서 가장 싸고 작은 방을 골랐는데 이 방이 맞나 싶다. 손님은 우리 밖에 없는 듯하다. 할머니는 영어도 못하신다.

벽 두면에 창이 있고 문 밖에 테라스 공간과 대문도 가정집과 별개이다. 완전히 독채로 작은 코티지를 만들었다. 씻고 나서 손자인 남자애에게 우리가 2일치 방값을 지불했는데 3일 더 있고 싶다고 하니 매니저를 데리러 간다. 이 남자가 얼마에 예약했냐고 한다. 하루 20달러였다고 하니 1,000씩을 내란다. 20달러면 900이라고 하니 그럼 800에 있으란다. 아예 2,400을 다 지불하고 영수증을 받았다. 자기 오토바이를 하루 400에 쓰라고 한다. 내일 쓰겠다고 했다. 바닥이 깨끗해서 신발은 밖에 두고 맨발로 다닌다. 에어컨도 나오고 독채로 집이 생긴 셈이다. 나는 에어컨을 피해 3인용 침대에서 남편은 2인용을 쓰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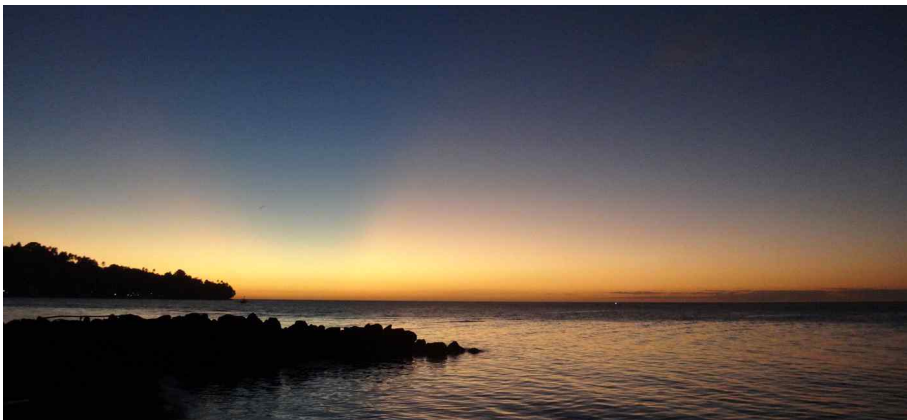


그림 12 움빙의 석양

바닷가에 가서 석양이 지는 멋진 하늘을 보고 동네 구경을 한다. 참 작은 마을이다. 길은 어둡고 조용한 주택가이다. ‘움빙’이라는 특이한 이름의 동네다. 홈스테이 하는 집도 몇 집 없고 바닷가에 큰 리조트 같은 것이 하나 있을 뿐이다. 매니저가 알려주어 대로변의 식당에 간다. Checkpoint 라는 플라자의 Rocky's ResTo식당에서 종합해산물 시즐러, 레촌과 밥을 시켰다. 해산물은 조개, 오징어, 생선, 새우와 야채를 푸짐하게 넣어 족히 2인분은 될 분량이다. 커리 스타일이고 맛이 좋다. 레촌은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운 새끼돼지 바비큐이다. 담담한 맛의 과자 같다. 특이하고 맛있다. 잘 먹고 후식으로 할로 할로를 시킨다. 각종 과일과 아이스크림, 젤리 등이 들어 푸짐하고 맛있다. 80이다. 저녁으로 700가량 먹었다. 레촌은 싸가지고 왔다. 숙소에 와서 슈퍼에서 산 옥수수를 삶아두고 쉰다.

1월9일(토) - 올드 볼케이노, 십자가의 길 - 올드 처치 루인 - 바다 묘지 - 투아산 폭포 - 산토 니노 콜드 스프링

아침에 먼저 일어났다. 남편은 깨워도 못 일어난다. 어제 산 사우어 푸르트와 하얀 자몽을 까서 통에 담는다. 어제 밤에 에어컨 때문에 기침과 콧물 뿐 아니라 오른쪽 편두통까지 생겼다. 남편은 숙소 아줌마와 섬 투어 일정을 의논하고 들어 와 각 지역의 위치를 파악하기에 바쁘다. 밖에는 아침부터 엄청난 폭우가 쏟아진다.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퍼붓는다. 두통 때문에 일정을 파악하는 동안 한숨 잔다.

10시 반에 숙소를 나와 섬의 서쪽으로 달린다. 오토바이를 타니 시원하다. 혹시 비가 또 올지도 몰라서 배낭 안의 물건들을 잘 싸서 넣었다. ‘올드 볼케이노’와 ‘십자가의 길’이라고 표지판에 되어 있기에 화산 분화구를 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며 산을 오른다. 굵이굵이 십자가의 길의 과정을 만들어 놓았으나 상이 너무 조약하다. 날이 덥고 습한데 길을 오르자니 힘도 들고 지친다. 열대지방에서 등산은 좀 아니다. 편두통에 콧물은 줄줄 흐르고 다리는 무거운데 덥고 습하니 정신이 몽롱하다. 화산의 더운 기운이 콧물과 감기를 싹 날려주기를 기도하며 걷는다. 길 주변은 도깨비 뿔 모양의 가시가 나무 몸통에 덮여 있다. 예수의 고난을

상징하는 가시가 아닐까 싶다. 거의 다 도착하여 언제 분화구가 나오나 했더니만 십자가의 길 마지막 장면이 있는 곳이 길의 끝이다. 정말 실망이다. 우리 뒤에 온 외국인들도 어이없이 하며 돌아간다. 완전 속은 기분이다. 이곳이 전망이 좋다는데 감상할 기운도 없다. 내려오는 길 중간에 산으로 오르는 샛길이 보였으나 표지판도 없고 안전하지 않아서 포기한다. 제주도에도 분화구는 많다. 고생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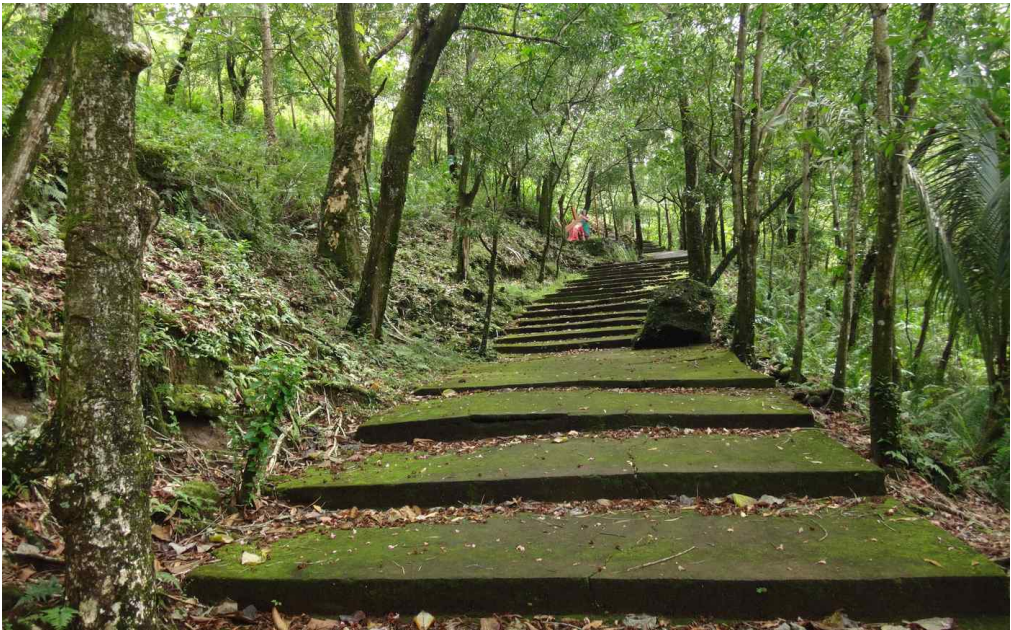


그림 13 올드 볼케이노 오르는 길

다시 달리니 좀 살 것 같다. 화산 분출로 폐허가 된 성당 터에 간다. 다행히 산을 오르며 땀을 흘린 탓인지 두통은 나아졌다. 에어컨 때문에 냉방병이 되었던가 보다. 수중 묘지가 있는 곳은 바다로 접근할 수는 없고 묘지 입구의 표시인 대형 십자가가 멀리 보이는 곳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다. 100여 년 전에 있었던 화산 분출로 묘지가 물속에 잠긴 곳이다.

순환도로를 달려 투아산 폭포에 간다. 산 쪽으로 접어들면 공기도 좋고 시원하다. 도로를 뚫다가 우연히 발견한 폭포라고 한다. 바깥 길에서 보기에는 도저히 있을 것 같지 않은 장소에 있었다. 폭포는 아름답고 물이 무척 차다. 수영복을 입고 들어가 사진도 찍고 물에 앉아 보았으나 차서 오래 있을 수 없었다.

다시 콜드 스프링을 향해 간다. 표지를 못 보고 지나쳐서 시장이 있는 마을까지 갔다.

점심시간이 되어서 이 마을에서 점심을 먹기로 한다. 시장도 있긴만 식당을 찾을 수 없다. 빵 가게들 뿐이다. 무언가를 튀기고 있는 가게를 발견하여 갔더니 바나나를 얇은 전병에 싸서 튀긴 후 설탕을 발라 끈끈하게 만든 꼬치다. 맛이 좋다. 2개를 먹고 3개를 썼다. 겨우 20 이다.



그림 14 산토니노 콜드 스프링

이걸 도시락으로 챙기고 산토 니노 콜드 스프링에 간다. 1인 30이다. 대충 만들어 놓은 곳이라니 상상했더니만 계곡물을 가두어 만든 초대형 풀장이다. 물이 넘치면서 계속 흐르고 작은 물고기들도 많다. 우선 마나나 꼬치를 다 먹었다. 곶이 약간 뽀기 맛이라 먹을 만하다. 들어가려니까 물이 엄청 차갑다. 그래도 일단 들어가면 견딜 만하고 추워서 나왔다 다시 들어가면 안 된다. 남편은 튜브를 빌렸다. 겨우 10 이다. 수심이 깊은 곳은 2미터가 넘는다. 한번 들어가서 2시간 넘게 수영하며 놀았다. 물안경을 가져가서 수영하기에 좋았다. 남편은 입술이 완전 파래졌다. 시간도 5시 정도가 되었고 춥다면서 더 이상 물에 못 들어가겠다고 한다. 물이 무척 깨끗하고 몸이 개운했다. 깊어서 수영도 잘 된다. 아침에는 골골했었는데 물에서는 힘이 넘친다.

바나나 튀김을 샀던 마을에 와서 기름을 넣고 왔던 길로 되돌아간다. 약간씩 비도 내리서 맞으며 집에 왔다. 옷 갈아입고 시내구경 하러 나간다. 시장에서 과일을 사고 나와 꼬치 집에서

각종 고기꼬치를 먹었다. 맛이 좀 짜고 먹기가 쉽지 않아 금방 고기에 질린다. 저녁 먹을 곳도 마땅치 않아 결국 비를 좀 맞으며 돌아온다. check point의 록키즈 레스토랑에서 어제 시킨 해산물 믹스 커리와 밥 하나, 레드 호스 맥주 1리터를 시킨다. 폭우가 마구 쏟아져 발을 내려 준다. 이 식당이 맛있고 가장 편안하다. 숙소 주변에 있어 참 다행이다. 배가 불러서 할로 할로는 못 먹었다. 숙소에 와서 일기를 쓴다. 또 엄청난 폭우가 쏟아진다. 섬이 다 떠내려 갈 것 같다. 대형 샤워기로 퍼부으며 왔다 갔다 하는 듯하다. 자야겠다.

1월10일(일) - 화이트 아일랜드 - 아르덴 핫 스프링 - 코스 답사

아침 5시 반에 일어나 밖에서 주인아줌마 소리가 나서 나간다. 화이트 아일랜드는 오늘 몇 시에 갈 수 있느냐고 물으니 5시 반부터 가능하단다. 50분까지 수영복 입고 준비하여 나간다. 배 값은 400이다. 고맙게도 뜨거운 물을 담아 포트를 준비해 주었다. 컵은 하나 빌렸다. 할아버지와 함께 바다로 간다. 바닷가에는 벌써 보트 값을 지불하고 나가기 시작한다. 할아버지가 파부알란 코티지 배를 끌어내어 띄우라고 지시를 하자 여러 명이 번쩍 들어 바다에 넣는다. 사공은 따로 있다. 독채로 전용 보트를 타고 바다로 나간다. 배가 작아서 반드시 구명조끼를 입고 타야하고 파도에 심하게 흔들린다. 파도가 거칠다.



그림 15 화이트 아일랜드의 새벽

하얗게 산호가루가 퇴적되어 만들어진 화이트 아일랜드는 조류의 흐름에 따라 모양이 계속 달라진다. 지금은 T자 형태로 펼쳐져 있다. 끝까지 걸어가 보았다. 별로 특별할 것은 없다. 바람이 심하고 비까지 내린다. 햇볕이 없어서 좋지만 춥다. 150에 파라솔을 빌린다. 바람과 비를 등지고 쳐 준다. 안에 들어가 있으면 포근하다. 아줌마가 챙겨 준 포트의 물을 따라서 커피를 타 서 마신다. 세상에서 가장 신기한 장소에서 마시는 커피이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새벽에 의지할 것 없는 모래로만 만들어진 섬에서 뜨거운 커피를 마실 수 있다니... 바나나와 함께 먹고 마신다. 따뜻해서 추위가 가신다. 구름도 짙고 계속 비바람이 친다. 해도 없는데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 물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고 판단한다. 스노클링 도구를 챙겨 바다로 들어간다. 수심이 얇아 한참 나가야 한다. 게다가 바위가 별로 없어서 볼 것이 적다. 다행히 바위 주변에는 말미잘과 약간의 산호, 작고 귀여운 물고기들이 보인다. 남편은 솔베감팽도 2번이나 보았다고 한다. 나는 기껏해야 성게 정도를 보았다. 바위를 찾아다니다가 나왔다. 커피를 더 마시고 약속시간을 확인한 후 다시 들어간다. 같은 바위도 자세히 보니 모래 바닥에 보호색을 띤 물고기들이 더 보인다. 보트아저씨가 기다릴까봐 나와서 짐을 챙긴다. 비는 계속 온다. 언제 이런 비를 이런 장소에서 또 맞아 보겠나 싶다. 그래서 오히려 더 신이 나고 신기했다. 외국인은 없고 현지인으로 바글바글하다. 배도 끝없이 들어온다. 론리에는 이 섬은 이른 아침을 빼고는 햇볕이 강해 죽을 지경이라고 썼다. 장비를 챙겨 나와 우리 코티지 배를 발견한다. 짐을 싣고 기다린다. 아저씨는 우릴 찾으려고 다니시거나 비를 피해 있을 것이다. 5분 쯤 후 배에 오셔서 함께 물으로 나와 숙소로 온다. 8시 40분이다. 섬에서 2시간 정도 놀았다. 아줌마의 뜨거운 물이 감동이었다. 이 섬에서 가장 소중한 아이템이었다.

샤워하고 수영복을 입은 채 록키즈 바에 아침 먹으러 간다. 10시까지라서 늦으면 안 된다. 소시지, 튀긴 베이컨, 참치국, 밥과 장조림, 달걀 프라이, 커피와 빵이 있다. 고기류가 별로 안 짜고 고급스럽다. 괜찮은 호텔의 아침식사 같다. 불로 따끈하게 계속 덥혀서 따뜻하게 먹을 수 있다. 맛도 괜찮고 편하다. 천천히 맛있게 먹었다. 우리가 마지막 아침 손님이다.

집에 와서 수경을 챙기고 아르덴 온천으로 간다. 순환도로에서 산길로 접어들면 바나나, 코코넛, 야자나무가 울창하다. 구름과 안개가 끼어 신비롭다. 산으로 오를수록 날은 더 뿌옇게

변한다.

10시 좀 넘어서 도착한다. 1인 30의 입장료를 낸다. 콜드 스프링만큼 크지 않지만 제법 수영할 만하다. 아담한 크기로 체온을 유지할 만큼의 따뜻한 물이 계속 흐른다. 위로 가면 더 따뜻하고 얇은 장소가 있다. 수영하기 위해 수경을 쓰지만 물속이 뿌영고 볼 것은 없다. 바닥이 시멘트이다. 나무에서 잎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고운 망을 공중에 쳤지만 조그만 잎들이 떨어져 있다. 매주 수요일에는 물을 간다고 한다. 비가 계속 내리고 있어서 오늘 다른 일정은 할 수 없을 것 같다. 물에 누워서 비 내리는 하늘을 쳐다보거나 물 위에 떨어지는 빗물을 보아도 좋다. 작은 싹이 트는 것 같다. 가만히 나뭇잎들이 펼쳐진 하늘을 보며 떠다니고 남편의 수영 연습을 봐 준다. 평영 실력이 점점 나아지고 있다. 나중에는 애들이 공놀이 연습을 해서 수영할 공간이 적어졌다.



그림 16 아르덴 핫 스프링

2시간 넘게 물에 있어서 손이 쪼글쪼글해진다. 계속 비가 내리고 나가면 추우니 가기가 싫다. 그래도 오래 놀아서 비를 맞더라도 가기로 한다. 옷이 젖은 채로 달리니 춥다. 산 아래에는 비가 거의 안 온다. 1시 10분에 숙소에 와서 씻고 쉰다.

2시 반에 앞으로의 일정을 확인하러 사전답사를 간다. 오토바이를 타고 시내 방향으로 간다.

달리다가 남편이 졸립다고 해서 쉬다 가기도 하고 작은 빵집에 들러 간단한 빵과 마운틴 듀를 마셨다. 남편은 속이 들지 않은 이 빵이 옛날 빵맛이라고 한다. 사람들이 간식으로 많이 사간다. 내일 아침에 갈 맨티그섬에 가기 위해 배가 출발하는 마을에 갔다. 45분 정도 걸려서 왔다. 아침 일찍부터 배가 뜬다고 하고 섬에 4시간 정도 머물 수 있단다. 달려서 민다나오로 가는 배가 떠나는 항구를 지나 석호에 왔다. 물은 별로 깨끗하지 않았고 짙라인을 탈 수 있다고 한다. 오토바이로 돌레를 한 바퀴 돌았다. 다시 달려서 자이언트 클램으로 가려고 하는데 지나쳐서 어떤 마을에 왔다. 마침 해가 나와서 맑고 깨끗해졌다. 차분한 마을이다. 바닷가 독방에 오토바이를 세우고 바다구경을 한다. 아이들이 장난치며 바다에 뛰어든다. 남편이 참 평화롭다고 한다. 산에 구름이 걸려있고 곧 넘어갈 해가 마지막 햇살을 비춘다. 고즈넉한 풍경에 마음이 따뜻해진다. 이 마을을 보려고 지나쳐 왔는가 싶다. 다시 돌아간다.



그림 17 권실리반 항구에서

표지판은 반대쪽에서만 보였다. 아래 길로 내려가서 작고 아기자기하게 꾸민 예쁜 마을을 지나 계속 달린다. 언덕을 넘어 내려가면 입구가 있다. 우리 장비를 쓰면 비용의 50%를 추가로 낸다. 바다에는 대왕조개를 보러 들어간다고 한다. 4,000개 이상이 사는 보호구역이다. 나는 자이언트 클램이 조개 모양의 바다인줄 알았다. 바다 속을 구경하는데 45분 정도 걸린다고

한다. 내일 오후에 오기로 했다. 날이 저물고 있어 되돌아간다. 항구에서 특산물이라고 하는 빵을 사고 시내에 온다. 해가 저서 좀 쌀쌀했다. 중국음식을 하는 뷔페에서 저녁을 먹는다. 족발은 짜고 닭튀김도 별로였으나 생선 튀김과 찜이 맛있는 편이다. 수박을 많이 먹었다. 시장에서 붉은 자몽과 바나나를 사고 6시 40분에 돌아왔다. 긴 하루이다. 목이 말라서 붉은 자몽을 까먹었다. 번거롭고 비싸다. 밖에 나가 레드 호스 맥주와 물을 사왔다. 가게에서 맥주를 마셔야 하지만 페트병에 담아 왔다. 남편은 시원한 방에서 마시니 좋고 나는 일기를 칠 수 있다. 저녁때까지 비가 오락가락했다. 남편은 피곤한지 잔다. 내일은 일찍 나가야 하니 빨리 자자.

1월11일(월) - 맨티그 섬 - 자이언트 클램 - 카티바와산 폭포

아침 6시에 일어났다. 장비를 챙겨 7시 경에 나간다. 내리 달려서 7시 40분에 맨티그 섬으로 가는 마을에 도착한다. 우리가 첫 번째 손님이다. 해가 짙다. 배로 20분을 달려 8시에 도착했다. 오두막 같은 세트가 150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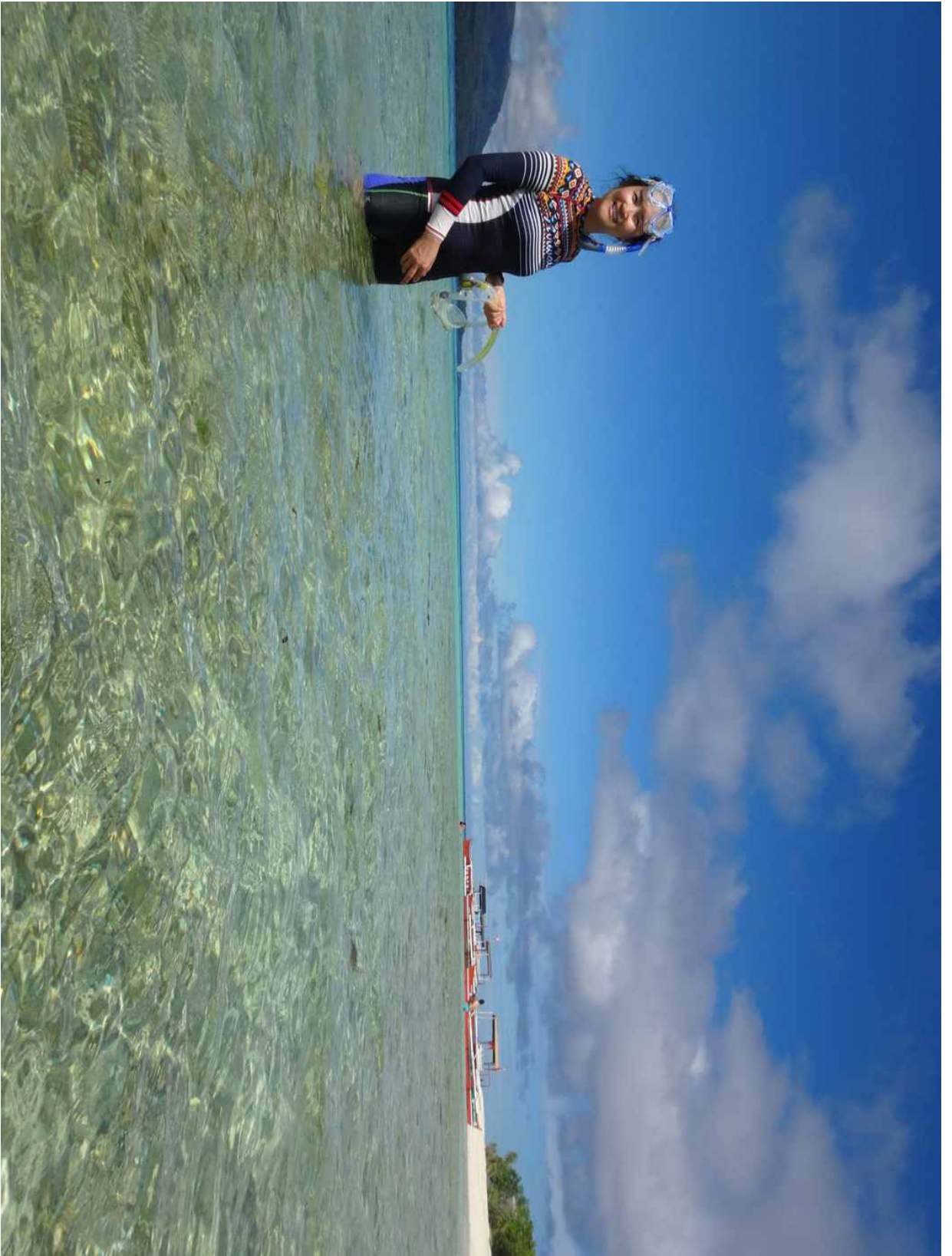


그림 19 맨티그 섬



그림 20 맨티그 섬

짐을 놓고 보호구역 안에 들어간다. 남편의 스노클 흡입구에 모래가 끼어 숨을 쉴 때 물이 들어온다. 바다에서는 내가 쓰고 나왔는데 숨 쉴 때 잔물이 들어와서 힘들었다. 세드에서 나무를 가늘게 찢어서 남편이 흡입구 사이에 넣어 모래를 뺐다. 완전히 제거가 되지 않은 것이 있어 두 번째도 다시 모래가 끼었다. 깊은 곳까지 들어가 봤는데 그때 물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숨을 살살 깊게 쉬며 겨우 나올 수 있었다. 깊은 곳도 얇은 곳과 크게 다르지 않다. 흡입구에 문제가 있을 때 깊은 물에서는 잘못하면 굉장히 위험해지겠다. 세드에서 모래를 완전히 빼고 나서 제대로 작동한다. 물에서도 원활하게 숨을 쉴 수 있었다. 세 번째 들어갔을 때 니모 세 마리 중 호기심이 많은 큰 녀석이 손을 내밀면 위로 올라와서 꼬리며 지느러미를 만질 수 있었다. 엄청 귀엽다. 물속은 몇 종류의 산호가 자라고 있다. 발 디딜 때 조심해야 한다. 핀에

산호가 망가질 수 있다. 물고기들은 작은 편이다. 그래도 꽤 볼만했다. 마지막 들어갈 때 카메라를 가지고 가서 산호들과 니모 등을 찍었다. 어제 항구에서 샀던 파스텔이라는 특산물 빵과 바나나, 간식 등을 먹는다. 햇볕이 밝고 구름이 없어 그림 같은 풍경이 펼쳐진다. 까미귤 섬의 산 정상에 다 보인다. 섬의 주변은 쉬기도 좋고 깨끗하다. 제한시간이 4시간이라 안쪽으로 들어가 본다. 대나무로 다리처럼 이어지는 에코 트레일을 만들어 놓았다. 숲을 관찰하기에 좋다. 11시 50분에 출발하여 12시 10분에 섬을 나온다. 발만 대충 씻고 바지를 입는다.

달려서 부두에서 점심을 먹는다. 둘이 총 90이 나온다.

1시에 자이언트 클램에 온다. 짐을 맡아주는 곳이 따로 있다. 이곳은 일종의 사유지인데 자기 장비를 가져가면 빌리는 비용의 50%를 낸다. 우선 양식장에 가면 아기 조개부터 13년 된 조개까지 종류와 자라는 특징에 대해 설명을 듣는다. 20세가 되면 성장을 마치지만 오래 사는 녀석은 100살도 산다고 한다. 제일 커지면 1미터가 된다. 성장하는 동안 초기 10여년간 남녀의 성을 교대로 가진다. 6종류의 대왕조개가 있었다. 작은 종류부터 동그란 롤링 클램까지 모양이 조금씩 다르다. 입구 주변의 색이 초록에서 보라까지 저마다 다르다. 입과 향문으로 되어있다.



그림 21

바다에 가이드와 함께 들어간다. 얇은 모래 쪽에는 나란히 대왕조개들을 줄지어 늘어놓았다. 어제 설명을 들을 때 자연 상태에 놓인 것이라 생각했는데 일종의 양식장이라고 할 수 있다. 모래에 놓인 애들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자라는 게 신기하다. 오래된 녀석들의 껍질에는 산호가 자란다. 바닥에 늘어놓은 모습이 꽤나 인공적이다. 수심 5미터 정도는 될 듯싶은 깊은 바다로 간다. 300미터 정도를 헤엄쳐 가는데 남편이 걱정되어 따라간다. 사진도 찍으면서 갈 수 있을까 싶었다. 다행히도 별 무리 없이 간다. 맨티그섬에서 네 번이나 들락날락 한 것이 도움이 되었나 보다. 산호가 크고 많다. 마지막에는 깊은 바다에 대왕조개를 흩뿌려 놓았다. 밖으로 나와서 짐을 찾고 바로 옆의 해변으로 간다. 화이트 아일랜드가 초급이라면 맨티그는 초중급, 이 바다는 중급 코스다. 남편도 깊고 멀리 가는데 당혹스러웠단다. 그래도 열심히 쫓아가야지 다른 방법이 없었고 잘 되더라. 흡입구에 문제가 전혀 없어서 다행이었다. 가이드가 앞서 가버리니까 살려면 따라가는 수밖에 없다. 우리끼리 해변에서 다시 바다로 들어간다. 적당히 들어가도 수심이 깊어지고 바위가 커서 산호가 크고 아름답다. 사유지라서 보존이 아주 잘 되었다. 해변의 풍경도 아름답고 사람이 없으니 멋진 곳이었다. 서편으로 해가 한풀 기운이 꺾인 채 넘어가서 덜 뜨겁고 바람이 분다. 해변은 그늘이 쳐 있다. 하루 종일 놀아도 될 곳이다. 더 하고 싶지만 바람이 꽤 불고 폭포에도 가야하니 남편이 가자고 한다. 2시간 정도 있었다. 3시에 되돌아간다. 어제 쉬었던 빵집에 들러 마운틴 듀와 치즈빵, 치킨빵 등을 사서 먹는다. 남편은 빵을 먹을 때마다 신물이 난다고 걱정을 하며 먹는데 이 집 빵은 나중에도 괜찮았다고 한다.

부두를 지나며 배가 도착해 있어 내려간다. 오는 길에 시간이 대충 비슷하게 맞으면 샘을 마중 나가려고 했었는데 우연히 딱 맞았다. 우리가 금요일에 왔으니 월요일에 들어올 것이 틀림없다. 배를 나오던 선옥 샘이 깜짝 놀란다. 선애 샘은 수영장에서 잠깐 본 탓에 처음에는 못 알아본다. 우리가 너무나 현지인 같은 모습이란다. 이 분들은 내일 하루 밖에 시간이 없다. 숙소가 움빙에 있어서 7시에 checkpoint에서 만나 이 섬에 대한 정보를 주기로 한다.

카티바와산 폭포를 가려면 항구 근처에서 산 쪽으로 좀 올라가야 한다. 시간이 4시 반 정도가 되니 산속은 어두워진다. 표 받는 곳도 비어있고 상가도 문을 닫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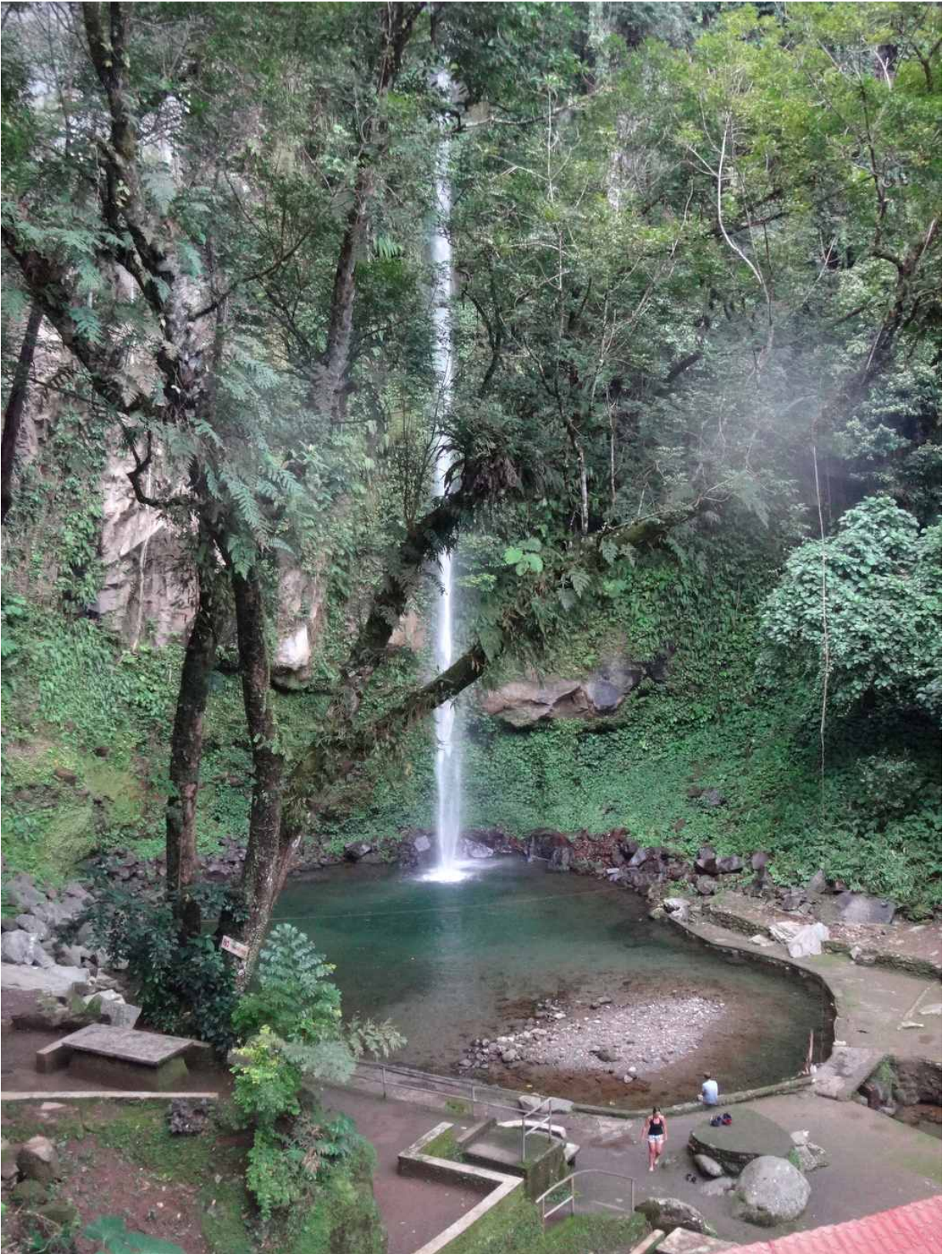


그림 22 카티바와산 폭포

아저씨가 나타나서 잔돈이 없다고 50만 받았다. 투아산 폭포보다 더 높고 수량이 적다. 아래를 인공 풀처럼 막아 놓았다. 줄 처진 바깥에서만 수영을 할 수 있다. 바다에서 그대로 왔기 때문에 잔물을 뺄 겸 차가와도 들어간다. 물속에는 별 것이 없다. 물고기도 아주 드물었다. 날이 저물어가고 있어 깊은 곳은 어둡다. 처음에는 찾지만 곧 아주 개운해졌다. 잠깐 놀고 옷을 갖춰 입은 후 출발한다. 시내의 시장에 간다. 해가 저무는 하늘과 구름이 아주 아름답다. 길에 서서 노을을 찍었다. 데친 문어, 과일, 구운 닭을 사서 집에 온다. 6시 반이 되었다. 씻고 빨래한 것들을 밖에 낸다. 다리 뒤가 무시무시하게 빨갛다. 오일과 크림 등을 많이 발라도 화끈거린다.

오토바이를 타고 7시에 checkpoint에 간다. 벌써 와 계시다. 술과 음식을 시켜 먹으며 선옥 샘이 자격증을 딴 과정, 서로의 여행, 내일 하루 일정을 의논하여 짜 주고 샘들의 숙소에 가 본다. 바로 앞에 해변이 있다. 검은 모래라고 한다. 내일 여기에 와서 해질녘에 놀까 한다. 오늘은 날이 맑아 하늘에 별이 많다. 도로를 따라 불빛이 없는 곳에서 별을 보려고 달린다. 완전히 어두운 곳을 찾기 힘들다. 숙소 주변에도 살펴보았지만 어두운 곳은 구름이 끼어있다.

집에 와서 사진과 동영상을 살펴본다. 물속 영상이 더 나아졌다. 우리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선명하다. 파파야, 문어, 망고를 먹었다. 해안이 생일이라 전화를 했다. 참 어렵다는데 단번에 걸린다. 축하해주고 할아버지, 할머니께도 잘 지낸다고 연락해 달라고 부탁했다. 아나나 다를까 두 분께는 전화가 영 안 걸린다. 피곤해서 자야겠다. 다리 뒤가 엄청 쓰리다.

1월12일(화) - 화이트 아일랜드 - 소다 스프링 - 비낭가완 폭포길

아침 4시 반에 빗소리에 잠이 깬다. 한번 쏟아지면 소리가 무섭다. 밖에 널어놓은 빨래는 아직도 물이 푹푹 떨어진다. 햇볕이 아니면 습해서 널어도 소용이 없다. 실내에 가지고 와서 널었다. 어제 일기를 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서 친다. 아침이면 닭이 알람처럼 성실하게 울어주기 때문에 아주 피곤할 때가 아니면 일어나게 된다. 탄 다리는 좀 나아졌다. 보면 무시무시하다. 간밤에는 피곤해서 아주 잘 잤다. 남편은 열심히 자고 있다. 오늘은 까미권의 마지막 날이다. 6시 경이 되어 밝이 환해졌다. 마을 구경이라도 하며 아침 산책을 나가

보아야겠다. 바닷가에 가려니까 선옥샘이 서 있다. 같이 갈 사람들이 없어서 배는 독채로 빌릴 수밖에 없다고 한다. 갑자기 우리도 같이 갈까 했더니 그러자고 한다. 잠시 기다리라 하고 집에 와서 남편에게 가자고 했다. 더 쉬고 싶단다. 날이 맑아 섬을 찍고 오겠다고 하고 카메라와 타월을 챙겨 나선다.

깜빡 생각 못한 섬 입장료 20을 샘이 계산해 놓으셨다. 배가 뜨자마자 해가 뜬다. 바다는 호수같이 맑고 잔잔하다. 샘들은 섬 끝까지 걸어가 본다고 하시고 나는 잔잔하게 고인 물 쪽에 뭐가 있는지 살핀다. 놀랍게도 성계가 바글바글하다. 아저씨가 20에 파는 바로 그 놈들이다. 주워서 까 주면 20이니 폐돈을 벌 것 같지만 지켜 본 결과 돈 벌기 쉽지는 않다. 이 뜨거운 햇볕 속에 바구니를 들고 하루 종일 걸어 다녀야 한다. 먹는 사람도 의외로 많지 않다. 내용물이 먹을 것이 없기 때문이다. 해가 뜨고 햇볕을 피할 곳이 없어서 처음에는 아침식사 노점 가게의 긴 그늘 끝에 앉았다. 그러다가 파라솔 쳐 놓은 긴 그늘의 중간에 앉아 있었다. 이 사람들은 착해서 뭐라고 하지도 않는다. 이 파라솔이 팔려서 뽑아 가시며 “소리!”한다. 내가 ‘땡큐’였는데... 다시 필리핀 남자 애들이 그늘에 여섯 쯤 있는 파라솔로 이동하여 나도 같이 앉았다. 파라솔 대여 일을 하거나 사공들이다. 보통 하루 종일 이렇게 앉아서 손님을 기다릴 것이다. 애들은 차분히 수다를 떨면서 괜히 외국인에게 말을 걸지도 않는다. 편안히 앉아 하늘, 구름, 바다, 까미권 섬, 오랜 세월 파도에 갈려 1미터 정도로 작아진 산호모래들을 보며 시간을 보낸다. 남편에게 1시간 후 오겠다고 했지만 샘들은 2시간 있겠다고 한다. 덕분에 고요한 풍경을 감상하며 너무나 고즈넉하고 기분 좋은 아침을 보낸다. 모든 것이 정지되고 유예된 시간 속에 놓여 있다. 이렇게 반동거리며 멍하게 하루 종일도 있을 듯하다. 샘들은 천천히 이쪽저쪽 바다를 다니시고 나는 모든 자연과 풍경 속에 고요히 있었다. 샘들이 물에서 나오셔서 10분 정도 있다가 배로 돌아 왔다. 두 분은 투아산 폭포로 떠나셨다.

집에 와서 남편과 로키즈에 아침을 먹으러 간다. 전기가 나가서 냉방이 꺼졌다. 발전기 소리가 시끄럽다. 천천히 먹고 커피와 마일로를 마신다. 10시에 짐을 챙겨 소다스프링에 간다. 날이 무척 쨍하다. 순환도로에서 산길을 오른다. 가는 길에 코코넛 따는 사람을 본다. 잠시 서서 기다린다. 엄청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기 때문에 위험하다. 코코넛은 바닥에 떨어져 다

깨진다. 아마 과육을 모으려고 하는가 보다.



그림 23

소다스프링은 지금껏 본 풀 중에서 가장 크고 깊다. 물이 계속 공급되어 깨끗하고 차다. 깊은 곳은 발을 디디고 서야 할 정도가 되었다. 마음껏 돌아다니고 주변 나무 그늘 밑 물에서 쉬고 다시 핀으로 배영하며 떠다니기를 반복한다. 누워서 떠다니면 구름이 피어오르고 흩어지는 것이 보인다. 남편은 수영 연습도 한다. 점심으로 구운 닭과 빵, 파파야를 먹었다. 쉬다가 다시 들어간다. 물속에서 눈 뜨는 연습도 한다. 또렷이 사물이 보이지는 않는다. 이곳은 외국인들을 가장 많이 본 장소이다. 제일 좋은 걸 아는지 계속 온다. 드링크 워터가 공급되기도 한다. 많이 담아 간다. 남편은 스파클링이 빠진 소다수 맛이라고 한다. 작은 병 두 개에 담았다. 물 만 잘 담아가도 입장료 30이 빠진다. 물이 풍부해서 샤워장에서 수영복 입을 채로 씻었다. 2시에 비낭가완 폭포를 찾아 간다. 달리는 산길에는 야자와 바나나 나무로 예쁜 그늘이

생긴다. 옷이 젖은 채 달려서 시원하다. 바나나 크레페 튀김가게에서 꼬치 4개를 먹는다. 남편이 신기한 장면을 보았다고 한다. 튀길 기름을 보충하는데 기름이 든 비닐봉지를 뜨거운 기름에 그냥 넣어 비닐이 녹으면 건진단다. 알로나 비치 삼거리 맛집에서도 비닐에 담긴 살코기 꼬치를 구울 때 비닐 채 불에 얹고 속의 고기가 좀 뽀뽀하게 익으면서 비닐이 녹아내리면 벗겨 내는 것을 보았다. 아직 환경호르몬의 개념이 없어 여기서는 저렇게 하는 것이 일종의 삶의 지혜인건가... 바나나 튀김도 더 이상 못 사겠다. 다른 튀김들도 다 저렇게 만들텐데...

비낭가완 폭포는 순환도로에서 8km 정도 올라가야 한다. 산길로 접어들어 달린다. 길이 넓고 좋다. 역시 시원하다. 그런데 자꾸 경사가 심해진다. 상대적으로 경치가 점점 멋있어진다. 오토바이에 무리가 많이 가서 남편은 불안하단다. 왜 이리 높이 올라가는 거냐고 걱정이다. 거의 오토바이 등산 수준이다. 바다가 멀어지고 구름이 우리 아래에 걸린다. 식생도 달라져서 초지가 보이고 야자나무가 아스라이 아래에 있다. 스노클 장비를 매고 등산이라니 어이없다. 나무의 종류도 다르다. 제주도와 비슷한 풍광이 펼쳐진다. 눈앞에 민다나오 섬이 가깝게 보인다. 겨우 산꼭대기까지 올라오니 길이 끊겨 있다. 아직 공사 중이다. 폭포는 여기서 산길로 걸어 20분을 가야 한단다. 남편이 고도를 확인해 보니 880m이다. 대관령을 오른 셈 이란다. 폭포에 가 보고 싶어도 남편이 발이 아파서 더 이상 걸을 수는 없다. 다시 내려오는 길은 더 아슬아슬했다. 살살 조심하여 간다. 순환도로에서 우리가 가지 않은 길을 다 달려 보기로 한다. 길은 깨끗하게 잘 정돈되어 있고 사람들과 아이들의 표정이 밝다. 우리가 전에 갔던 마지막 마을의 빵집에서 음료와 빵을 좀 먹었다.

다시 돌아오며 기름을 넣고 계속 달린다. 해가 지는 모습은 잠시 바닷가 몽돌 위에 앉아서 본다. 검은 돌과 산호 덩어리들이 섞여 있다. 더 달려서 까사 로카 인 식당에 온다. 예쁘게 꾸며 놓았다. 특히 미니 정원에 변기가 놓여있는 화장실이 특이하다. 아이디어가 참신하다. 한번 따라해 보고 싶다. 스윗 앤 사우어 피쉬와 해산물 파스타를 시킨다. 그런데 아가씨가 착각을 하여 해산물 카레가 나왔다. 맛은 우리나라 음식 같고 좀 짜다. 샘내 숙소에 들려 오늘 다녀온 곳 얘기를 잠깐 듣고 내일 만나기로 한다. 자이언트 클램이 좋았단다. 많이 타셨다.

checkpoint에서 할로 할로를 먹고 맥주 사서 왔다. 졸려서 2시간 자고 일어나 일기를 쓰고 짐을 챙긴다. 우리 여행 일정의 뒷부분도 짠다. 남은 망고를 먹고 일기를 치니 벌써 1시 반이다. 자야겠다.

| 4-1 |

(INFO) 카미긴 섬 둘러보기 by anakii

출입

보홀 섬 하그나jagna에서 월수금 1시에 배가 있다. 4시 반 경 카미긴 섬 북쪽 발바곤항도착. (2016/1월 현재) 하지만 노선이 자주 폐쇄되었다 재개하는 것 같다. 2015/4월에 다시 물길이 열렸다고 기사가 났고, 현재의 시간표는 2015/7월부터 적용되었다고 매표소에 안내되어 있다. 민다나오의 카가안테오로에서는 카미긴 남쪽 베노니 항으로 연결된다.



그림 24 하그나-발바곤(카미긴) 페리

교통, 숙박

- 보홀의 하그나에서 도착하는 발바곤 항에서 중심도시 맘바하오 시내까지 합승형 트라이시클(웰라) 10페소/인. 웰라는 도시간 이동하며 이동 중 승객이 원하는 지점까지 이동해 주는, 버스와 택시의 혼합형 교통수단.
예) 맘바하오 동쪽인 발바곤 항에서 맘바하오 서쪽인 화이트아일랜드가 있는 읍빙으로 가려면 일단 맘바하오행 웰라타고 맘바하오에 내려 서쪽 도시인 카타르만행 웰라 타고 읍빙에 내리면 된다.
- 카미긴섬은 북쪽 맘바하오Mambajao, 서쪽 카타르만Catarman, 서남쪽 사가이 Sagay, 남쪽 권실리반Guinsiliban. 동쪽 마히녹Mahinoc의 다섯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중심 도시들 주변은 웰라들이 자주 다니는 것 같지만 두 지역 이상을 이동하는데 웰라를 이용하는 건 힘들어보였다.
- 모터사이클을 빌리면 가장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다. 400~500페소/일. 며칠 대여하면 협상해서 깎을 수도. 섬 전체 일주도로 길이가 63km쯤 된다.
- 숙박으로는 해안 인접 예쁜 숙소(팬, 욕실)가 800~1000페소급. 리조트는 비쌌. 가장 저렴한 해안가 리조트로는 마히녹 지역의 라구나비치리조트인데 300~600페소급.

관광지 - 맘바하오에서 서쪽으로 순서대로.

- 아르덴 핫 스프링 Arden HOT Spring
입장료 30. 체온보다 약간 높은 정도의 따스한 온천. 야외온천이고 나뭇잎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위로 그물이 쳐 있다. 물놀이하기 좋은 크기, 주말이면 사람들로 북적인다.
- 화이트 아일랜드 White island
입장료 20 왕복방카비 450. 읍빙의 포구에서 새벽 6시에 첫배 출발. 해 뜨고 나면 모래사장의 햇볕이 살인적이기 때문에 주로 새벽에 보러 감.

- 물에 잠긴 묘지 Sunken cemetery
- 옛 교회 유적 Old Church ruins
입장료 없음. 옛 화산 분출시 피해를 입은 교회 유적. Sunken cemetery에서 조금0m 남쪽.
- 투와산 폭포 Tuwasan falls
입장료 없음. 도로 공사중 발견된 자연폭포. 웅덩이는 얇으나 맑고 깨끗한 물.
- 소다 스프링 풀 SODA spring pool
입장료 30. 원래 탄산수였지만 지금은 탄산 기운은 많이 사라졌으나 물은 대단히 맑고 시원함. 풀 한편에 음료수용 탄산수 토출구가 있어 식수를 받아가기에 좋음. 샤워장과 화장실 완비, 피크닉용 샬레(대여료 70~100)에서 음식 싸들고 먹으며 노는 현지인들이 무척 많음.
- 산토 니노 콜드 스프링 St. Nino cold spring
입장료 30. 메인 하이웨이 Catarman 지역의 looc 마을에서 산 쪽으로 난 길 따라 2.5km 들어가면 사람들로 북적이는 천연과 인공이 조화된 수영장이 나온다. 주말에는 가족과 나들이를 즐기러 온 사람들이 많고 테이블을 빌려 걸판지게 먹으면서 수영을 즐기기도 한다. 물이 무척 차고 닥터피쉬처럼 각질을 뜯어먹는 작은 물고기들도 산다. 물이 계속 흐르는 구조이며 물이 맑아 물안경을 쓰고 들어가면 시야가 확 트인다. 대형 풀과 초소형 풀이 있는데 대형 풀은 1.2m~2.1m의 깊이다. 사람들이 많지만 풀이 워낙 넓어 좁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
- 비난가완 폭포 Binangawan falls
카미긴 섬 횡단 도로 공사 중인 곳으로 산꼭대기인 800m지점까지 가파른 아스팔트/시멘트의 신작로가 만들어져 있어 섬 전체와 민다나오 전망에 최고. 하지만 경량 오토바이에 두 명이 탈 경우 위태로울 정도의 경사임. 도로 공사 지점 끝에 내려 20여분 산길을 걸으면 비난가완 폭포가 나옴.

- 자이언트 클램 보호구역 Giant clam sanctuary

자유수영 구역 + 대왕조개 전시장 과 수중 대왕조개 체험장 으로 나뉘는데 입장료는 25이고 수중 대왕조개 체험장을 가려면 가이드비 150을 내야 한다.

도우미의 말에 따르면 이곳은 대왕조개 보호구역이며 집어금지구역이라서 잘 보호된 산호초와 다양한 물고기를 볼 수 있다고 한다. 보호구역 내에는 약 4천여 마리의 대왕조개들이 세 구역에 걸쳐 분포한다. 대왕조개 양식장 중 두 곳은 얕고 한 곳은 깊다. 보통 35~45분 정도 소요된다. 자유 수영구역은 조개 분포지의 남쪽. 나무그늘이 있어 휴식하기 좋고 산호들이 매력적인 놀라운 프라이빗해변으로 강력 추천하는 스노클링 포인트. 얕은 곳의 산호를 밟지 않도록 주의!

A. 입장료 (25)에는 사진촬영 무료, 대왕조개연구소를 비롯한 구역 투어. 휴식과 자유수영구역에서의 스노클링. (산호와 물고기 많음) 이 포함됨.

B. 테이블대여비 대/소 100/50

C. 바다 밑 대왕조개 서식지 관람료 150 (가이드비)

이 경우 스노클링 장비를 대여하거나 (마스크&스노클 100, 핀(플리퍼) 100, 물안경 50, 구명자켓 50) 장비사용료의 절반을 외부장비사용료로 내고 자신의 장비를 사용할 수 있음 (핀과 스노클을 개인장비로 사용한다면 100페소)

- 맨티그 아일랜드 Mantigue Island (Nature Park)

산 로크 마을 외곽의 맨티그 보트 터미널에서 출발함. 맘바하오 중앙시장 옆 지프니 모인 곳에서 마히녹 Mahinoc 방향 지프니 타고 가다가 맨티그 터미널 내려 달라 하면 됨. 맨티그 터미널에서 보트 대절료 대당 550페소. (4~6인까지 가능)

섬에는 최장 4시간 체류하며 이후 시간당 50페소. 섬을 나가는 시각 알려주면 보트맨이 시간 맞춰 대기한다.

환경비 20, 스노클링fee 50 테이블대여 (대/소 100/50) 스노클 핀 각각 150\

- 카티바와산 폭포 Katibawasan falls

입장료 30. 웅덩이 끝에 독이 있어 수영하며 피로를 풀기에 좋음. 깊은 부분은 줄을 쳐 출입을 제한하며 비교적 맑은 민물임. 유원지처럼 인공적인 손길이 조금 가해진 곳.

MAP OF CAMIGUIN ISLAND



CAMIGUIN TOURISM OFFICE
 Tel. No. (088) 387-1097 local 130
 camiguin.tourism@gmail.com
 Facebook: CAMIGUIN TOURISM OFFICE

www.visitcamiguin.org

Top Diving Sites of Camiguin

MAMBAJAO	MAHINOG	GUINSILIBAN	SAGAY	CATARMAN
White Island MS	Mantigue Island MS	Cabuan MS	Alangilan MS	Pasil Reef MS
Baylao MS	Burias Shoal	South Poblacion MS	Balite MS	Catibac MS
Old Volcano	San Roque MS	Cantaan Giant Clam Sanctuary		Lawigan MS
Kabiling Tupsan MS	Benoni MS			Poblacion MS
Jicdup Reef	Binaliwan MS			
Mantigue MS				

그림 25 카미긴 관광지도

세부 오슬롭 Oslob

1월13일(수) - 까미권 - 세부 - 오슬롭 - 타나완(고래상어 마을)

아침 5시에 일어나 짐을 챙기고 나와서 6시 5분에 오토바이로 공항에 왔다. 비행기가 작아서 짐 무게 뿐 아니라 사람의 몸무게까지 다 잰다. 와서 살이 많이 찼다. 살찌는 음식들이 많아 조심해야겠다. 어제 산 빵과 닭고기를 먹는데 샘들이 오셨다. 비행기는 10분 일찍 7시 반에 떠난다. 공중에서 보는 투어라 할 만큼 볼만 하다. 까미권의 화이트 아일랜드를 지나 보홀의 발리카삭, 팡글라란 섬이 보이고 초콜릿 힐을 지난다. 공중에서 보니 넓은 지역이 다 초콜릿 힐이었다. 산호들이 솟구친 지형이라고 한다.



그림 26 초콜릿 힐 항공사진

35분 만에 세부에 도착하여 샘들과 같이 택시를 탄다. 북부터미널에 내려드리고

남부터미널에 왔다. 바로 에어컨 버스를 탄다. 오슬롭 지역이 스노클링 피와 카메라 피가 비싸다는데 가서 어찌할지 생각해봐야 한다. 9시 50분에 떠난 버스는 오슬롭을 지나 1시 반에 타나완의 MBS 선라이즈 리조트 앞에 선다. 1,200에 작은 방에 들었다. 돈이 없어 100달러를 4,500에 환전한다. 내일 고래상어 보러 1인당 1,000을 냈다. 카메라 피는 없고 스노클링 피 포함이다. 카메라 피는 다이버가 카메라로 찍어 줄 때 내는 요금이라 한다.

투말록 폭포에 오토바이를 타고 간다. 산길을 가파르게 오른다. 21 반에 입구에 와서 아저씨와는 4시에 다시 만나기로 한다. 가파른 내리막길을 걸어간다. 비 오듯 물이 흠뻑려져 쏟아지는 부드러운 폭포에 온다. 옥색 물빛이다. 불투명한 옥색이라서 수경을 써봤자 안이 보이지 않는다. 그냥 안경을 쓴 상태로 헤엄치거나 눕는다. 물이 깊지 않은데도 아주 잘 뜬다. 침대에 눕듯 가만히 누워 물이 쏟아지는 것을 구경한다. 물을 맞아 보았자 약간 센 비를 맞는 느낌이다. 쏟아지는 물줄기가 참 예쁘다. 약간 으슬으슬 추워져서 1시간 정도 놀고 나와 깔라마이를 먹는다. 약간 무른 찹쌀떡 같은 느낌이다. 물기를 닦고 옷을 입으려는데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한다. 언덕길을 오르며 샤워하듯 엄청 퍼붓는 비를 맞는다. 커버를 씌운 가방만 꼭 껴안고 걸었다. 구멍가게에서 비를 피하며 잠시 앉아 있는데 아저씨가 왔다. 빗길이라 조심스럽게 내려가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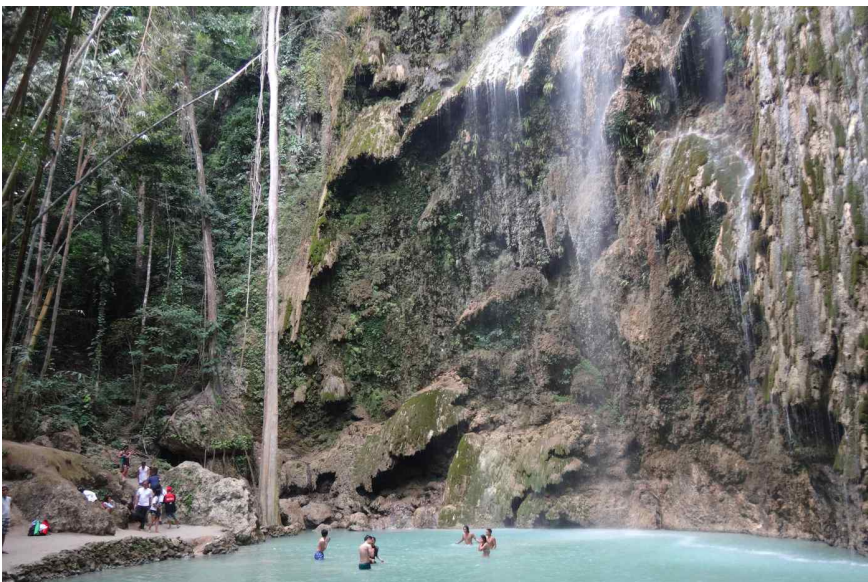


그림 27 투말록 폭포

숙소에 와서 씻고 수영복을 말린 후 다시 오슬롭 시내에 오토바이를 타고 간다. 에스파냐 지배 시절의 건축물과 성당을 보고 대로변 노점에서 꼬치, 생선, 밥을 먹는다. 생선구이의 맛은 별로였다. 가게에서 야채 반찬에 밥을 더 먹는다. 음식이 짜다. 전반적으로 맛은 그럭저럭한 수준이다. 바나나가 비싸서 망고만 샀다. 파파야도 없다. ATM에서는 돈이 뽑아지지도 않았다. 빵과 물, 술, 꼬치와 튀김 등을 사고 오토바이로 왔다. 머리가 멍해서 한숨 자고 일어나 일기만 겨우 쓴다.

1월14일(목) - 고래상어 투어 - 릴로안 - 두마게티

아침 5시에 일어났다. 어제 초저녁에 일찍 잤다. 망고를 먹는다. 지금까지 먹었던 것 중에서 가장 맛있다. 6시에 나가니 사람들이 무척 많다. 아침에 와서 신청하고 돈을 내는 사람들이 더 많은 듯하다. 선크림이나 가방, 타월은 가지고 갈 수 없다. 6시 반 경에 걸어서 센터에 왔다. 간단한 교육을 받는다. 만지지 말고 상어와 4m 정도 까지만 가까이 가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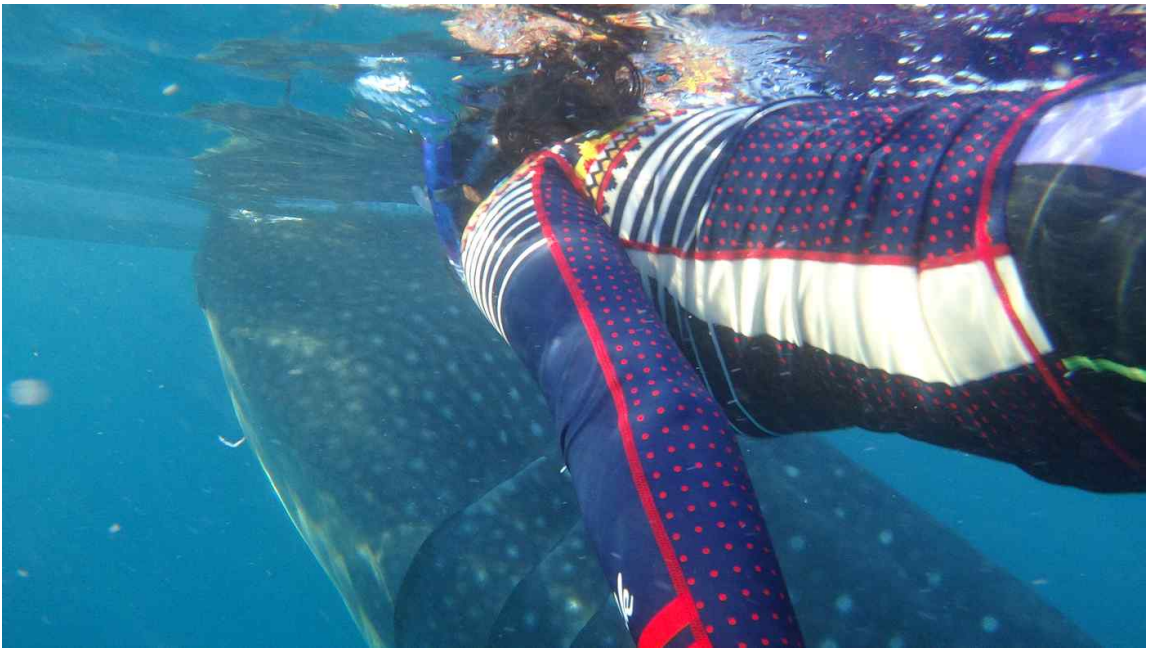


그림 28 고래상어 옆에서

6명씩 한 배에 타고 바로 앞바다에 간다. 조금만 나가도 수심이 깊다. 새우를 뿌리는 배가 따로 있다. 뿌리면 고래상어가 가까이 온다. 수심 9m 정도 깊이의 바다에서 30분 정도 떠다니며 고래상어를 보거나 찾으러 돌아다닌다. 고래상어는 크고 신비롭다. 옆의 아가미가 숨쉬며 움직인다. 꼬리 핀을 좌우로 저으며 느리게 움직인다. 위와 아래에 두 마리가 있기도 하다. 평화롭게 천천히 움직이기 때문에 같이 옆으로 따라 가기도 하고 내가 너무 가까이 간 것인지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데 계속 상어 옆에 붙어 있으니 찍기가 어려웠던 건지 나를 잠깐 잡고 나오는 사람도 있었다. 사진 피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었고 물속 사진을 찍어주는 비용이 550이었다. 그런데 물속 시계가 좋지 않아서 상어가 어디에서 나타나 어디로 가는지 계속 확인을 해야 하는데 나타나도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기가 힘들다. 어쨌든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신비롭고 좋았다. 먹이를 뿌려 주기에 원래 회귀성 어족인 녀석 중에 이곳에 붙박이로 사는 놈도 있더니 안타까운 면이 있다. 게다가 새우젓을 주니 일종의 인스턴트식품을 계속 먹이는 셈이다. 그래도 학대를 받거나 먹히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상어가 무서운 종류의 아이들이 아니라는 교육도 되는 셈이다. 몸집이 그리 큰 아이들이 오전 12시까지 날마다 여기에 출몰해야 한다는데 안타까움이 있다. 남편은 동물원의 애들도 먹이를 먹는데 깊은 바다에서만 구경할 수 밖에 없는 애들을 보려면 어쩔 수 없는 것 같다고 한다.

숙소에 와서 씻고 짐을 챙긴다. 우리나라에서 일을 하고 왔다는 윤식이 비슷한 얼굴의 청년에게 친구들한테 선물로 주라고 월드 코인 뭉치를 주었다. 8시에 짐을 챙겨 나와서 버스를 탄다. 바토에서 모알보알에 갈 계획이었다. 그런데 버스에는 릴로안에서 두마게티에 가려는 외국인이 있었고 우리도 두마게티에 가기로 한다. 릴로안 부두에서 9시 15분에 출발하여 9시 40분에 네그로스 섬에 온다. 지프니를 타고실리만 대학 앞에 내려 인솔라 호텔에서 방 구경을 한다. 주변을 더 둘러보아도 이 호텔이 낫다. 다행히 없던 720 짜리 방이 그새 나왔다. 청소하는 동안 아이스크림이 유명하다는 집에서 두유와 함께 먹고 건너편 식당에서 아점을 먹는다. 여주 볶음과 야채 춘권 튀김이 있다. 프런트에서 지도를 얻고 시원한 숙소에 와서 한숨자고 쉰다. 1층의 더 비싼 방보다 싸고 더 좋다. 나무 마루가 옛스럽고 무척 깨끗하다. 맨발로 돌아다닌다.

2시에 나가서 머리 비너와 콘센트를 산다. 옥수수를 하나 사 먹고 리 플라자에 간다. 가방을 맡기고 시원한 냉방이 나오는 곳에서 돌아다닌다. 왓슨에서 밴드류, 남편의 아쿠아 슈즈와 면원피스를 샀다. 푸드 코트에서 만타레이, 해산물 커리, 딤섬, 코코넛 푸딩, 비프 국수와 과일 할로 할로를 먹었다. 특히 페낭의 파이퐁 식당을 연상시킬 만큼 딤섬이 맛있었다. 월남 짬뽕 좋다.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를 연상시키는 음식들이 많아서 여기가 필리핀인가 싶다. 3시간 반을 노닥거렸다. 대학생들이 모여 댄스 댄스 레볼루션을 신나게 한다. 흥겹고 보기 좋다. 활기차고 씩씩한 느낌의 도시이다. 나와서 투어 인포에 가서 큰 지도를 얻고 두마게티 주변 관광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컴퓨터 화면으로 사진도 보았다. 아포섬에 가서 거북이를 볼 수 있다고 해서 숙박이 비싸지만 가보려고 한다. 직원이 친절하고 좋았다. 전반적인 도시의 공원이나 거리의 느낌, 성당과 벨 타워가 남인도의 폰티체리에 우리가 갑자기 던져진 느낌이었다. 해가 넘어가고 인포 앞의 공원에는 아줌마들이 속속 모여 들더니 음악을 틀어 놓고 들썩이기 시작한다. 에어로빅이 시작된다. 강사를 따라 준비 운동을 하기에 나도 끼었다. 아줌마들이 웃으며 환대해 준다. 몸을 풀고 따라하니 곧 더워진다. 공원을 지나 세븐일레븐에서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먹고 과일시장에서 망고와 포멜로를 산다. 슈퍼에서 물과 술을 사서 6시 반에 숙소에 온다. 숙소는 1폐소를 내면 200m 정도의 물을 마실 수 있다. 맥주는 냉장고에 넣어 두고 올라와서 씻고 옷을 빨 후 쉰다. 프론트 주변에서만 인터넷이 되어서 7시에 내려가 21일 세부에서 마닐라로 가는 항공권을 끊었다. 가장 싼 표에 일정을 맞춰야 하니까 여기서 3일 자고 아포섬에서 2일, 모알보알에서 2일, 마닐라에서 2일 자기로 계획을 한다. 비행기 표가 우리의 일정을 저절로 짜 주는 셈이다. 망고와 맥주를 먹고 잔다.

네그로스 두마게띠 Negros Dumaguete

1월15일(금) - 아포 섬

아침 6시에 일어나 오늘 일정을 고민한다. 두마게티는 폭포, 동굴, 온천이 있는데 이동거리가 상당히 멀다. 일단 오늘은 아포 섬부터 다녀오기로 한다. 들어가는 배가 3,000이라고 해서 가서 너무 비싸면 그냥 호수로 가려고 한다. 돈을 많이 가지고 나간다. 청소는 하지 말아달라고 얘기하고 열쇠를 맡겼다.

7시 반에 나가 트라이시클로 지프니 스테이션에 가서 빵을 약간 산다. 7시 45분에 잠보앙기타행을 타고 말라타파이에서 8시 반에 내린다. 길이 한적하다. 투계를 들고 가는 아저씨가 아포 섬의 주민이라며 들어 가냐고 묻는다. 선착장에는 우리 밖에 사람이 없다. 배는 4인이 2,000 이고 8인이 3,000 이다. 같이 갈 사람이 없어 돈을 다 내기는 아깝고 일단 아침을 먹으며 기다리기로 한다. 다행히 먹자마자 체코 남녀 둘이 왔다. 넷이 같이 타고 가서 3시에 나오기로 한다. 투계 아저씨도 함께 탄다. 섬 주민들은 이런 식으로 같이 타고 가나보다. 햇볕가리개는 바람이 심해서 안한다고 한다. 배 앞에 앉은 남편과 체코 언니는 한없이 물벼락을 맞는다. 다행히 짐들은 타기 전에 바닥에 넣고 뚜껑을 덮어 둔다. 계속 앞에서 물을 맞아 남편이 꽤 추웠단다. 높은 파도들을 넘을 때마다 말을 탄 것 같이 출렁인다. 그래도 운전을 잘 하셔서 별 어려움 없이 조그만 배가 잘 간다. 40 분후 아포 섬에 도착한다. 섬 입장료는 100 썸 이다. 세드는 300이나 해서 얻지 않고 수리하려고 정박 중인 방카보트의 그늘에 짐을 두고 바다로 간다. 걸어오면서 외국인에게 물으니 오렌지색 깃발 있는 곳에서 거북이를 2번 보았다고 한다. 한번이라고 거북이를 보고 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다. 바다에 들어가도 크고 예쁜 산호들만 많고 거북이는 안 보인다. 산호만 보아도 거대하고 볼만했다. 물이 얇은 곳부터 큰 것들이 있어서 조심스럽다. 거북이가 안 보여서 일단 밖으로

나왔다. 따로 먹이를 주는 것도 아니고 일정한 지역에서 보기는 참 어려울 것 같았다. 그런데 그 다음 부터는 들어갈 때마다 거북이가 흔하게 보였다. 화려한 등의 무늬, 큰 눈, 여유롭고 느리게 움직이는 앞발, 해초를 뜯는 모습을 실컷 본다. 거북이 보며 따라가는 것에 빠져서 점점 깊은 바다로 가는 거북이를 쫓아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림 29 바다거북 근접촬영



그림 30 거북아자씨 이리 오세요~

밖으로 나와서 남편에게 사진과 동영상으로 찍어보라고 하니 해엄을 치며 찍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 그래서 간단한 조작 방법을 익히고 내가 가지고 들어간다. 다양한 모습의 거북이를 찍고 보았다. 많이 찍어서 만족스럽다. 바위 있는 다른 방향으로 이동하다가 남편이 등대에 가보자고 한다. 위로 오를수록 척박하고 덥다. 온 섬이 물이 부족하여 식물들이 바삭바삭하다. 등대도 낡고 주변이 어수선했다. 앉아서 거북이 찍은 영상과 사진을 보니 잘 찍혔다. 내려와서 바위 부근 그늘에 짐을 두고 바다에 들어간다. 별로 볼 것이 없다. 다시 거북이가 보이는 지점에 왔다. 각자 알아서 구경하기로 한다. 정박한 망카 보트 그늘에 짐을 두고 들어간다. 거북이를 보고 있는데 가이드 하는 사람이 자꾸 얇은 곳으로 나가라고 한다. 가이드가 없다고 텃세를 부리는 건지 깊어서 위험하다고 하는 건지.. 텃세 같다. 가이드는 잠깐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300 씩이나 받는다. 이들이 금방 나가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다시 나가면 된다. 거북이가 보이는데 남편이 오지 않아서 데리러 간다. 그런데 남편도 더 큰 거북이를 보고 있었다. 크고 느려서 계속 풀만 뜯고 있다. 나중에 내가 보던 그 거북이가 같이 왔다. 오래 보고 나오는데 다시 작은 거북이가 있어서 세 마리를 한꺼번에 보았다. 거북이 풍년이다. 흔하게 보는 것이 영 신기하다. 거북이를 보고 같이 떠다니면 마음이 평온해진다. 물 위에 파도가 쳐도 물속은 고요하다. 느릿느릿 휘젓는 앞발만으로도 그렇게 멋지게 유영을 할 수 있다니... 어떤 애는 들에 이끼가 끼기도 한다. 크고 늙은 거북이들의 등은 깨끗하고 무늬가 선명했다. 원 없이 거북이들과 수영을 한 멋진 하루다. 나와서 몸을 말리려다가 체코 남녀가 골목길로 걸어가고 있어서 따라간다. 1시 반인데 지금 갈까 3시에 갈까 했더니 3시가 좋단다.



그림 31 홈스테이집

그래서 우리도 골목 구경을 한다. 작은 길 사이에 집들이 작게 딱딱딱 붙어 있다. 마을의 우물에도 물이 거의 없어 척박해 보인다. 체코 남녀가 아니었다면 마을 구경을 하지도 않았을 거다. 바로 앞에 이런 마을이 있는 줄 몰랐다. 굽이굽이 집들과 예쁜 초등학교, 고등학교도 있다. 1,000 가구 정도가 산다고 한다. 망고

셰이크를 한잔 먹고 마을 안으로 더 들어가서 빵을 사 먹는다. 빵 만드는 곳은 따로 있단다. 홈스테이 하는 집은 500이고 식사는 150 이다. 물이 귀한 곳에서 숙박하고 싶지는 않다. 전기도 없는 곳이다. 석호를 지나 뒤쪽 해변에 도착한다. 다시 우리 배가 있는 곳에 온다. 3시 10분 전이다. 체코 남녀와 배를 타고 돌아간다. 역시 남편과 언니는 앞에서 물벼락을 계속 맞았다. 이런 모습으로 다른 장소로 이동해야 한다면 난감할 것이다. 그래도 운전 기술이 좋아 파도 사이사이로 충격을 줄이면서 잘 간다. 예전에는 멀미를 했었는데 말을 탄다고 생각하면서 흐렸다. 흐름에 몸을 맡기면 즐겁다. 요람처럼 흔들여 준다. 3시 35분에 도착한다.

길에서 지프니를 타고 온천에 가려고 한다. 몸이 젖어 뒤에 매달려 간다. 다우인에 내린다. 오토바이인 하발하발을 흥정하니 500을 부른다. 너무 비싸다니까 결국 왕복 150에 한 시간 기다려 주는 걸로 얘기한다. 남편이 가격의 폭이 그렇게 크니 어찌 당신의 말을 믿겠냐고 하나까 4인을 태우는 오토바이여서 그렇게 불렀다는 등 변명을 한다. 나는 다른 오토바이를 흥정하러 가자며 걸어 나왔다. 그런데 하발하발이 있는 곳이 거기뿐이다. 다시 와서 다른 애와 흥정하려고 해도 좀 당황하며 머뭇거린다. 편도 200을 부른다. 아까 그 남자에게 150에 가자고 했더니 편도 가격이라고 한다. 상황을 보건데 이 남자가 이들의 보스이다. 상황이 이러니 굳이 온천에 갈 필요도 없고 그냥 포기하고 돌아가기로 한다.

지프니로 와서 벨 타워에 내린다. 레촌을 사고 과일가게에서 망고, 세븐일레븐에서 산 미구엘 데빌(사탕수수 리키)을 산다. 리 플라자에 가서 짐을 맡기고 푸드 코트에 간다. 어제 먹었던 덤섬과 죽 등으로 푸짐하게 저녁을 먹었다. 몸을 씻지 않아 바지도 뼈뼉뼈뼉하고 째뼉하다. 슈퍼에 들렀다가 나는 먼저 들어와 씻고 빨래하고 남편은 맥주를 사러 나간다. 치우지 말라고 했는데 깨끗하게 청소하고 시트도 갈아 두었다. 열쇠를 맡기니 치위달라는 줄 알았나보다. 망고와 레촌을 먹고 일찍 잔다. 1시에 일어나 일기를 친다.

(INFO) 아포Apo섬 원데이 투어 by anakii

두마게띠Dumaguete 둘째 날.

산호가 살아 있고 바다거북과 함께 스노클링을 할 수 있는 아포섬.

처음엔 숙박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숙박비가 엄청나서 (2500~2800페소) 고민하다 인터넷에서 서양인들이 쓴 블로그 글 보고 용기 내어 두마게띠에서 아포섬 하루투어를 시도했습니다.

아침 7시 30분. 숙소가 있는 실리만 대학교 앞에서 잠보앙기타Zamboanguita행 지프니 터미널까지 트라이시클을 타고 가니(10페소/1인) 로빈슨 플라자 앞에 내려줍니다. 지프니 차장에게 말라타파이, 아포 아일랜드, 라고 말하고 올라탔습니다. (20페소/1인)

지프니로 약 45분 달려 아포섬 가는 배가 출발하는 말라타파이Malatapay에 내렸습니다. 수요일마다 열리는 말라타파이 시장은 금요일이라 폐장해 한산합니다. 장터길 따라 포구에 도착하니 밥집 몇 곳과 매표소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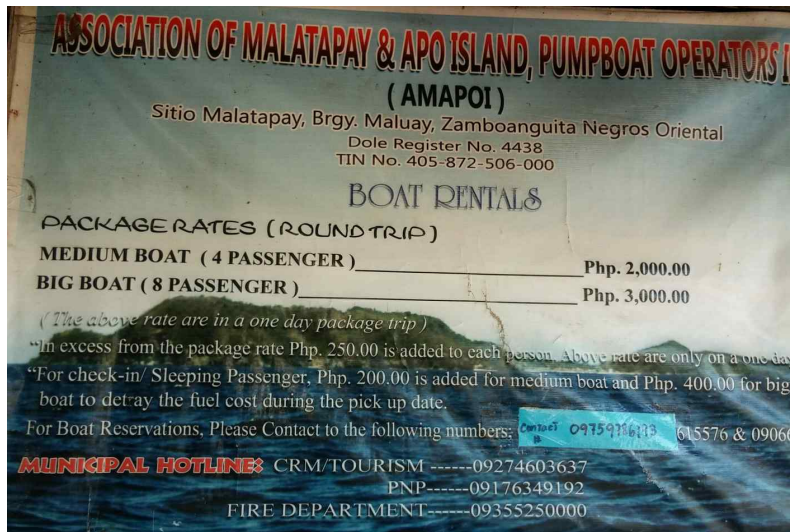


그림 32 말라타파이 포구 요금소

배값은 왕복요금으로 4인승이 2천페소, 8인승이 3천페소입니다. 섬에 들어갔다가 3시30분 이전으로 나오는 시간을 약속하면 된다고 합니다. 어제 공공 투어오피스에서는 1인당 배값이 300페소라고 했는데 차이가 크네요. 4인승이지만 두 명이 타도 같은 가격을 내야 합니다.

밥집에서 야채 두 그릇과 밥 한 공기 (50페소) 밥 먹으면서 다른 여행객이 오나 살피다가 유러피안 두 명이 오기에 상황을 이야기하고 각각 1000페소씩 내서 함께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9시 출발.

4인승 배는 정말 작습니다. 먼저 우리들 짐을 받더니 방카 바닥에 놓고 뚜껑을 덮어 물이 들이지 않게 한 뒤 사람을 태웠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어 파고가 높아 그늘 막도 치지 못하고 풍랑에 조각배처럼 흔들리며 아포섬을 향해 갑니다. 모두들 물벼락을 고스란히 맞으며 물빠진 생쥐 모양새로 45분 파도에 몸을 맡기며 갑니다. 배 타는 것부터가 모험입니다.

아포섬에 도착해 3시 30분에 나가겠다니 약간 난색을 표하면서 3시로 제안하기에 3시로 약속하고 해변가 오피스에서 섬 입장 등록을 했습니다. (100페소/1인)

오피스 오른 쪽 해변, 오렌지 부표가 떠 있는 곳이 바다거북이 종종 등장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해변엔 파란 옷 입은 사람들이 여럿 있고 스노클링 도구를 빌려주거나(스노클, 핀, 구명조끼 각각 100페소) 그룹을 지어 바다거북 가이드(300페소)를 해 줍니다. 더 오른쪽으로 있는 그늘막 식당에서는 물건 놓으러 테이블 빌리는데 300페소, 밥 한 끼에 200페소를 받습니다. 우리 네 명은 모두 포기하고 적당한 자리를 찾아 유러피안들은 땡벌아래 바위 위에, 우리는 수리 중인 방카배 그늘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림 33
소중한(!) 방카 그늘

스노클링 시작! 배가 정박해 있는 얇은 바위부터 살아 있는 산호가 보여 조심스럽게 나갑니다. 가슴께 차는 깊은 곳엔 산호와 물고기가 종종 보이고 수심 2m이상 되는 곳들은 산호가 거의 살아 있네요. 마치 잘 꾸며진 수족관에서 스노클링 하는 기분. 인간의 발이 닿지 않으니 피해가 거의 없나 봅니다. 이런 곳들은 스쿠버 다이빙 금지 구역입니다. 중심을 잃은 미숙련 다이버들이 산호를 다치게 하는 일이 많으니까요. 30여 분간 깊은 수심 적응 훈련을 나뉠 하고 있다 보니 옆에서 숙 바다거북이 지나갑니다. 한 아름 크기. 평화롭고 느리게 앞발로만 유영하며 물풀을 뜯어 먹습니다. 마늘님과 함께 옆에 다가가 세심히 관찰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먹이활동을 계속합니다. 한참 바라보다 거북이는 약간 깊은 곳으로 이동하고 우리도 따라가는데 점점 깊어지니 겁이 덜컥 나는군요. 거북이 따라 용궁갈 일 있나요?

한 시간 반쯤 스노클링 하는 동안 거북이를 꽤 자주 봤습니다. 오렌지부표 쪽에서는 가이드가 구멍조끼 입을 몇 명을 모아 안내해주는 것 같은데 별 신통치는 않아 보입니다. 우리가 오히려 자유롭고 거북이도 더 잘 관찰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가끔 우리가 부표 쪽으로 이동해 가면 나오라고 해변에서 뭐라 하는데, 처음에는 거북이가 다른 쪽에 있다고 하는 줄 알았습시다만, 몇 번 그러고 보니 아무 것도 빌리지 않고 가이드도 쓰지 않은 우리가 그 구역으로 들어오는 게 싫은 가 봅니다. 자기네 가이드 구역이라는 거죠. 그러거나 말거나 물 속에서 유영하고 있으면 그만이죠. 사유 구역은 아니니까요.

11시 반 쯤 일차 마치고 섬 꼭대기 등대 가는 트레킹로를 걸어 봤습니다. 쪽 계단길 이어지다 평지길, 계단 길로 이어집니다. 엄청 뜨겁고 오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등대에 도착해도 먼 바다 풍경만 보일 뿐 경치가 엄청난 것도 아닙니다. 올라오는 길은 내내 비가 오래 오지 않은 듯 척박하고 폐허가 된 집들이 많습니다. 집집마다 빗물을 받아 저장하는 탱크가 있지만 빗물만으로 살기는 힘드니까요. 다 내려와 큰 바위가 있는 해변에서 스노클링을 해 봤는데 물만 깊은 뿐, 별 볼 게 없어 다시 방카그늘로 돌아왔습니다. 시간은 한 시.

스노클링 2차시기! 스노클링을 더욱 잘 하는 마늘님에게 카메라를 맡기고 나가니 물이 좀 더 들어와 약간 깊어졌습니다. 얇은 바위에서 스노클링을 시작하자마자 거대한 (1.5m정도) 바다거북이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네요. 옆에서 차분히 지켜보며 함께 10여분 이상 있었는데

계속 비슷한 자리에서 먹이를 먹습니다. 참 평화로운 생명체입니다. 거대한 몸짓에 큰 눈을 두리번거리며 느릿느릿 움직이는 게 마치 소가 풀 뜯는 걸 구경하는 것 같습니다.

한참 지켜 보다 마늘님이 다가와서 같이 있다가 오렌지부표 있는 쪽으로 이동하니 거기 또 한 두 마리의 거북이 유명합니다. 그 보기 힘든 바다거북이 이곳에서는 흔한 물고기 보듯 보이는군요. 유명하다 잠깐씩 머리를 물 밖으로 내미는데 그럴 땐 바깥에서도 빼꼼이 솟아난 머리가 보입니다. 바다거북과 함께 다니면서 거북이 수영 흉내도 내면서 한참 놀다가 물가로 나오는데 물가 얇은 바위에 아까의 그 거대하고 늙은 거북이 여전히 있네요. 잠깐 어르신(!)과 놀다가 물가로 헤엄쳐 나오는데 눈 바로 왼쪽에 또 다른 거북이가 함께 헤엄칩니다, 정말 거북이를 실컷 본 스노클링이었습니다.

물가로 나와 시간을 보니 1시 40분. 함께 온 체코친구들이 아까부터 주변을 어슬렁거리기에 좀 일찍 나갈까요? 물으니 원래대로 3시가 좋겠다 합니다. 마을 산책 시간이 생겼네요.

마을은 작고 오밀조밀합니다. 좁은 섬인데도 마을(바랑가이)마다 하나씩 있는 비가림막 체육관도 있습니다. 바다를 배경으로 한 실내(?) 체육관에서 농구하는 아이들 모습이 이채롭습니다. 예쁜 바에서 망고셰이크 한잔(80페소). 앓음권 획득 이라고 마늘님이 말하는군요.



그림 34 아포섬의 초등학교. 고등학교도 있다.

아이들이 많은데 학교는 어떻게 가나 생각했는데 과연 작은 섬 안에 엘리멘터리 스쿨과 하이스쿨이 함께 있습니다. 주민이 천여 명이고 백오십여 가구가 사는 마을답게 없는 것 없이 알칩니다.

마을 산책 하다 가게에서 빵 먹다 쉽니다. 빵은 어린 시절을 회상하게 되는 맛입니다. 어릴 때는 빵을 좋아했었는데 지금은 잘 먹지 않거든요. 빵을 베어 물면서, 맛아, 이런 맛 때문에 빵을 좋아했었지 생각하면서 마눌님에게 말하니까 베이킹소다 맛이 나는 것 때문일 거야 요즘 우리나라는 그걸 잘 안 쓰잖아 라고 과학적인 해석을 내려줍니다.

초등학교 옆에 홈스테이 팻말이 보이네요. RONOR'S Homestay 방은 500, 아침 무료, 점심 저녁은 끼니당 150. 닭고기와 생선요리 포함. 그렇죠! 이게 합리적인 가격 정책이지요.

마을 탐방 마치고 나니 2시 40분. 선착장에서 조금 쉬니까 체코친구들이 와서 배에 올라탔습니다. 아침보다 파고가 약간 더 높아졌고 물은 더 많이 들이치지만 갈 길이 멀고 피곤하여 잠이 쏟아집니다. 꼬박꼬박 졸며 40여분 만에 말라타파이 항에 도착했습니다. 3시40분. 옷이 완전히 젖었네요. 젖은 몸으로 지프니 맨 뒤에 매달려 가면서 바슬라이Baslay온천이 있는 다우인Dauin에 도착했습니다. (10페소)

하발하발(오토바이) 기사에게 온천 왕복 섭외를 했습니다.

“얼마 내실래요?” “우린 처음인데 얼마면 가실래요?”

한참 머리를 굴리더니 “500페소”라고 합니다. 어이없는 값이군요. 자기 입으로 걸어서 한 시간 거리라면서 겨우 4km거리 왕복에 500이라니. 우리가 돌아서 길을 내려가자 다시 200페소로 낮춥니다. 갑자기 300페소나 떨어집니다, 그마저 포기하고 다른 기사를 찾아보려 길을 나서니 쫓아오면서 150페소가 어퍼냐고 합니다. 자기는 4인승인데 너희는 두 명이다 어찌고 하면서. 마눌님이 다른 기사를 알아보려 하는데 다른 기사들이 우물쭈물 그 사람 눈치를 보는 듯합니다. 편도에 200페소를 부르네요. 다시 그 사람에게 가서 가자고 하니까 사람들 몰려 있는 분위기가 심상찮은데다 아까와는 달리 150페소 편도라고 말을 바꿉니다.

온천 가나 안가나 그만인데 이런 상황이 되는 게 못마땅하여 ‘쏘리, 우리 포기할게요. 하고 그냥 두마게띠로 돌아왔습니다, 다우인-두마게띠 노선 지프니는 종탑 앞 공원이 종점이라서 아침과는 달리 걸어서 숙소에 올 수 있어 좋네요. (지프니 행선지마다 종점이 다릅니다)

1월16일(토) 두마게띠

아침에 일어나 망고 먹고 만화를 본다. 오늘은 남편이 8시가 넘도록 자고 있고 딱히 갈 곳도 없어서 그냥 쉬기로 한다. 만화 ‘산’은 다시 보아도 감동적이다. 12시에 나가서 로빈슨까지 걸어간다. 제일 더운 시간이지만 별로 걷지 않은 여행이라 걸어 본다. 하드도 먹고 갓 구운 빵도 사 먹으며 간다. 로빈슨은 크지만 보홀의 아일랜드 시티처럼 가게들이 입점해 있고 별로 볼 것이 없다. 주말이라서 인지 사람들이 많다. 푸드 코트에서 먹는 점심도 리 플라지만 못하다. 도가니탕 같은 것과 밥, 계, 야채 튀김, 해물 볶음을 먹는다. 이 지역의 과자점으로 꽤 유명한 곳인지 사람들이 바리바리 사가는 가게에서 납작한 호떡 모양 2개를 먹었다. 영판 중국 호떡 맛이다. 나오려다가 신발가게에서 남편이 신을 수 있는 형태의 슬리퍼 2개를 샀다. 걸어오려다 트라이시클 타고 2시 반에 숙소에 온다.

만화보고 쉬다가 4시 반에 해가 한풀 꺾여 리잘 대로에 간다. 바닷가의 모습이나 주변 풍광이 남인도의 폰티체리와 똑 같다. 필리핀이라고 여겨지지 않는 곳이다. 도시 사람들답게 조깅도 하고 산책을 나오기도 한다. 고구마를 책받침 모양으로 넓고 얇게 튀겨 설탕을 입힌 간식을 사 먹는다. 바다에서 좀 냄새가 난다. 이 도시에서도 우리나라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드물게 중국인들이 있다. 과일시장에서 망고 2kg를 사고 찢 옥수수 한 개 산다. 리 플라자에 가방을 맡기고 들어간다. 왓슨에서 남편의 신발 깔창을 사고 푸드 코트에서 딤섬과 춘권 튀김으로 저녁을 먹은 후 할로 할로를 먹었다. 남편이 가방 맡기는 카드를 분실하여 30을 물고 찾았다. 누가 가방을 가져가지 않아서 다행이다. 벌써 3일 째 같은 가방을 맡기니 우리가 번호를 몰라도 알아서 갖다 준다. 걸어서 숙소에 오니 그새 방을 치우고 있다. 날마다 수건과 시트를 갈아 준다. 이렇게 깔끔하게 치워주는 집은 처음이다. 내일은 이 도시를 떠나야겠다.

딱히 할 일이 없다. 모알보알로 가야할지 다른 어디로 가야할지 일단은 갈 생각이다. 쉬다가 로비에서 시키홀 숙소 2일, 모알보알 숙소 2일을 아고다에서 예약했다. 이제 마닐라 이전의 일정은 모두 예약을 끝냈다.



그림 35 두마게띠 리잘보도

시킴홀 Siquijor

1월17일(일) - 두마게띠 - 시킴홀

아침 6시에 일어나 망고 1.5kg 분량을 다 잘라서 통에 넣어 둔다. 남편이 일어나 배 시간을 검색하더니 7시 반에 배가 있단다. 부리나케 짐을 챙겨서 7시에 나왔다. 8분 정도 걸어 두마게띠 항에 온다. 그러나 배는 6, 7, 8시, 8시 반에 있었다. 8시 GL라인을 끊고 기다린다. 8시 15분에 배가 출발하여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달린다. 쾌속선인데 자리가 아주 좋다. 냉방은 아니지만 창이 뚫려 있어서 바람이 추울 정도로 들어오고 약간의 잔물이 튀기도 한다. 모두들 즐고 있다. 자리가 불편한데도 잘 수밖에 없다.



그림 36 시킴홀 항에서

9시 반에 도착한다. 시키홀은 오랜 시간 퇴적되고 깎인 지형으로 산이 낮고 해변은 넓게 모래가 펼쳐져서 얇았다. 멀리까지 물이 빠져서 모래와 초록빛의 해초들이 드러나 환상적인 풍경이었다. 멋진 그림 같다. 1일에 350 하는 오토바이를 300에 깎아 빌리고 예약한 다스트하우스에 왔다. 정원이 넓고 아름다운 멋진 주택이다. 방은 큰 침대에 정원을 향한 큰 창이, 에어컨이 있다. 욕실과 화장실은 분리되어 있다. 옷을 갈아입고 바다에 갈 장비를 챙기다가 카메라가 없다는 걸 알았다. 다 뒤져도 없다. 부두에서 사진을 찍고 그 다음은 찍은 적이 없다. 오토바이를 빌리며 주변 어딘가에 둔 듯해서 부리나케 나가 여기저기 물어 보았다. 모두 못 봤다고 한다. 다시 숙소에 와서 가방을 뒤지니 중간 가방의 바깥 옆구리에 들어 있었다. 잃어버린 줄 알고 놀랐다. 만약 없어지고 나면 핸드폰으로 찍어야 한다. 캐닝 때는 물에 들어가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찍을 수 없다.

11시에 나가서 부두의 사람들에게 찾았다고 알려 주었다. 동쪽으로 간다. 달리면서 보는 얇은 바다의 풍경은 환상적이다. 열대의 바다를 그럴 때 적절하게 배와 산을 배치한 것 같은 그림 속의 풍경들이 펼쳐진다. 너무나 아름답지만 스노클링하러 들어간다면 한없이 나가야 할



그림 37 시키홀 동부 해안도로

것이다. 몹시 비현실적인 장면들이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과 햇볕 가릴 그늘이 거의 없는 도로는 자글자글 끓는다. 따끔할 정도다. 라레나에 온다. 장흥의 용산면 같다.

작은 식당에서 점심을 간단히 먹는다. 라레나 항구의 인포에서 복사된 섬 지도를 얻었다. 바로 옆에 카페가 있다. 포스터에 더블 버거 2개를 시키면 작은 버거가 무료란다. 150 이다. 앉아서 내린 커피

한잔과 작은 햄버거를 먹는다. 수제라 푹푹한 맛이 있고 빵은 묵직하다. 커피는 동남아 것과 비슷한 맛이다. 처음으로 내린 커피를 마시기 때문에 남편은 소중하게 먹는다. 더블 버거 2개는 도시락으로 썼다. 이쪽 항구가 더 현대적이다.

쌀락퐁 비치로 향해 출발한다. 햇살은 점점 더 따가워 진다. 그나마 오토바이로 달리고 있어 시원하다. 순환도로에서 나무 그늘이 있는 작은 도로로 들어선다.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면 바위지형과 제법 빠르게 깊어지는 그림 같은 색의 바다가 있다. 딱 보기에 산호는 없어 보인다. 일요일이라 사람들이 무척 많았다. 바다는 들어가 보아도 물고기들이 약간 있을 뿐 볼 것이 없다. 모래와 수초뿐이다. 바다로 떨어지는 미끄럼틀은 수리 중이었고 대신 곳곳에 다이빙대가 있다. 다이빙을 할까 말까 망설이며 한참을 서 있었다. 결국 남편은 두 번 뛰어 내리고 나는 하지 못했다. 5미터 정도에서 깊은 바다로 뛰어내리는 것이 쉽지 않다. 남편이 떨어지는 충격이 있고 코로 물이 쑥 들어와서 결코 기분 좋은 체험은 아니란다. 두 번 다이빙 후 계속 콧물을 줄줄 흘린다. 많은 학생들이 놀러와 다이빙을 하고 있었다.



그림 38 쌀락퐁 비치 리조트. 해변이 두 개다

짐을 챙겨 3시에 카구수안 비치를 찾아간다. 훨씬 시골스럽고 길이 좋지 않다. 표지판을 찾을 수 없어 헤매다가 겨우 찾아왔다. 계단으로 내려가면 모래사장이 펼쳐진다. 볼음도 뒤편 같다. 바다가 아름답고 사람이 적다. 그러나 들어가면 수초만 그득하다. 한번 들어갔다 나와서 해변에서 파도에 씻긴 조개껍질 몇 개를 주웠다.



그림 39 카구수안 비치

해가 서쪽으로 많이 기울었다. 시간이 꽤 되어서 다시 캄부가하이 폭포에 간다. 많은 폭포를 보았기 때문에 비슷하겠지 싶었다. 5시 15분 전이다. 그런데 마감 시간이 5시 였다. 깊은 물이 있어서 위험하다며 가이드라는 사람을 따라서 가야 한단다. 계단을 내려가면 3단으로 옥색 물빛의 고운 폭포가 펼쳐진다. 환상적이다. 물의 성질은 투말록 폭포 같은데 따뜻한 편이다.



그림 40 캄부가하이 폭포

가이드라는 사람이 타잔 줄을 타봐라 사진을 찍어라, 찍어 준다, 어디는 들어가지 말아라, 들어가라 해대니 정신이 없다. 그런데 말할 수도 없게 말을 계속하며 우리를 끌고 다닌다. 잠시도 틈을 안주고 떠든다. 포즈를 취해라, 서라 하며 계속 사진을 찍고. 잠시라도 편히 물에 있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다. 겨우 15분이나 있었을까. 돌아오며 100을 달란다. 그러나 작은 돈이 30 밖에 없어서 그것만 주었다. 끝나는 시간에 와서 아쉬웠다. 내려와서 라지항에 간다. 마을의 포구이다. 젖은 옷도 좀 말리고 숨을 돌리며 햄버거를 먹는다. 빵이 좀 부드러워져서 먹기에 조금 나아졌다. 꽤 밀도가 있고 집에서 만든 것 같은 맛이다. 졸리비에서도 제일 싼 것이 30이나 하는데 가장 작은 버거의 가격이 40 이었다. 더블은 75이다. 이 버거는 먹으면 속이 든든해진다.

해가 넘어가는 것을 보고 5시 반에 남은 섬을 돌기 위해 출발한다. 열심히 달린다. 옷이 젖어 꽤 춥다. 낮의 햇살이 뜨거우니 해진 후의 노을이 더 아름답다. 노을에 물든 하늘을 중간 중간 서서 찍으며 또 달린다. 특히 야자수와 해변, 하늘은 환상적이다. 꿈인지 현실인지 모를 것 같은 멋진 모습이다. 하늘에 멀리까지 붉은 색에서 푸른색으로 그라데이션이 펼쳐진다. 적은 몸은 점점 더 추워진다. 낮에는 폭염, 밤에는 얼어 죽을 판이다. 섬을 한 바퀴 돌고 90 킬로 정도를 달렸다. 우리처럼 섬을 일주하는 오토바이들이 많았다. 시키홀은 필리핀에서 두 번째로 작은 까미귀 다음인 세 번째 작은 주이다. 항구 부근의 바닷가는 두마게티의 호세 리잘 거리를 축소한 것 같은 모습이다. 바닷가에 꼬치집들이 차려진다. 돼지고기, 간, 소시지 꼬치와 밥을 먹는다. 꼬치를 더 사고 오텡과 곱창구이도 샀다. 맥주와 물, 수박을 사서 8시 반에 숙소에 온다. 그런데 마을이 정전이다. 밝은 반달이 길을 환하게 비추고 있다. 달빛에 나뭇잎들, 야자수 잎이 반짝인다. 달빛도 좋고 별도 많다. 숙소에서 랜턴을 켜고 대충 물로 씻는다. 일기를 거의 다 쓸 무렵 불이 들어왔다. 일찍 잔다.

1월18일(월) - 시키홀

아침 5시 반에 일어나 일기를 친다. 수박은 쪼개서 통에 담아 놓았다. 6시 45분에 남편을

깨워 오늘 일정을 의논하고 수박을 먹은 후 8시에 나간다.



그림 41 Guiwanon Spring park. 맹그로브 보호공원

항구에서 배 시간을 확인한 후 동쪽으로 달린다. 바닷가에 맹그로브가 자라고 있는 귀와논 스프링 파크 Guiwanon Spring park에 온다. 어디에 스프링이 있을까 싶다. 사람이 들어가서 놀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맹그로브가 뻗뻗하게 자라는 사이의 4미터 정도의 공간에 얇게 물이 솟구치고 있었다. 약간 떨어진 곳의 작은 스프링에서는 아줌마가 빨래를 한다. 이 민물은 바로 바다로 흘러간다. 해초와 맹그로브가 어우러진 바다가 야트막하게 펼쳐진다. 나무 위에 작은 집들이 있고 250에 빌려준다. 지금은 모든 것이 쇠락한 듯 보인다. 여기서 잔다면 매우 낭만적이겠지만 습기와 모기가 대단할 것이다. 이른 아침이라 우리 밖에 없고 한적했다. 보이는 풍경은 리조트 급으로 멋지다. 맹그로브는 많은 이파리를 바다에 떨어뜨려서 먹이를 생산해주고 물 속 생태계를 만든다. 물고기를 키우고 물을 정화하며 태풍과 해일의 피해를 줄인다. 맹그로브 숲은 인간에 의해 빠르게 파괴되어가고 있다. 섬을 가로지르는 내부 도로로 접어든다. 낮은 산이지만 오를수록 시원해진다. 구름이나 평지가 펼쳐지고 사람들도 제법 많이

살고 있다. 길은 계속 뒀는 중이다. 산을 넘어가 캄부가하이 폭포에 다시 간다. 아침에 갔던 스프링에도 들어갈 줄 알았고 이 폭포에도 다시 들어가 수영하고 놀려고 했다. 그러나 위쪽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 하수가 이 계곡을 따라 내려올 것이다. 이런 상황을 알고는 들어갈 수 없었다. 예쁜 물과 폭포 사진만 찍고 내려간다.



그림 42 올드 발렛 트리

올드 발렛 트리에 온다. 거대한 반얀 나무는 이 섬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라고 한다. 뿌리 근처에서 물이 고여 있어서 발을 담글 수 있게 만들었다. 물고기들이 와서 각질을 뜯는다. 남편의 발에 많이 붙는다. 그런데 발등의 까진 부분을 계속 뜯어 피를 내게 하고 교대로 멧힌 피를 먹는 거다. 방울방울 맺히는 피가 맛있나보다. 타일로 앉는 자리도 잘 만들어 놓았는데도 입장료가 5이다. 겨우 책상 하나 놓고 입장료를 받는다. 20분 정도 앉아 있다가 가게의 밥집에서 여주, 돼지고기, 꿀뚜기와 밥을 먹었다. 반찬은 모두 25이다. 꿀뚜기를 더 사먹었다. 잘 만드는 집이다.

순환도로에서 해안으로 내려간다. 해가 몹시 뜨겁다. 바다는 얕아 수영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계속 달려 다른 마을을 지난다. 냉장고가 있는 가게에서 골든 이글이라는 1리터 맥주를

55에 산다. 남편은 처음 보는 이름이고 이렇게 값싼 맥주도 처음이란다. 가져온 병에 나누어 담는다. 달리다가 피넛 스페셜이라고 쓴 간판을 보고 땅콩강정과 크런치를 산다. 직접 만드는 집이다. 여기 특산물이다. 강정이 두마게티 부두에서는 무척 비쌌다. 맛이 좋다. 산호세에서 바나나를 사고 바닷가에 나가 본다. 무지 뜨겁게 더운 날인데다가 이 섬은 바다가 전체적으로 얕다. 그래서 수심이 확보되는 찰락퐁이나 카구수안 비치에 가는구나 하고 느낀다. 아무도 이 햇볕에 바다에 들어가지는 않는다. 한없이 얕은 바다라 다이빙도 좀 나가야 할 수 있다.

더워서 제발 들어갈 수 있기를 기대하며 카필레이 스프링을 찾는다. 산호세 시내의 길 바로 옆의 공원이었다. 크고 수심도 깊지만 공공시설로 관리가 안 된 물이었다. 나뭇잎과 미세한 부유물들이 떠있다. 애들만 몇 명이 들어가서 놀고 있다. 사람들은 와서 사진만 찍고 간다. 덥고 졸리다. 스프링이라는 이름의 두 군데, 폭포, 바다가 다 들어갈 수 없는 형편이 되어 당혹스럽다. 도구는 잔뜩 지고 왔건만 뭔가 싫다. 섬이 낮으니 까미권의 높은 산자락에 펼쳐진 폭포나 스프링들과는 매우 다르다.



그림 43 루그나손 폭포에서 다이빙하는 청년들

마지막으로 물에 들어갈 수 있기를 고대하며 루그나손 폭포에 간다. 공으로 들고 다니는 핀과 스노클이 무겁다. 폭포는 역시 입장료가 없다. 안내를 해주겠다고 나서는 청년이 있어서 사양했다. 우리끼리 쉬고 싶다고 했다. 내려가는 길에 어제 다이빙대에서 만난 여학생을 다시 만났다. 내가 먼저 뛰어내리면 뛰겠다고 했었다. 나는 못했지만 이 여학생과 남자친구는 구명조끼를 입고 뛰어내렸다. 젊어서 용기가 있다. 폭포는 상류 쪽에서 걸어 내려간다. 7미터 정도의 높이에서 남자 애들이 뛰어내리고 있다. 물을 막아 깊이가 4, 5미터가 된다. 천연수영장을 만들었다. 옥색 물빛에 깊이가 가늠되지 않는 석회질의 물이라 선뜻 들어가기가 망설여진다. 물은 차다. 몇 번 수영을 한다. 누워서 떠 있기도 하고 폭포 가까이 가기도 한다. 수영할 공간이 넓지는 않고 무엇보다 추워서 오래 있을 수가 없다. 그래도 마지막에 몸을 담글 수 있어 얼마나 다행인가 싶다. 더위도 식히고 좋았다. 오늘은 순환도로를 돌아가지 않고 지름길로 넘어왔다. 시장에서 바나나를 더 산다. 여기 바나나는 정말 달고 맛있다.

씻고 빨래를 해서 밖에 널었다. 환할 때 오니 여유 있고 좋다. 일기를 쓰다 보니 해가 거의 넘어간다. 5시 반에 나가서 시내를 돌며 지리를 파악하고 슈퍼에서 아까 샀던 땅콩 크런치를 35가 아닌 33에 산다. 생산한 곳보다 더 싸다니... 숙소의 아줌마가 추천해 준 세부 스페셜이라는 식당에 간다. 스윗 앤 사우어 포크, 소고기, 샤오마이, 콩각지 반찬에 밥 하나 먹고 스윗 앤 사우어 피쉬를 시킨다. 맥주도 80 밖에 안한다. 편히 앉아 먹을 수 있고 가게보다 더 싸다. 남은 것은 싸왔다. 바닷가에서 좀 거닐다 들어왔다. 아직 7시 반이다. 일찍 잔다.

1월19일(화) - 시키홀 - 두마게티 - 릴로안 - 바투 - 모알보알

새벽 2시 반에 일어나 일기를 치고 4시 반에 잔다. 6시에 일어나 짐을 싣는다. 7시에 오토바이를 타고 나간다. 그런데 뒤 타이어에 펑크가 나있다. 남편이 혼자 부두의 아저씨에게 다녀왔다. 오토바이를 맡기고 걸어오느라 땀을 흘리며 들어온다. 9시 반에 고쳐서 숙소에 갖다 준다고 한다. 만화 보며 기다린다. 8시 15분에 숙소로 갖다 주었다. 고친 비용 30은 오토바이를 반납할 때 내라고 한다. 나가서 동굴을 찾아 산길을 오른다. 멀리 바다가 보이고 시원하다.

길을 잘못 들어 오르기도 하고 다시 방향을 잡아 오르다 점점 길이 좁아져 도저히 오토바이로 갈 수 없는 오솔길을 만난다. 시간이 벌써 9시이다. 찾는 것을 포기하고 내려온다. 숙소에서 짐을 챙겨 항구에 온다. 주인은 없다. 기름이 아직 2리터 이상 남아 있어서 타이어 수리비와 통치기로 하고 10시 GL라인 배에 오른다. 사람이 무척 많다. 바다에 파도가 꽤 일렁이는 날이다. 자 버린다. 파도가 쳐서 시간이 지체되었는지 11시 25분에 두마게티에 도착한다. 걸어서 인슐라 호텔이 함께 운영하는 KRI 레스토랑에 왔다. 남편은 어제 밤에 체한 것이 그대로라고 한다. 앞의 약국에서 소화제를 사 먹으려고 했는데 마땅치 않았다. 손을 따보아도 피가 별로 안 나온다. 팟타이와 생선비빔밥을 시켰다. 그런데 남편이 못 먹는다. 내가 팟타이만 먹고 비빔밥은 통에 담았다. 남편은 뜨거운 물만 마신다. 12시 반에 지프니를 타고 항구에 온다. 12시 50분에 도착한다. 바다에 파도가 높아 출발시간이 지체되는지 1시 배는 1시 15분에 출발한다. 엄청 출렁거리어서 놀이동산의 바이킹 같았다. 큰 방카보트가 절반 가격으로 가기도 하는데 더 놀이기구 같은 것이다. 흐름에 몸을 맡기고 잔다. 배 멀미는 없어진 것 같다. 그 파도 속에서도 15분 만에 릴로안에 도착한다. 트라이시클을 타려다가 세레스 라인 버스가 와서 타려고 달려가니 기사가 자꾸 트라이시클 타기를 권한다. 같은 라인을 가고 있어 나름 배려 차원이 아닐지... 70에 트라이시클로 바도에 온다.



그림 44 바토 버스터미널

20분 정도 기다려서 2시 15분에 버스가 출발한다. 맨 뒤의 양쪽 끝자리에 앉았다. 버스는 바닷가를 끼고 달린다. 오늘은 구름이 끼고 바람이 불어 냉방버스가 아니어도 시원했다. 계속 잔다.

1시간 40분 만인 3시 55분에 모알보알에 왔다. 예전보다 시장이 많이 커졌다. 아주 시골이었는데 이제 꽤 규모의 장소가 되어 있었다. 남편이 먹지 못해서 망고 가격만 물어본다. 110이다. 대로변으로 나와 시들어가는 망고를 2kg에 100에 산다. 트라이시클을 60에 흥정하여 시스터 인에 온다. 샤워하고 싸 온 비빔밥을 먹는다. 5시에 바닷가로 나간다. 좀 떨어져 있다. 해가 넘어가서 걸을 만하다. 바닷가는 호텔들이 장악하고 난개발 되어 정신이 없다. 계속 여기저기에서 공사 중이다. 예전의 모습을 찾기가 쉽지 않다. 그래도 예전에 묵었던 곳을 찾았다. 썬샤인이라는 이름이었다. 해변으로 나가기도 쉽지 않은 뺨뺨한 건물들을 지난다. 내일 캐너닝을 예약할 장소를 찾았다. 이미 6인이 예약되어 있어서 추가되는 우리는 2,500을 2,000에 할 수 있었다. 좁은 골목으로 빠져나가서 바다에 간다. 해변에 바짝 진출한 건물들 때문에 모래 해변이 거의 없다. 마구 개발되어 사람이 많아져 수질도 안 좋다. 해지는 풍경을 보고 마을 끝까지 한적한 곳을 향해 걸어가 본다. 덥고 습하다. 바닷가에 잠깐 앉아 있다가 돌아온다. 남편은 여전히 속이 안 좋다. 오다가 스프라이트를 천천히 마시게 한다. 물을 사고 숙소로 와서 씻고 쉰다. 망고 2kg를 까서 통에 담는다. 남편이 약간 먹었다. 크기가 작은 망고는 살이 별로 없어서 까기에 번잡하다. 큰 걸 사야겠다. 마지막으로 마닐라 숙소를 예약했다. 내일은 캐너닝을 하기 위해 아침 9시 까지 가야한다.

(INFO) 시키홀 섬을 다녀보자 by anakii

출입

시키홀 섬의 항구는 시키홀Siquijor과 라레나Larena. 두마게띠항에서 두 항구로 다니는 페리와 고속선은 여러 회사가 있으며 보통 아침 6시 첫배다. 가격은 배마다 다르지만 시키홀 항까지는 100~130 라레나 항까지는 140~170. (2016.1월) 오션 젯, GL라인이 빠르다.

(1.3시간)

특히 라이트 쉬핑사에는 세부에서 출발해 보홀 섬의 딱빌라란, 두마게띠를 거쳐 시키홀 또는 라레나로 연결되는 편이 있으니 만일 시키홀에서 보홀로 간다면 배편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무냉방의자석, 무냉방 눕는 자리, 에어컨 눕는 자리, 4인실 에어컨 등 다양한 옵션)

Accommodation	Larena - Plaridel	Larena - Tagbilaran	Larena - Cebu
Economy Class (sitting non-aircon)	335	215	340
Standard Class (lying non-aircon)	390	270	350
Tourist Class (lying aircon)	480	430	440
Cabin Good for 4 Persons (lying aircon)	560	470	640

그림 45 라레나 항구의 라이트쉬핑 사 요금표

교통/지도

약 80km 길이의 섬 일주 도로가 있다. 시키홀에서 출발하면 동쪽으로 도로를 따라 10km지점에 라레나, 20km쯤에 엔리케 빌라누에바 Enrique Villanueva, 38km쯤에 마리아 Maria, 50km쯤 라지 Lazi, 70km쯤에 산후안 San Juan이 있고 산후안에서 11km쯤 달리면 다시 시키홀에 도착한다. 일주하는데 오토바이로 약 두 시간 정도 걸린다.

일주 도로에서 각 관광지로 이어지는 소로가 있고 섬 남쪽의 라지에서 북쪽의 라레나 부근으로 산을 넘어 섬을 종단하는 도로가 있다. 가운데 산이 높지 않아서 쉽게 종단 가능하다. (도로에 가로등 없으므로 밤에는 가급적 출입 금지)



그림 46 시키홀 관광지도

시키홀 항 바깥쪽에 몇 군데 바이크 렌탈샵이 있어서 항구에 도착하는 즉시 바이크를 빌려 반납일시를 정하고 숙소로 향하면 시키홀 내 맘대로 투어가 훨씬 편해진다.

(300페소/24시간)대중교통을 대절하는 경우, 시키홀 각지의 트라이시클, 밴 규정요금이 항구에 크게 적혀 있으니 참고하면 된다. (시키홀 항에서 13km거리에 떨어진 산후안이나 라레나 타운(10KM)까지 250페소. 섬 남쪽의 라찌까지는 500페소. 시키홀 타운 안은 50페소. 위키트래블에 적힌 것에 비해 트라이시클 가격이 5배 정도 올랐다.)

지역 정보

- 라레나 항

시키홀 항보다 체계적이고 잘 정리된 느낌의 항구. 항구카페, 특산물샵도 있고 인포에서 복사된 시키홀 지도를 구할 수 있다.

- 귀와논 스프링 파크 Guiwanon Spring park

이름과는 달리 실제로는 맹그로브 해변 숲 보존지역이다. 해변에서 맹그로브가 자라는 모습, 민물이 솟아나는 모습, 맹그로브의 환경적 가치 등등을 교육하는 곳. 숙소도 있지만 거의 사용되지는 않는 듯 하다.

맹그로브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었던 내게는 최고의 장소였다!

- 살락동 비치 Salagdoong Beach

비치리조트숙소가 운영하는 작은 워터 파크. 원래는 바다로 낙하하는 미끄럼틀로 유명했는데 지금은 고장으로 막아 놓았다. (하지만 옆으로 올라타서 미끄럼은 탑니다) 2m, 5m, 7m정도 높이의 3가지 다이빙대가 있어서 바다로 다이빙할 수 있다.

5m 다이빙대에서 청년들이 신나게 바다로 다이빙하는걸 보고 나도 다이빙대에 올라섰다 돌아섰다 망설이길 거의 30분. 결국 에라 모르겠다 하고 뛰어들어 풍덩했는데 재미있다가보다 두려운 느낌. 한 번 더 해 봤지만 망설이는 시간만 확 줄어들었고 눈을 뜨고 떨어졌을 뿐 신나게 다이빙하지는 못했다.

해변은 두 곳. 적당히 깊고 맑은 물이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해수욕한다. 스노클링해 보면 그냥 물풀과 물고기 몇 마리. 볼 건 없지만 스노클링 연습하기엔 좋은 해변이다. 일요일이라 임대용 샬레(100페소)들에는 먹을 것 바리바리 싸들고 온 현지 가족들로 붐볐다.

- 카구수안Kagusuan 비치

절벽을 계단타고 내려가면 비치가 나온다. 예쁜 바위와 아름다운 물빛. 한적하고 적당히 그늘도 쉼 있어 간단히 물놀이하기에 아주 좋지만 역시나 스노클로는 물풀과 몇몇 모래에 적응한 물고기뿐.

일요일인데 현지인 5~6명과 외국인 십여 명이 물놀이하는 꽤 한적한 비치다.

- 캄부가하이 Cambugahay 폭포

얕고 아기자기한 3단폭포. 물빛은 옥빛. 맨 아래 폭포에 로프스윙이 있어 줄 타고 즐기기에 좋다. 입장료 없고 라이프가드 분들이 물놀이 안내해 주면 팁 좀 준비해 주면 된다. (50페소 정도. 100페소를 요구하긴 하지만.) 물이 불투명한데 웅덩이 바닥에 큰 돌들도 있어 다치기 쉬운 곳을 안내해 주고 사진도 찍어 주고 로프스윙도 탈 수 있도록 준비해 준다.

- 루그나손Lugnason 폭포

약 7m의 높이와 10m의 폭으로 떨어지는 폭포. 웅덩이는 수영할 수 있도록 흐름을 적당히 막아 3m 가량의 웅덩이가 되었다. 물은 석회성분으로 불투명한 옥색이고 폭포 군데군데에서 웅덩이로 다이빙하는 사람들이 많다. 깊고 바닥상태 확인이 안 되니 폭포 입구에서 대기하고 있는 가이드의 인도를 받으면 좀 더 안전하고 신나게 놀 수 있을 듯. 라이프가드에게 약간의 팁을 드려야 하며 폭포 입장은 무료.

- 올드 발레트 트리

백수십가지와 뿌리가 늘어져 있는 반얀나무. 시키홀에서 가장 오래 된 나무다. Fish SPA라고 팻말이 붙어 있으며 나무 아래 웅덩이는 닥터피시 같은 물고기들이 몰려와 사람들의 발 각질을 갉아먹는다.

입장료 5페소. 바로 옆에서 운영하는 밥집 반찬이 무척 맛있다 (각종 반찬 25페소씩)

- 카필레이 스프링 파크 Capilay spring park

산후안 시내 중심부에 있는 풀장. 카미긴의 맑은 풀장을 기대했지만, 그냥 도시 한 가운데 있는 대형 '못' 공원이다. 입장료 무료. 물고기들 노닐고 뿌연 물. 현지 청소년들은 물에도 들어가고 다이빙도 하는데 우리는 들어가기에 꺼려진다. 그냥 벤치에서 싸

간 점심 먹고 길을 나섰다.

숙박

항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Das Traum Guesthouse. 멋진 건물의 숙소이다. 방갈로, 에어컨룸 다 있고 마당이 넓으며 계다가 저렴하기까지. (300P~700P) 아고다에서 예약하고 가니 조금 더 저렴했다.

| 8 |

가와산 캐녀닝 Kawasan Canyoneering

1월20일(수) - 모알보알 - 가와산 폭포

새벽 2시 반에 일기를 치고 잔다. 아침 6시 반에 일어나 만화 보며 빈둥거린다. 남편은 망고를 줌 먹었다. 오늘 캐녀닝 후 식사를 할 때 남편이 먹지 못하면 싸오려고 통을 챙긴다. 9시에 캐녀닝을 예약했던 플래닛 어드벤처에 간다. 중국인 6명이 와 있다. 부부와 아들 둘, 남편의 친구 2명이다. 대만에서 왔다고 한다. 이 분들이 신발을 부실하게 신고 와서 가이드 아저씨가 챙겨준다. 우리는 아침에 미끄러지지 않는 신발에 양말까지 신고 왔다. 일찍 출발하지 않고 느적 느적 시간을 보낸다. 10시 정도에 탱크처럼 보이는 닭장차 같은 것을 타고 가와산 폭포에 간다. 가이드는 둘이다. 모알보알 읍에서 점심 먹을 재료를 싣는다. 맥주와 콜라, 생선, 돼지고기, 대왕오징어 등이다. 차가 시원하게 달린다. 가와산 폭포 아래 식당에서 짐을 놓고 입구 사무실에서 서명을 한다. 사람이 많다. 차는 산길을 올라 비포장도로에 접어든다. 사람 걸음만큼 느리게 간다. 상류 입구에 도착하면 입장료를 내고 다시 서명을 한다. 현지인들도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대중적인 것이 된 듯하다.



그림 47 가와산 캐녀닝 등록

폭포 상류의 출발지점에 선다. 11시 정도가 되었다. 처음부터 다이빙이라 줄이 밀렸다. 젊은이들이 뛰어내리고 있다. 처음 하는 다이빙이라서 얼떨떨하지만 내가 물에 빠져야 그 다음 단계로 내려갈 수 있어서 4m 정도의 높이에서 뛰어내린다. 헬멧과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고 가이드가 떨어질 지점을 지도 해준다. 큰 소리로 하나, 둘, 셋, 점프라고 외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들어간다. 물에 들어갈 때 충격이 있어 얼떨떨하다. 일단 들어오면 다른 사람들이 뛰는 것을 물에 누워서 구경한다. 똥똥 떠다니며 지켜보는 맛이 있다. 25도 정도의 차고 깨끗한 옥빛 물 색깔이고 깊이는 알 수가 없다. 계곡을 타고 내려오면서 다양한 점프를 하고 깊은 물에서 배영이나 평영으로 헤엄을 친다. 앉아서 미끄럼으로 내려오거나 누워서 빠지기도 한다. 대만아줌마도 씩씩하게 잘 한다. 그래도 여자들은 6미터 정도까지에서 점핑을 하고 남자들은 7m에서 10m 정도의 다양한 높이에서 뛰어내린다. 햇볕이 들지 않는 협곡이다. 석회질이 녹아내려 동굴의 석주 모양을 만들고 있기도 하다. 물이 차고 햇볕이 없으니 가장 시원한 피서

장소이다. 수영하는 재미도 좋고 다양한 코스를 지나는 것이 잘 만들어진 놀이동산 같다. 앉아서 누워서 서서 점핑하는 것도 처음해보는 신나는 체험이다. 웃고 환호성을 지르고 떠내려가는 일을 계속한다. 남편은 먹지 못한 상황에서도 잘하고 재미있어 한다. 계속 물에 있어서 나중에는 추워진다. 좁은 협곡의 점핑하는 지점은 너무 높아서 나는 포기하고 약간 낮은 곳에서 뛰었다. 여기까지 꼬치를 굽는 사람들이 올라와 있다.



그림 48 계곡 탐사 중

걷는 지점에 접어들어 열대의 숲을 계곡의 옆길을 따라 걷는다. 제 1 폭포에 도착한다. 이곳에서 남자들은 거의 10m 정도 되는 곳에서 뛰어내린다. 남편도 잘한다. 헤엄쳐서 나와 그 다음 장소로 걸어 내려간다. 숲에는 카카오나무가 자라고 있기도 하다. 원숭이가 나타나기도 한단다. 원숭이들이 카카오 열매를 따먹어서 작은 것 밖에 없었다. 걸어서 제 2폭포를 지난다. 어디든 깊은 풀장처럼 되어있다. 이곳도 크다. 아저씨와 가이드 청년은 친절하고 편안하게

안내를 해준다. 바다에서의 다이빙은 엄두가 안 났는데 계곡에서는 생각했던 것보다 별 어려움 없이 점핑을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려왔다. 물이 코로 혹은 들어와도 짜지 않으니 괜찮다. 제 3폭포는 가장 넓고 주변이 번잡하고 사람들이 많다. 엄청난 수량의 물이 있다. 본 것 중 규모가 가장 크다. 넓은 뗏목을 타고 물 맞으러 들어가기도 한다. 주변의 밥집들도 가격이 300 정도 하고 비싸다. 사람들은 음식을 싸와 먹으며 물에 들어가 논다. 세부를 대표하는 장소이다. 우리나라 유원지나 설악산 계곡의 풍경과 거의 똑같다. 야자나무나 바나나 나무만 아니라면 여름의 우리나라다. 오토바이가 끊임없이 사람을 싣고 다닌다. 많이 걸어 들어오기도 한다. 마지막 장소에서 6m 정도 높이의 다이빙을 한다. 햇살이 환해서 인지 위에서 볼 때 높아보여서 나는 안했다.

길 가의 식당에는 푸짐하게 바비큐로 점심을 차려 놓았다. 대왕오징어, 생선, 닭, 돼지고기를 기름 없이 바삭 구웠다. 감자와 밥, 맥주와 콜라를 준다. 원형의 큰 테이블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먹는다. 다행히 남편이 조금씩 꾸준하게 먹는다. 음식은 깔끔했고 후식 바나나까지 맛있게 먹었다. 통에 싸올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고 가이드와 기사들도 같이 먹기 때문에 남편이 먹을 수 있게 되어 참 다행이다.



그림 49 하루를 마치는 티타임

차로 돌아오니 4시가 넘었다. 인사하고 헤어진다. 아직 해가 뜨거워서 바닷가 카페에 간다. 남편은 아메리카노를 두 잔이나 마신다. 나는 로얄을 마셨다. 명당자리에서 네그로스로 해가지는 풍경을 보며 이야기를 한다. 남편이 어제부터 통증을 느껴 못 먹게 된 이유, 다이브 교육 때부터 오늘 캐너닝까지 이번 여행에서 느꼈던 것들을 말한다. 마지막 해가 있을 동안까지 덥더니 해가 넘어가고 살 만해진다. 아이들과 몇몇 사람들이 물에 들어가서 논다. 물이 오늘은 깨끗하고 시원해 보인다. 내일 이른 아침에 마지막으로 바다에 들어가 볼까 하는 얘기도 했으나 나중에 포기한다. 숙소에서 해변이 좀 멀다. 어두워져 돌아온다. 7시가 되었다. 씻고 옷을 빨아 낸다. 일기를 쓴다. 오늘은 배가 불러서 저녁을 먹을 수 없다. 1일 1식 하게 된 날이다. 오늘 찍은 사진과 동영상을 본다. 뛰어내릴 때는 약간 정신이 없고 물 깊숙하게 들어갔다 나오는 것 같은데 동영상을 보면 아주 쉽게 뛰어내리고 금방 나온다. 자기의 모습을 볼 수 있어 신기하다. 느끼는 것과 보는 것이 참 다르다. 오늘은 차 마신 것 말고는 물도 사지 않았다.

1월21일(목) - 모알보알 - 마닐라



그림 50 세부 타보-안 마켓의 에스더&길러 샵

아침에 일어나 만화를 보고 논다. 간밤에는 바람이 불고 시원해서 선풍기를 켤 필요도 없이 창문만 열고 잤다. 남편이 마닐라에서 짐 맡길 곳을 검색하여 찾아 놓았다. 우리가 도착할 남부터미널 부근의 건어물 시장도 알아놓았다. 아침 식사를 해 볼까하고 내려간다. 아메리칸 스타일이 195라니 별로 먹고 싶지 않아 올라온다. 11시에 짐 챙겨 나가 트라이시클로 모알보알 읍에 온다. 내리자마자 세부에 가는 에어컨 버스가 있어 길에서 바로 탄다. 11시 15분에 타고 떠난다. 줄며 간다. 산지를 가로 질러 서쪽에서 동쪽으로 온다.

2시 5분에 터미널에서 내린다. 걸어서 건어물 시장에 왔다. 쥐포 2kg, 한치와 망고를 1kg 산다. 서비스로 망고를 달라고 해서 약간 받았다. 택시로 SM시티에 온다. 트래블러스 센터에 큰 배낭을 맡기고 구경을 한다. 밖에 나가서 유명한 식당에 갈까 고민하다가 더우니까 우선 푸드 코트를 구경한다. 갈비국, 잭 푸르트 샐러드, 죽, 참치 아가미 부위 구이를 주문하여 먹는다. 음식들이 두마게티보다 많이 맛없다. 오늘 첫 식사인데도 돈은 비싸고 맛이 없어 먹기가 힘겹다. 생선도 싱싱하지 않고 완전히 선택이 잘못되었다. 입가심으로 비싼 젤라또 아이스크림을 2컵에 170이나 주고 먹는다. 정말 비싸다. 백화점에서 소비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부럽지 않게 돈을 쉽게 쓰는 것 같다. 돌아다니다 힘들면 커피 마시고 세부 시놀룩 축제 기념품 가게도 구경한다. 티셔츠, 수공예품, 기타 등의 다양한 부스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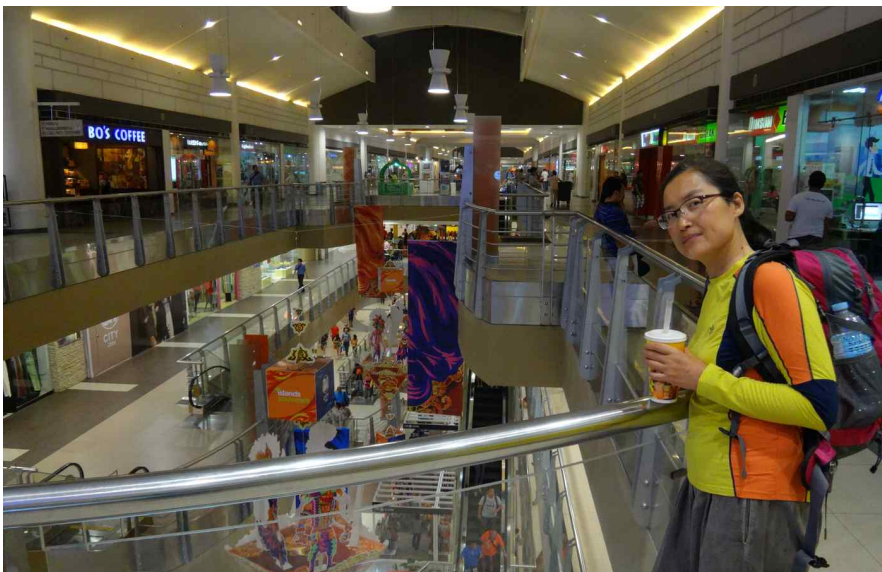


그림 51 씨놀룩 축제 말미다.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연질 플라스틱 재질 정장 신발 두 개를 남편 것으로 샀다. 저녁으로 중국 음식을 먹으러 간다. 닭섬과 볶음국수를 먹었으나 좀 자극적이고 국수는 찐다. 닭섬에는 조미료 맛이 많이 난다. 이 식당에는 가족 모임 하는 사람들이 무척 많았다. 남편이 음식 수준이 이 정도라는 것이 좀 실망스럽단다. 가격은 비싼 편이다. 남편이 배낭을 찾아왔다. 9시경에 나와서 택시를 한참 줄서서 기다린다. 막탄 공항으로 가자고 했는데 아저씨가 이상한 방향으로 가서 남편이 길을 잘못 들었다고 지적하고 나서야 다시 돌아와 공항 가는 길로 갔다. 왕복 6km나 엉뚱한 길로 갔다 왔다. 공항에 도착하여 남편이 180이면 올 것을 250이나 나왔으니 어쩔까 했더니 200만 달라고 했단다. 사기를 치려고 했던 건데 사과도 없다고 남편이 짹짹해한다. (괜히 도메스틱 터미널 간다 했나 보다. 인터내셔널과 도메스틱이 같은 곳인데 내가 도메스틱 간다고 하니까 길 모른다 생각하고 공항 지나 막탄 섬 남쪽으로 몇 킬로 가는 걸 지적하여 잡아 돌렸다. 이럴 때 구글맵이 정말 유용하다.)

공항에 짐 무게 재는 곳에서 적당히 짐을 배분하여 싸고 부친 후 들어가서 기다린다. 늦은 밤이지만 사람이 많다. 11시 50분에 떠나야 할 비행기는 연착하여 1시 50분에 떠났다. 졸다가 정신을 못 차리고 눈을 반쯤 감고 비행기를 탄다. 자다가 1시간 20분 만인 3시에 마닐라에 왔다. 인터내셔널 공항 출발하는 곳에 가서 의자에 누워 잔다. 공항 곳곳은 바닥 여기저기에 자는 사람으로 가득하다. 인도 같다. 철로 된 의자는 편편하지 않아서 누우면 몸이 배긴다. 자리가 불편하여 자는 건지 마는 건지 정신이 없다. 그래도 나는 잠을 잤는데 남편은 30분 정도 잤다고 한다. 자리도 그렇지만 공항은 냉방 때문에 자기에 추웠다. 낮에 땀을 흘리고도 몸을 씻지 못해 개운치 않다.

(INFO) 모알보알 캐녀닝 by anakii

2010년 잠시 들렀던 모알보알은 다이빙샵들이 꼼꼼히 해변을 틀어막아 해변으로 접근하기 힘든 기묘한 모습이긴 했지만 한적했었는데 6년 만에 상전벽해가 되었다. 타운은 웬만한 중소도시 중심 변화가처럼 복잡했고 다이빙샵들이 모여 있는 파낙사마 비치는 дай버들 이외 일반 다국적 관광객들로 북적였다. 필리핀의 다른 해변 관광지들처럼. 물가는 모알보알 타운에 비해 1.5배는 되어 보이고 2m에서 3.5m정도의 좁은 해변길 양쪽으로 다닥다닥 바와 레스토랑들이 즐비하다.

파낙사마 가운데 즈 플래닛 액션 어드벤처 Planet Action adventure에서 캐녀닝을 예약했다. 2500페소였지만 다른 팀에 합류하는 조건으로 2000페소로 할인(43.5달러). 홈페이지에 안내한 60달러보다 많이 저렴하다.

아침 9시에 모였다. 대만 사람 6명 팀에 우리가 끼어 8명 팀에 가이드가 둘이다. 준비로 시간을 지체하여 9시 40분 즈 시작했다. 장갑차처럼 생긴 액션트럭 뒤에 올라타 모알보알 타운에서 장을 본 뒤 가와산 폭포로 진입하는 바디안 마을까지 이동했다. 폭포 진입로 앞은 광장에 큰 교회가 자리 잡는 등 의외로 변화했고 폭포관광과 함께 캐녀닝이 대세인 듯 사방에 캐녀닝 안내 간판이 걸려 있었다. 필리핀 사람들에게도 캐녀닝은 대세란다. 바디안 현지 여행사를 통하면 더욱 저렴하게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광장 건너편 비치리조트에 점심 바비큐 꺼리와 짐을 맡기고 약간 더 남쪽의 캐녀닝 등록 사무소에서 이름을 등록했다. 여러 캐녀닝 팀들이 서로 다른 구명조끼와 헬멧으로 구분되어 있었고 일부 팀은 미리 구명조끼를 입고 오토바이로 캐녀닝 시작점으로 이동했다.

다시 트럭에 타고 15분 정도 산길을 올라가니 여러 팀들이 모여 대기하는 캐녀닝 시작시점이다. 시작 지점 근처에도 업체가 있는 게 보였다. 작은 간이 오피스와 구명조끼, 헬멧

등을 넣어 두고 옷 갈아입는 곳도 있다.

시작 지점에서 다시 이름을 기록했다. 한 서너 팀 30여명의 사람들로 북적인다. 시각은 11시 5분. 처음으로 계곡에 들어간 게 11시 20분 쯤. 4m 정도의 다이빙으로 시작한다. 앞서 온 팀이 적체되어 있다. 처음인 만큼 주저하는 사람들도 많다. 우리 팀은 별 무리 없이 다이빙으로 시작했다. 사진을 찍어 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막상 물에 떨어지는 순간은 몸이 한없이 깊이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느낌이다.

이 후 두 시간 남짓 다양한 높이에서의 다이빙(3m~8m)과 폭포 미끄럼, 수영 등 물 속에서 주로 시간을 보냈다. 높은 다이빙 지점은 해 볼 사람만 선택해서 하계끔 한다. 점점 추워지고 손이 곱을 즈음 카와산 3단 폭포 중 가장 위쪽 폭포에 다다랐다. 폭포는 높거나 크지 않지만 웅덩이는 무척 넓고 깊다. 발이 닿지 않아 구멍조끼를 튜브 삼아 배영과 평영으로 웅덩이를 건넜다.

조금 걸어 내려가니 2번째 폭포. 폭포의 높이는 10m이상. 웅덩이는 역시 넓고 깊다. 여기부터는 꽤나 유원지처럼 변화하다. 간이식당이 있고 수영하는 관광객들이 많다. 일부 팀들은 여기서도 다이빙을 하러 대기 중이다. 우리는 그 폭포를 지나쳐 내려갔다,

마지막 폭포. 아래서 올라오는 사람들이 처음 만나게 될 카와산 폭포다. 식당도 있고 폭포웅덩이에는 폭포 물을 맞으러 들어가는 뗏목도 있고 (300페소) 수영하는 사람들도 많다. 이곳의 모습은 영락없이 80~90년대 우리나라 유명 폭포 관광지의 모습이다. 폭포 웅덩이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물길 공사가 되어 있고 군데군데 물놀이하는 가족들이 많이 보인다. 지금까지 보았던 폭포 관광지 중 가장 변화한 모습이다, 역시 카와산 폭포는 세부 섬의 대표적인 유원지다.

마지막 폭포부터 주차장까지 1.5km의 길은 20여분 동안 걸어 내려왔다. 계곡에 들어선 게 11시 20분, 주차장에 도착한 게 2시 30분이다. 주차장 건너편 리조트에서는 점심 바비큐가 미리 준비되어 있었다. 아침에 시장에서 고기와 생선, 오징어 등등 장을 봐 왔고 이 리조트에서 조리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것 같다. 많은 팀들이 이곳에서 늦은 점심을 먹는다. 어제 아침부터 가슴 통증으로 한 끼도 제대로 못 먹었는데 조심조심 채소 샐러드를 듬뿍 곁들여 먹으니

조금씩 먹어 지니 다행이다. 식사를 마치고 모알보알 여행사 사무실에서 해산한 게 4시 10분.

| 9 |

마닐라

1월22일(금) - 마닐라 둘러보기

6시가 안된 시간이지만 일어나서 짐을 챙겨 밖으로 나온다. 공항택시 말고는 없다. 값도 비싸다. 국제공항의 택시내리는 곳에 와서 대기하는 택시를 탄다. 아저씨는 말라떼 거리의 우리 숙소를 모른다. 남편이 길을 안내해주어 원하는 곳에 내려 걸어서 6시 20분에 숙소에 온다. 방은 오후 2시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 짐을 맡기고 식당에 충전하며 앉아 있었다. 나는 계속 졸았다. 7시 반에 나와 말라떼 거리를 따라 내려가다가 동네 빵집에서 빵과 커피, 스프라이트를 마신다. 치즈가 든 도넛이 제법 맛있다. 갈 때 사가고 싶을 정도이다. 투어오피스들은 아직 문을 열지 않았다. 길에서 바나나 크레페도 먹고 걷는다. 비행기표 끊어주는 작은 투어사무실의 아저씨에게 여행에 대해 물으니 우리끼리 가는 방법을 알려주기고 하고 9시가 넘어야 사무실들은 문을 연다고 한다.

전철 1호선을 타고 바클라란에 간다. 한가하면 시원한 전철에서 자려고 했는데 사람이 엄청 많다. 내린 부근에는 시장이 있다. 한 정거장 거슬러 올라와 EDSA역 근처에서 딸 호수 가는 버스 시간을 알아본다. 3호선 타고 쿠바오에서 내린다. 매우 복잡하고 길은 교통 체증이 심해 주차장이다. 마닐라의 교통 상황은 심각하다. 잠깐만 걸어도 매연에 열기, 온통 검은 그늘음까지.. 3번 오지만 머물고 싶지 않은 곳이다. 시장이 부근에 있어 찐 옥수수도 사고 망고를 산다. 많이 지쳐서 졸리비에 가서 아이스크림과 커피를 마시며 쉰다. 코코넛 주스

1리터를 사고 다시 2호선으로 렉토에 내려서 필리핀 래빗 버스 정류장에서 피나투보 화산이 있는 앙헬레스 가는 교통편을 알아본다. 아침 6시 반에 첫차가 있다. 1호선 타고 두 정거장을 가서 스테이션에 내려 SM에 간다. 너무 지치고 힘이 들어서 비싼 커피점에 들어가 커피마시고 쉬었다.



그림 52 식민지시기 필리핀 지배층

내셔널 갤러리에 간다. 마닐라 대학 앞에서 오징어 튀김을 산다. 뮤지엄 입장료가 1인 150이나 한다. 스페인 식민지 시절의 옷차림이나 사람들의 생활, 일제 치하의 학살과 만행에 대한 그림, 종교화, 인상파 그림들, 추상화, 조각 등이 있다. 유럽의 영향을 받아 옷차림과 이름은 유럽식인데 얼굴은 필리핀 사람이니 보기에 참 독특하다. 필리핀 사람들의 생활을 볼 수 있는 박물관도 같이 들어간다. 4시에 나와서 지프니로 다시 말라떼에 왔다. 역시 투어 오피스들은 문을 닫았고 사람들에게 물어도 여행사를 찾을 수 없었다. 물과 맥주를 사고 5시 반에 숙소에 온다. 남편이 검색을 더 해보더니 여행자들이 몰려있는 거리는 세 블록 쯤 떨어져

있으니 가보자고 한다. 7시에 나가 열심히 걸어간다. 바와 한국식당이 많다. 겨우 호텔에 딸린 투어 트래블을 하나 찾았다. 딸 호수와 피나투보 가는 여행사는 여기에 없다고 한다. 친절하게 다른 지역의 여행사 전화번호를 알려 준다. 지금 찾아가도 퇴근했을 터이니 내일 아침에 가라고 한다. 내일 모레는 떠나야 해서 우리끼리 찾아가겠다고 하고 돌아온다. 꼬치 굽는 곳에서 곱창, 간, 돼지, 통집구이를 사와서 먹는다. 망고는 다 잘라서 통에 넣었다. 내일 주말이라 먼저 피나투보에 가기로 한다. 아침 첫차를 타려면 여기서 제공하는 식사는 먹을 수 없다. 아침의 빵집에 빵 사러 갔으나 8시가 넘어 문을 닫았다. 일기를 쓰고 빨리 자야겠다.

1월23일(토) - 앙헬레스 - 카파스 - 스파 타운

아침 5시에 일어나 샐러드, 빵, 망고 등을 챙겨 준비한다. 방을 정리하고 5시 50분에 나간다. 제공되는 아침을 먹지 못한다. 동네 맛집 빵집에서 치즈 도넛 4개를 산다. 이곳 사람들은 이 시간에도 바쁘게 움직인다. 가게는 다 문을 열었다. 지프니로 래빗 버스 정류장에 간다. 아침이라 길이 막히지도 않고 덩그러니도 없다. 어제 우리는 앙헬레스 가는 버스를 알아보고 있었는데 스파 타운에 가려면 탈락에 가는 버스를 타야했다. 7시에 버스가 출발한다고 한다. 6시 20분에 맨 앞자리에 앉았다. 페르시아 왕자를 틀어줘서 시원하게 앉아 보며 커피와 아침 빵을 먹는다. 시내를 벗어나 고속도로를 달린다. 넓은 평야지대가 펼쳐진다. 주변에 산이 없다. 앙헬레스를 거쳐 다우 터미널에 선다. 상인들이 연두색 옷을 맞춰 입었다. 차에 올라와 물건을 판다. 달걀인지 오리알인지 찢은 것 2개를 산다. 사고 나서 상인에게 물으니 둘 다 아니라고 하고 묘한 웃음을 짓는 것이 혹시 발룻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뜨거워서 까지는 못하고 넣었다. 부코파이 파는 상인이 아무지게 100에 팔고 간다. 점심 준비를 위해 산다. 9시 20분에 카파스에 내려 트라이시클을 흥정한다. 300이나 부르기에 200에 흥정하여 탄다. 오픈되어 있고 10시까지 갈 수 있다고 한다. 20km 이상의 거리를 열심히 달려 10시에 지프 타는 곳에 왔다. 그러나 아침 마감 시간은 7시였다. 정말 맥이 빠지는 순간이다. 아저씨가 오픈이라면서 장담을 했는데 아니다. 주변에는 딱히 갈 곳도 없었다. 스파 타운도 문을 닫았다고 한다. 내일 아침에

다시 오면 둘이 4,400이 들 거라고 한다. 차만 3,000이다. 가이드가 500, 입장료가 1인 450이다. 그냥 돈을 아꼈다고 생각하기로 했다. 산은 여기도 보이지도 않는다고 한다. 아저씨는 우리를 도로 데려가면서 돈을 벌려고 기다리고 있다. 약간의 압박을 가해서 지프니가 다니는 가까운 파틀링까지 태워다 주면 200을 주기로 한다.



그림 53 산티줄리아나 바로 아래 파틀링 마을

이 마을에 내려도 그냥 가촌인 작은 시골일 뿐 볼 것이 없다. 가게에서 맥주 하나 시켜 그늘을 차지하고 들어가 샤오마이와 오징어 튀김을 꺼내 먹는다. 뭐 의외의 상황이 나쁘지 않다. 달걀을 꺼내니 주인아저씨가 대뜸 “발룻!” 하는 거다. 아찔했다. 발룻은 분명 보라색일 것인데... 살 때 달걀 값으로는 약간 비싸 오리알이 아닐까 생각도 했었다. 현지인이 척 보고 말하는 게 분명 맞을 거라 남편이 불안한 마음으로 살살 까 보았다. 보기에 병아리가 아니다. 흰자가 있고 큰 노른자가 들어있다. 그런데 흰자는 쫄깃하고 노른자는 너무 크고 부드럽다고 한다. 남편이 거의 다 먹고 나는 약간 맛을 보았다. 10시 반에 점심을 먹은 셈이다. 더 할 일도 없어 지프니를 탄다. 동네 골목을 느릿느릿 돌다가 대로에서 좀 달린다. 더워서 마구 즐았다. 45분이 걸려 다시 제자리에 왔다.

날은 덥고 들어갈 곳은 맥도날드 뿐 이다. 들어가서 사람이 너무 많아 깜짝 놀랐다. 무슨 난민 캠프에 온 것 같다. 주문에도 한참 걸린다. 자리를 잡기도 어렵다. 아이스 모카를

주문한다. 오늘 운동회를 했는지 어린이들이 바글거린다. 주말이라 그러는지 유난히 사람도 많고 난리다. 커피 기계가 망가졌다고 해서 20분이나 기다린다. 이 나라는 맥도널드가 가장 성업 중인 나라이다. 빅맥이 5,000원 정도 한다. 미국이나 우리나라보다 비싼 나라이다. 가정부 월급이 7만원인 나라이다. 우리가 맥도널드에 자발적으로 와 본 것은 난생 처음이다. 다국적 기업이 여기서 돈을 쓸어 모으고 일회용 쓰레기도 엄청나게 생산한다. 닭 한 조각에 밥을 먹고 있는 어린이들을 보면 안쓰럽다. 모카커피를 마시고 화장실도 다녀온다.



그림 54 대박 붐비는 맥도널드 카파스 정선 점

맥도널드 앞에서 버스를 기다린다. 래빗 버스가 안와서 로날드와 기념사진도 찍었다. 맥도널드 매장 구경하러 여기 온 날이다. 너무 영업이 잘 되고 아이들이 많은 걸 보고 문화적 충격을 받았다. 매장에서 언제 래빗 버스가 오냐고 물어보니 3시에 온단다. 할 수 없이 쿠바오가는 버스를 탄다. 이 버스는 자주 온다. 평야가 마치 김포평야 같다. 모내기를 한 곳도 할 준비를 한 곳도 있다. 사람이 거의 없어 한가하게 앉아 쉬며 음악을 들으며 온다. 3시 30분에 쿠바오에 내린다. 시장에서 어제 산 망고 가게에 갔더니 너무 작다. 건너편에서 1kg 80에 2kg를 산다.

전철로 아알라에 내려 마카티에 간다. 이 지역은 쇼핑몰로 이루어진 큰 건물들로 끝이 없

다. SM을 시작으로 렌드 마크라는 곳에 간다. 여기서 스푼, 포크를 샀다. SM 슈퍼에서 샴마이, 굴, 초콜릿을 산다. 서울 비빔밥이라는 작은 식당에서 비빔밥과 잡채를 먹는다. 현지인들이 많고 맛있게 먹는다. 전철을 2번 갈아타고 온다. 물, 술, 꼬치를 사고 8시에 왔다. 드디어 내일은 떠나는 날이다.

| 9-1 |

(INFO) 피나투보 스파타운 다녀오기 by anakii

가는 방법

- 말라떼 지역의 Taft대로에서 모뉴멘토 방향(북쪽) 지프니에게 도로테오 호세 역 가는 지 물어서 타고 렉토역 또는 래빗 정류장에 내린다.
- 탈락Tarlac 가는 버스를 타고 카파스정선 Capas Junction 의 맥도널드 건너편에 내리면 많은 트라이시클들이 기다린다.
- 카파스 정선에서 4X4 출발지점인 산타줄리아나 마을까지는 23km, 트라이시클로 편도 200정도를 부른다.
- 시간이 있다면 산타줄리아나 아래 마을인 파틀링까지 지프니를 타고 가고 (30페소/인) 파틀링에서 트라이시클(4.5km, 대당 60페소)을 타고 산타줄리아나 마을로 가면 저렴하게 갈 수 있다. 파틀링 가는 지프니는 맥도널드에서 약간 남쪽으로 내려와 푸어골드 쇼핑물 앞에서 타면 된다. 10분당 1대꼴로 잤다.
- 피나투보 입산이 가능한 시각은 오전 10시 이전. 때때로 공군기지의 훈련 일정에 따라

오전 7시 이전으로 당겨지기도 한다.

- 입장료 450/인, 가이드비 500/팀, 4X4 차비(5명까지) 3000/팀. 4륜구동으로 1시간 30분동안 이동, 이 후 1시간 정도 분화호까지 트레킹. 단독으로 가려면 점심을 준비할 것. 최소 일인당 1~2리터의 물 준비.
- 피나투보 화산 투어를 만드는 현지여행사 링크

<http://www.pinaykeypoint.org/2009/01/mount-pinatubo-is-active-volcano.html>

(6시에 카파스에 있는 오피스 앞에 도착해야 함. 카파스에서 1박 해야 가능)

- 마닐라에서 피나투보 가는 데이 트립. 인당 2090페소. 하지만 한 달에 몇 회 정도로 드물다. <http://pinatubotours.blogspot.com/?m=1>
- 말라떼 지역의 여행사에서는 딸 호수와 피나투보의 데이 투어를 진행하지 않았다. (2016년 1월)

아침 6시에 숙소에서 나와 레빗버스터미널에서 첫차를 타려고 태프트대로에서 북쪽 방향의 지프니를 잡아탔다. 도로테오 호세 Doroteo Jose 역 가냐고 물어 올라타고 6시 15분경에 정류장에 왔다. 카파스정선 Capas Junction 가는 차를 물으니 탈락 Tarlac 가는 차를 일러준다. 이 차는 7시에 떠난다. 차에 올라 타 30여분 이상 기다렸다 출발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 (소형 173) 빠져 나와 얼마 안가 다우터미널에 도착한다. 터미널 잡상인들은 모두 MABALAKAT CITY라고 표시된 녹색 티를 입고 있다. 부코파이 5덩이를 100에 샀다.

가로수가 가지를 넓게 드리운 아름다운 길을 지나 다시 하이웨이에 오르고 10여분 후 탈락 접어드는 길로 빠져나가다 잠시 남쪽으로 향해 카파스 정선(맥도널드 건너편 칼텍스 주유소 앞)에 섰다. 가는 길에 맥도널드 간판이 계속 나왔다. (7시-9시15분)

“피나투보 가요? 트라이시클 타세요!”

“늦지 않았나요? 9시20분인데?”

“열렸어요. 가도 됩니다. 30분 만에 갈 거예요 300에 가요.”

“편도는 얼마예요?” “편도에 300이에요.”

어라?

“편도에 150은 어때요?” “하하하..” 기사들이 웃는다. “250주세요.”

그냥 가려고 하자, “마지막. 200주세요.”

그냥 그 값에 가기로 했다. 50이면 1300원. 여행의 성패를 걸 비용은 전혀 아니기에.

시골길을 시원하게 40분 달려 투어리스트 오피스에 갔지만 이미 입산금지시각. 오전 6~7시까지만 허용한다는 표지 글이 붙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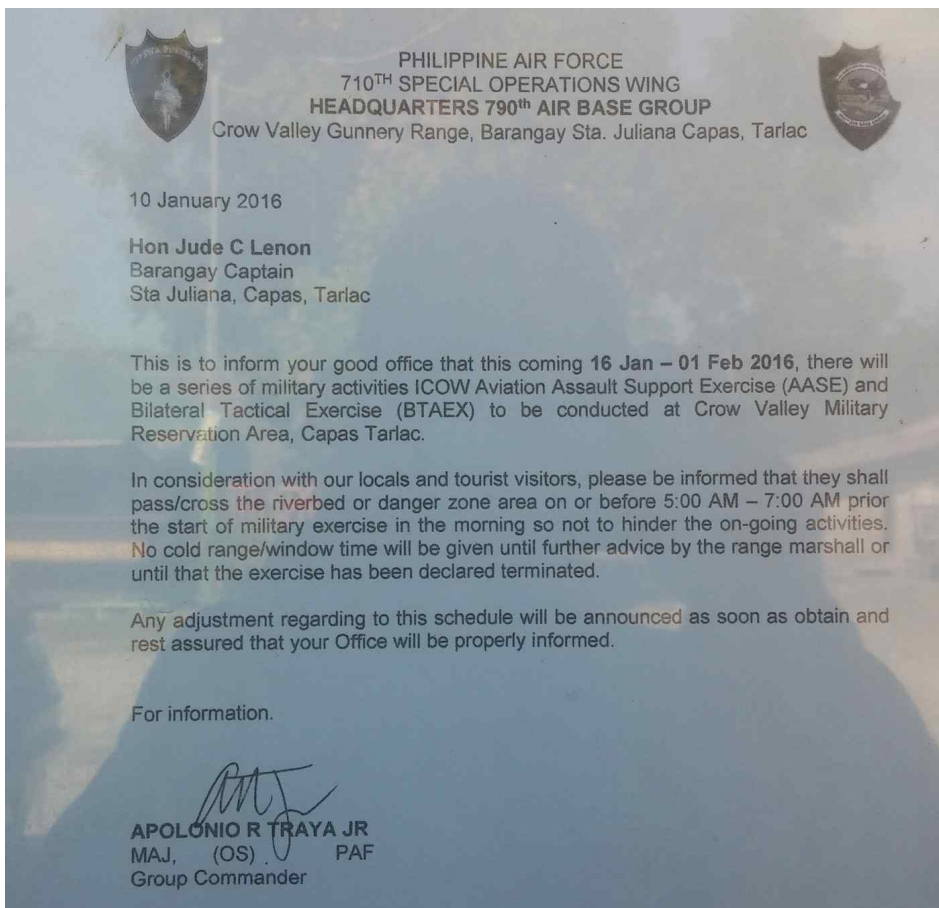


그림 55 공군기지에서 붙인 안내글

“스파타운, 핫스프링은 어떻게 가나요?” “문 닫았어요.” “여기서 뭐 할 수 있지요?” “ATV를

타거나...”

그건 별로다. 그냥 발길을 돌렸다. 파들링에 도착해 푸근해 보이는 아줌마네 가게서 맥주 한 병에 점심용 샐러마이와 오징어튀김으로 아침을 먹었다.

11시에 지프니를 타고 파들링 출발. (30페소/인)

| 9-2 |

(INFO) 따가이따이 피크닉 by anakii

1호선 EDSA역과 3호선 Taft avenue (남쪽 종점) 아래 소고호텔 뒤, 버스터미널에는 나석부Nasugbu 가는 버스가 출발한다.

“따가이따이 피크닉그로브 picnic grove 가려면 어디에 내려야 해요?”

“따가이따이 터미널에서 지프 타세요.”

버스는 5열좌석 에어컨버스다. 값표를 잘라주며 156 한다. 두 시간 걸린했는데 의외로 싸구나.

버스는 곧바로 대로로 나왔고 조금 달리다 국도로 접어들었다. 마닐라 외곽도시들과 계속 이어진다. 사람들이 많이 살고 어디에나 대형슈퍼들이 자리 잡았다. 로빈슨,세이브모어등등.

한 시간 반 달려 따가이따이 터미널에 도착. 트라이시클 기사들이 달라붙는다.

“딸 호수? 딸 볼케이노?” “아네요. 피크닉 그로브 가요. 볼케이노 그냥 구경할 거예요.”

난 트라이시클 기사에게 오히려 물었다. “피크닉 그로브 가는 지프니 어디예요?”

“저기 피플스파크People's park가는 지프니 타면 돼요.”

터미널에서 피플스파크 방향 지프니를 타면 10여분 만에 딸Taal 호수 전망의 스카이웨이길에 접어들고, 잠시 정차했다 출발한 지프니는 곧이어 피크닉그로브에 섰다.

하지만 피플스파크 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어서 잘은 몰라도 끝까지 가 보기로 한다.



그림 56 피플스 파크



그림 57 피크닉 그로브

피플스파크는 피크닉그로브를 지나 10여분 더 산을 올라간 곳에 있었다.(16페이지)
구글지도엔 People's park of the sky 라고 표시되어 있다. 무척 많은 현지인들이 가족단위로
놀러온 곳인데 올라가 보니 팔 호수를 조망하는 풍광이 멋진 곳이었다. 사진 몇 장 찍고
피크닉그로브로 다시 내려왔다.

피크닉 그로브엔 피크닉 온 사람들로 가득. 테이블이나 세드를 빌리는데 100~300씩 내고
자리 잡거나 잔디밭에 돛자리 깔고 메운다. 집라인이 두 군데 있다. 하난 옆드리는 거고 하나는
매달린다. 길이는 200m쯤 될까? 평일엔 편도 200 왕복300, 주말엔 100씩 비싸지네.
우리로서는 별달리 할 일이 없다. 잔디밭에서 밥 먹기에도 뜨겁고 말 타기, 보트타기 등등
대부분 흥밀 끌기에는 역부족. 적당한 난간에 걸터앉아 싸간 점심먹고 2시반경 피크닉
그로브를 나왔다.

지프니 타고 올리바레즈플라자앞에 내렸다. (11페이지). 마닐라와 다른 곳으로 가는 버스들이
서 있다. 바글라란Baclaran 이라고 쓴 버스를 탔다.

마닐라에서 버스 또는 지프니를 타려면 지역이름을 알아야 겠다. 어제 앙헬레스에서 올 때도
쿠바오Cubao 라고만 쓰여 있었으니까. 하긴, 우리나라도 시외버스에는 '동서울'이란 터미널
이름만 쓰여 있고 서울이라는 지명은 없구나. 길이 좀 막혀서 2시간 20분 넘어 걸렸다.

바글라란 가까이 왔는데 길이 넓고 탁 트인 곳이라 잠시 내가 알고 있는 지역이 아니라 다른
지역인가? 흠칫, 했지만 구글지도를 확인해 보니 여기가 바글라란에서 몰 오브 아시아 있는
지역이다. 우연히 몰 오브 아시아 구역으로 와 버렸네. 여기 올 거 였는데.

몰 오브 아시아도 SM에서 운영하지만 다른 몰과 크게 다른 점이, 바로 공용 벤치다. 시내의
거의 모든 몰에서 (SM City, Landmark, Glorietta 등등 모두) 공용벤치가 없어 쇼핑몰을 걷다
쉬려면 무조건 음식매장에 들어가야 했기에 어이없었는데 이곳은 최소한 정상은 되는구나.

거대하지만 특정할 것 없는 아시아몰. 잠시 있다가 택시타고 Gil puyat LRT역까지
온뒤(110페이지) 전철로 퀴리노역까지 이동했다. 숙소에서 짐 찾고 퀴리노 대로에서 NAIA
1터미널까지 택시. 남북을 잇는 도로인 태프트대로는 승용차와 지프니로 범벅인데 동서를 잇는
퀴리노대로와 외곽 해안도로는 비교적 한산하여 썩썩 달린 택시는 말라떼에서 20여분 만에

공항에 도착했다. (170페소)

☞ [마닐라에서 taal day tour 가기]

12명 기준으로 1인 1500이다. 9명은 1700.

따가이따이 서브투어가 있으므로 보통 9시에 마닐라에 도착한다.

<http://www.e-philippines.com.ph/philippines-travel-package/explore-taal-volcano-tour-package-day-tour/>

<http://taaltours.blogspot.com/?m=1> 이곳은 10명 기준 1590페소.

TAAL Volcano 셀프 트래블 :

<http://www.foongpc.com/2011/04/cheapest-way-to-visit-taal-volcano.html>

1월24일(일) - 따가이따이(딸 호수)

아침 7시에 일어난다. 어제 힘들었던지 정신없이 잤다. 꿈에 우리 집이 있다고 하는 곳이 물난리로 다 잠겼다. 언덕 위에서 잠긴 곳을 바라보는 심정이 참담했다. 아침을 먹으러 내려간다. 프렌치토스트와 물 같은 커피를 준다. 그래도 먹을 만 했다. 10시가 넘도록 차곡차곡 짐을 챙긴다. 마닐라의 이 숙소가 정말 좋았다. 꼬박 3일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잘 이용한 숙소이다. 별 3개짜리 호텔답다. 배낭 2개는 맡기고 걸어서 전철을 타고 옛사에 내린다.

버스로 따가이따이에 간다. 자리 5개의 버스다. 에어컨이 너무 세서 휴지와 비닐로 틀어막았다. 남쪽으로 내려가도 마닐라의 연장 같은 풍경이다. 시골 풍경도 아니고 특별히 볼 것이 없다.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허름한 집들도 많다. 버스는 어제 버스에 비해 절반 가격이니 저렴하다. 시간 반 만인 12시 15분에 따가이따이 정류장에 도착한다. 지프니로 사람들이 많이 가는 피플즈 파크에 먼저 간다. 언덕 위 높은 곳까지 지프니가 올라가면서 공기가 더 차졌다. 입장하기 위해 사람들의 줄이 길다. 돈을 내고 들어가면 다시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지프니를 5를 내고 탈 수 있다. 날이 흐리고 바람이 많이 분다. 딸 호수와 섬, 분화구가 보이는 가장 시원하고 탁 트인 정망의 장소이다. 반대편은 넓은 평원이 펼쳐져 있다. 필리핀의 50짜리

지폐에 딸 호수와 이 분화구가 그려져 있다. 일요일이라 놀러 온 사람들이 무척 많았다. 호수가 보이는 곳에서 사진을 찍고 내려온다. 지프니를 잘못 타서 2번이나 갈아타고 피크닉 그로브에 내린다. 역시 사람들이 많다. 셰드를 빌려서 먹을 것들을 솔단지 채로 바리바리 싸와서 펼쳐놓고 먹는다. 말을 타거나 쥘라인 타는 사람들도 있다. 마닐라 사람들이 주말에 이렇게 시간을 보내나 보다. 남편은 잔디에 펼쳐놓고 먹고 쉬는 모습이 우리나라의 80년대 풍경이라고 한다.



그림 58 피크닉 그로브에서 딸 호수를 보며

이곳에서는 섬과 분화구가 더 가까이 보인다. 굳이 돈을 많이 내고 저 분화구에 갈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이 든다. 여기만 온 것이 좋은 선택이었다. 그러나 이런 공공장소에 의자가 하나도 없다. 어제 마카티에서도 쇼핑 몰에 의자 하나 없는 것이 참 야박스러워 보였다. 여기서도 점포에서 먹을 것은 팔지만 앉을 곳은 한 군데도 없다. 잔디는 쓰레기나 동물의 똥이 군데군데 있어서 앉고 싶지 않았다. 결국 가게 앞의 턱에 앉아 사람들을 바라보며 싸 온 점심을

먹는다. 슈퍼의 샤오마이는 이제 남편도 질렸다고 한다.

나와서 지프니로 돌아와 마닐라행 버스를 탄다. 2시 40분에 탄 버스는 작은 도시의 동네들을 돌며 사람을 태운다. 심지어 서서 가는 사람도 생겼다. 어쩌면 그렇게 마닐라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사는지 대단하다 싶다. 역시 메트로 마닐라다. 일요일에 교외에서 마닐라로 들어가니 당연히 몹시 막힌다. 2시간 반이나 걸렸다.

몰 오브 아시아 가까운 곳에서 내려서 택시로 몰에 간다.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마닐라는 몰의 도시이다. 전에 왔던 모습 그대로이나 더 복잡하고 사람이 많다. 그래도 여기는 곳곳에 사람들이 앉아 쉴 수 있도록 해 놓아서 보기 좋았다. 바닷가의 놀이 기구 타는 사람들도 구경한다. 바글바글 끝없이 펼쳐진 사람들의 행렬도 정신없다. 마땅히 먹고 싶은 것도 살 것도 없다. 대충 구경하며 돌아다니다가 남편이 서울비빔밥을 발견했다. 어제도 맛있게 먹어서 라지 비빔밥과 떡볶이를 주문한다. 앉을 자리가 없어 우리나라 아이들 옆에 앉았다. 영어 캠프에 왔다고 한다. 여기까지 와서 비빔밥을 시켜 먹는 모습이 좀 안되어 보인다. 여기 음식이 입에 맞을 리 없다. 고추장 소스를 갖다 넣는 걸 모른 채 하얀 비빔밥을 비비고 있어서 가져다가 비비라고 알려 주었다. 우리도 듬뿍 넣어 맛있게 먹는다. 떡볶이도 괜찮았다. 뜨거운 불판을 쓰고 제법 우리 것의 맛을 내어 신통하다. 무엇보다 비싼 한식당이 아니라는 점이 좋다. 이걸 먹고 나니 남편은 정신이 좀 든다고 한다. 슈퍼에서 꿀과 우유를 사고 택시로 질 푸얏 Gil Puyat역에 온다. 전철로 퀴리노에 내려 걸어서 숙소에 온다. 짐을 다시 정리하고 인사한 후 나왔다. 택시로 공항에 간다. 길이 약간 밀렸지만 잘 빠져나가 8시 40분에 왔다. 170페소 나왔다. 표를 받고 들어와서 선물용 담배와 해안이 생일선물로 줄 립스틱을 산다. 스타벅스에서 가장 큰 커피를 시켜 마신다. 여기도 우리 돈 내고 자발적으로 처음 와보는 곳이다. 공항의 음식들이 다 조금씩 비싼데 이곳은 가격이 같고 자리도 편하다. 엄마, 해안이와 카톡을 했다. 우리나라는 지금 무척 춥다고 한다. 들어와서 비행기를 기다린다. 시간이 지연되어 12시 15분에 출발한다. 오늘 우유 때문인지 오랜만에 매운 음식을 먹어서 인지 배가 아파 화장실에 다녀오고 일기를 쓴다. 남편이 기내에서 팔찌 모양의 손목시계를 사 주었다. 벌써 1시 15분이다. 내일 아침에 추워서 얇은 옷으로 어떻게 갈까 싶다.